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열린 하늘

레마

적용 안내서

레마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말씀들’이다

이 안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 마음과 생각’ 사이에 존재하는 틈을 드러내 주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위함이다. ‘하나님은 마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육체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라오도록 하고자 함이다. 마음(가슴속)은 육과 사고하는 생각(정신)과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안에서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관계’를 활성화시키며, 성령께서는 바로 이 마음안에서 우리가 말로 선포하게 하심을 통해 현재를 위한 기적의 해결책들을 가져오시며, 미래를 위한 공급, 방향제시, 치유, 해방, 보호와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과거로부터 해방되도록 하신다.

이 안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용하시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땅과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안으로 변화되어 들어가게 한다.

안내서나 목회자 혹은 친밀함을 위한 부흥성회를 원하시면: 1-661 754 1009 로 전화하십시오. 미국외의 연락처: 001-661 754 1009. www.openheavenworshipcenter.com 혹은 www.rhemaapplicationuniversity.com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이 레마 현실의 계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2013 년 7 월에 성령님께서, “나는 네가 레마 학교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마태복음 13 장을 참조하라고 주셨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부터 이해하도록 주시는 계시들로만 깨닫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마태복음 13 장 11-12 절의 말씀을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하며 받아서, 우리의 사고가 변화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3:11-12, “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 말씀과, 계시와, 기적적인 평안, 또는 레마와 계시와 기적적인 평안은 다 모든 일에 이기며 넉넉히 승리하는 자와 같은 것이다.

이 안내서는 하늘나라의 현실이 땅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관점으로 쓰여졌다: 그 예들: “다 이루었다”, “네가 살려면 죽어야만 한다”,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너희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9:29 에 “너희가 백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위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삶속에 있다면 당신은 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천국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아니라면, ‘네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당신이 구할 때 성령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기적을 체험하는 적격성과 구하는 기적의 방식은 ‘오직 마음으로만’ 이해되는 것이다.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회개하고,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방법들을 구하라.

요한복음 19:30, “다 이루었다”,와 요한복음 17: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이 깊이 보면서, 계시들을 받고,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하며, 받으라. 그러면 당신은 기적들을 받게 된다.

‘먼저 나의 마음과 얼굴을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나의 방법대로 주어질 것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레마에 대한 사실들

하나님께서 인간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마음,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려고

마음(가슴)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사고하는 정신(머리로 사는 쪽)으로 갔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아직도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가슴)에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리로 사는 삶으로부터 나와 그가 우리와 만나주시는 곳이며 또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곳이기도 한 우리의 마음(가슴)으로 돌아가 살도록 변화시켜 주신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당신이 합당하게 되면 당신의 마음안에 사실 수 있으시고 또 사실 것이다. 주 예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자든지”라고 말씀하셨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받아드릴 시간이다!

마음(가슴)대 사고하는 정신(머리)의 실존

내가 아프리카 토고에 있을 때 모임을 갖은 각 교회마다 받았고 친밀한 부흥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와 치유, 공급하심과 해방과 변화등 은사들이 나타났고, 하늘의 평강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두 목회자 모임만 제외하고는. 내 생각에 지도자들은 분석하고 너무 조종을 심하게 하여 경쟁하시지 않으시는 성령님을 막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해하는 바는 더 많은 교육을 받았거나 신학적인 이해가 더 있는 사람일수록 상상력도 더 풍부한 것 같이 보인다. 사람은 그들이 가진 상상력의 수준만큼 존재한다. 그들은 그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상상이 맞다고 믿는대로 살며 그것을 삶이라 칭한다. 그들이 그것을 만들었고 그것이 그들의 상황들을 지배한다. 이 매뉴얼은, 당신의 마음이 먼저 이해를 하고 그에 이어 사고하는 정신이 따라오도록 하고자 하기때문에, 상상력을 초월하여 당신의 마음으로 바로 들어간다. 그럴때에야 비로소 당신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안에 살며 기적들이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안다면 무엇이 가능하리요?’

당신이 당신의 머리(사고하는 정신)로 이해하고자 원한다면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당신의 머리로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안에 사는 것’을 이해할 수 없거니와, 신학적인 이해나 교육적인 머리로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종교적인 논리와 세상적 논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만 이 안내서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종교적인 논리는 당신을 그저 문 밖까지만 가도록 해주지만,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하여 오늘날 이 땅에 임하였고 또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나라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에 유익하리요? 머리로 살도록 교육하는 사고 교육은 당신이 문안에 있기를 원하지만, 단지 당신을 대문 바깥에까지만 오게 할 뿐이며, 당신이 오늘도 혹은 영원히 아직도 문밖에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이해하라. ‘지금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신을 들여다보며 정직해지라!’

이것은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면 나를 대적하느냐’고 말씀하셨듯이 지금이나 앞으로도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요, 당신이 들어가느냐 밖에 머물 것이냐의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 삶속에 사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기적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관계속에 있는 기적들을 받아들이라!

이 땅에 임한 천국안으로 들어가는 기적의 문은:

어떠한 때든 주어진 시간에 당신이 있는 곳에서 더 깊이 깊이, 더 높이 높이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안에 있게하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천국의 현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보다 깊은 마음의 문제이며, 참 실제이며 우리는 그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현실속에 살면서 머물라고 주신 기적은 주 예수님의 기적의 보혈이다. 그런 이유때문에 기적이라고 칭하는 것이고,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기적들을 선포하신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결과들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받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나의 결정들을 하시도록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문제도 없게 되는 것’

‘이것이 하늘의 왕국,
천국이다’

이 땅에서와 영원토록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

당신 자신도 포함하여 ‘모든 것보다 주 예수님을 갈망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대신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리스도의 방식들로만’

아니면

인간이 소위 **바른 길들**이라고 말하는 세상 방식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오직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죽지 않는 교만이 있다

거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나를 대적하든지”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목차

겉장	1
레마에 대한 사실들	3-4
선언문	5-6
목차	7-9
서문	10
이 레마 매뉴얼의 계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와 마태복음 13:10-13	11-12
안내서의 총체적 전제:	13-19
만약 당신이 기적들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필요로 한다면	20-22
4.5.6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기도의 결과들 경험하기	23-24
부흥성회안에서의 역동성과 머무름에 대한 레마의 방식	25-28
레마로부터 나타나는 실제와 지속적인 결과들	29-31
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열쇠들	32-34
그리스도 제자도의 핵심들	35-39
제 1 장 <u>그리스도 제자도의 다른 단계들</u>	40-41
제 2 장 <u>7 단계, 6 단계와 5 단계</u>	42-46
7 단계: 그리스도 제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것’	
6 단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	
5 단계: 성령님의 주도권안에 거하기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제 3 장	4 단계를 위한 당신의 적격성 확인하기	47-58
	성령께 듣는 것과 주 예수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u>‘땅에 임한 하늘나라안에서 살기’</u>	
	1. 그리스도 제자로 변화되기	47-50
	2. 주 예수님, 나의 삶을 당신의 손에 의탁드리나이다	50
	3. 당신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세례를 받으라	51
	4. 지속적인 적합성 경험하기	51
	5. 계속적인 비추임을 받도록 헌신:실전과 믿음의 승리	52
	6.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적들을 위한 도구들	53
	7. <u>믿음</u> : 적격성, 관계, 실체화와 구원	53
	8.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며 그분 안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	54
	9. 기적들 가운데서 이 과정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라	54
	10. 당신의 삶속에 기적들 받아들이기	55
	11. 변화는 하늘 나라의 현실이다	56
	12. 땅에 임한 천국은 위조되거나 복사되거나 희석될 수 없다	57
	13. 적격성을 받은 후에 책임의 단계들	58
제 4 장	4 단계, ‘땅에 임한 하늘나라안에 살기’ 간증들 경험하기	59-91
	1. 내가 경험한 간증들	59-78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2. 한 여자아이와 여인 – 나의 아내의 간증들	79-91
----------------------------	-------

제 5 장	3 단계,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에 들어가는 준비’	92
-------	-------------------------------	----

1.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관계로 알 필요가 있다	92
2. 인간이 만든 신조 체계: 그것을 포기하라!	93
3. 믿음의 기초와 몇가지 믿음의 기본 원리들을 이해함으로 시작하기	94
4.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보혈통해 영적인 침례를 받으라	95
5.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쥐버리지 말라	96
6. 존재와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96
7. 참 진리의 지식이 있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는 판단이 있다	97

제 6 장	2 단계,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가진 것보다 더 갈망한다’:	98
-------	------------------------------------	----

<u>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삶을 내려놓는 전제 조건</u>	99
----------------------------------	----

1. 적격함을 부여받는 단계들
2. 땅에 임한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들

제 7 장	1 단계, <u>당신의 삶에 지금 가진 것보다 더욱 갈망하기:</u>	100
-------	--	-----

<u>당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든지 아니면 안믿는다</u>	101
--------------------------------------	-----

제 8 장	<u>인간이 하나님 없이 존재하려는 투쟁과 하나님의 완벽함을 모조하려는 시도</u>	
-------	--	--

102-103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제 9 장	<u>내가 찾은 실체화된 내 개인의 신앙여정</u>	104-124
	1. 나의 개인적인 여정	104-109
	2. 땅에 임한 하늘 나라의 현실을 받아들이면 나의 사고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110-112
	3. 주 예수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현실과 ‘땅에 있는 하늘 나라의 용해력’	113-115
	4.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삶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창조. 재생된다	116-117
	5. 나의 어떤 개입 없이 하늘 나라의 미지의 삶을 살아내기	118-119
	6. 넉넉히 이기는 정복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120-124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서문

레마 안내서의 계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삼년 전 2013 년 7 월에 성령님께서, “나는 네가 레마 학교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마태복음 13 장을 참조하라고 주셨고, 올 해 2016 년 4 월 16 일에는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매뉴얼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최고로 그 분을 높이며 나타내라고 하였고 찬양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 안내서는 마태복음 13 장 10-13 절을 기반으로 하며 성령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13 장 전체를 이해하도록 해준다. 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비유로 하셨다(이사야 6:9-10, 마태복음 13:14-15). 이것은 전혀 우리의 지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님의 계시로만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해하도록 가능하게 하신다. 그렇게 되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원하시는대로 우리의 사고가 변화받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비유’와 ‘믿음’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설명해 주시도록 구하라!

이것은 단지 사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누구든지” 또 “모든 자”를 위한 것이다

마태복음 13:10-13 “10 제자들이 나아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11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12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13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이 안내서는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쓰여졌다. 그 예들: “다 이루었다”, “네가 살려면 죽어야만 한다”,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너희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9:29** 에, “백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 받으리라”. 위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삶속에 있다면 당신은 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천국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아니라면, ‘네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당신이 구할 때 성령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기적을 체험하는 적격성과 구하는 기적의 방식은 ‘오직 마음으로만’ 이해되는 것이다.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회개하고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일들에 있어 주님의 뜻과 방법들을 구하라.

당신은 주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을 갈망하는가? 그렇다면 깨달으라: 아무 것도 거저는 없고, 당신이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삶과 오늘 당신의 방식대로 살고있는 삶 전부를 댓가로 지불할 때, 주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신다. 진실로 주 예수께서 전부를 주셨고 그 분은 우리로부터 동일한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에게는: 주 너희 하나님을 온 마음과 혼과 몸과 정신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 안내서는 당신이 허락만 한다면, 당신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 안에서 살도록 도와 줄 수있고 도와줄 것이며 **당신을 위하여** 영존하는 천국에 연결되도록 해줄 것이다.

저자의 말: 나는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에서 살고 있 고, 기꺼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의 산물들을 들으며 순종하고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있다.

땅에서의 상상력과 존재: 나도 그곳에 있어보았지만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땅에 임한 참된 하늘 나라 없이 자신들 스스로 존재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본다.

나는 나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삶속에서 지속적으로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고, 나의 마음과 사고는 천국을 향해 있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이 안내서의 총체적 전제:

1 레마는:

- a.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합당하게 되는 것이다.
- b.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의 뜻과 방법들을 듣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 c. 성령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받는 것이다.
- d. 성령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한 단계 한 단계마다 방향제시와 공급하심을 받는 것이다.
- e. 땅에 임한 하늘 나라를 통하여 당신의 마음과 사고가 변화되는 것이다.
- f. 성령께서 당신과 상황을 이끌어 가기 원하시는데로 당신의 마음과 사고, 해방, 공급, 보호, 소원들,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g. 당신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에 올바르게 있게 하고 계속 머물도록 하는 잣대로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성령님의 음성을 사용하는 것이다.
- h. 주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음성이 당신을 자아에게 포로된 것으로부터 또 인간이 만든 모든 세상적인 것들에게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하여 당신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의 기적가운데서 살며 그 안에 머물도록 해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 i. 이 안내서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을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에서 사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축으로 회전하며 결국 영원한 천국에 있도록 한다.

2 성령님께 듣기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 a. 성령님의 음성은 현상과 기적인 동시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실제 현실이라는 점을 이해하라.
- b. 성경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주시는 관점으로 읽기를 배우면, 당신은 백배로 받을 것이며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중심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거하는 것이다.
- c. 먼저 당신의 마음으로 이해한 다음 머리로 하라: 그 차이점을 항상 알고 결코 혼돈하지 말라.
- d. 그다음 성령님의 음성이나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받아들인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해야 순종하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당신의 사고가 제대로 마음에 맞추어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말씀되어진 바가 당신의 삶속에서 실재화 되기 시작할 것이다.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 a.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b. 성령께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합당하게 갖추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엔 말씀대로 **행하라**.

4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받기

- a. 당신의 사고가 점점 더 깊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게 되고 당신은 평강속에 있게 된다.
- b.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다음 단계를 위하여 준비가 갖추어지게 된다.

5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 a.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해결방안 제도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됨을 알지어다”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며, 문제들이 녹아져 버리고 내 앞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소원들이 실제화된다.

- b. 그러면 나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주 예수님과 그의 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방법에 순복하게 된다.

6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a. 내가 진정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친밀한 왕국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속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할 때, 인생가운데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의미를 잃게 된다.
- b. 내가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안에 있을 때에, 나는 하늘의 평화속에서 기적들을 받게 된다. 그래도 때로 땅의 것을 원하거나 부족함을 의식은 하며, 땅의 관점들을 보고 듣기도 한다.
- c.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안에서 있던 하나님의 친밀한 왕국, 즉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탈하여 육신의 상태안으로 되돌아 갔다는 것을 안다.
- d. 그리되면 내가 슬퍼하기 시작하고 이런 애통함이 나를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맞대면하도록 해준다. 이것이 하나님앞에서 나의 정직함과 진실된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며, 그럴때에 다시 하나님의 친밀한 나라안에 들어가 있게 된다.

7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안에 살기

- a. 이것이 에덴 동산안에서였고, 그 다음엔 광야, 또 그 다음엔 약속의 땅안에서의 삶이었다.
- b. 그리고 오늘날 당신이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안에 있을 수 있다.
- c. 친밀한 천국이나 땅에 임한 하늘 나라나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안에 거하는 것은 자아보다 더 깊은 것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8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완전히 주권적이시고 ‘나 스스로 있는 분’ 이시다

9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 a.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거나 죄를 짓지 말라’. ‘다른 신들이나 죄’가 서로 대체되는 의미임을 명심하라.

10 주 너희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몸과 온 정신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

- a.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예수님은 오직 ‘온 마음과 온 몸, 온 정신,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만, 그런 사람과만 함께 사실 것이다. 이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사실 수 있으시고 또한 살으실 성령님을 통하여 답을 주셨고, 성령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나를 능하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다.
- b.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세워진 건물 안에 사시기를 원치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선행속에 사시지 않으실 것이다.

11 하나님의 사랑 이해하기

- a. 하나님은 죄로 가득찬 그의 피조물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내 앞에 죄를 두지 말라’ 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 안에서 모든 것이 새 것이다.
- b.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기적의 보혈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용서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하셨다. 주 예수님의 기적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그 분을 닮아 변화할 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12 다스리는 권세를 취하기

- a. 당신은 승리자이며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b 와 c)에 의하여 모든 권세를 취하라.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 b. 주 예수님의 기적의 보혈과 성령님의 음성과 그 분의 지시들.
- c.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존재하게 된다.
- d. 그리고 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둔다. 그런후 나 자신과 모든 상황, 미래를 그 분의 인격적인 손에 맡긴다. 그럴 때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친밀하게, 천천히 지속적인 기적들이 펼쳐지게 된다.

13 태초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해결책의 개념

- a. 태초부터 있던 해결방안이 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이해하라.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해결방안의 개념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가운데 있으며, 문제들은 없고 다만 해결책만이 있을 뿐이다.
- b. 당신은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함으로 이 해결방안 개념에 당신을 맞출 수가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보혈로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며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 c.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는 당신 자신과, 사고와 마음을 다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으며, “다 이루었도다” 하신 것을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태초부터 당신에게 이미 주어진 그 해결책안에서 사는 것임을 마음으로부터 안다.
- d. 사람의 믿는다는 말이나 요구는 다 수준 낮고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고차원적인 믿음과 요구는 당신의 모든-당신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과 앞으로 갖게 될 모든- 것을 댕가로 치루게 할 것이다. 이러한 높은 수준에서 당신의 온 맘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난미은 당신을 능력으로 띄 띄우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된다. 여기서 믿는 것(믿음)이 아는 것이 되며,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 e. 바로 이곳에서 해결방안 개념이 작용하며 당신의 하나님의 뜻과 길에 의해 능력을 받게 된다.
- f.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 g. 내가 매일 회개함으로 이 자리로 다시 들어가며, 이 해결방안 개념 안에서 걸으며 머물게 된다. 요즘은 나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낯설고, 땅의 것들은 뭔가 부족하고 야만스럽게 느껴진다.
- h. 이 생에서의 문제들은 이 해결방안 개념을 모르는 것과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는데서 온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 안에서 살므로 변화될 수 있으며, 그 값이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 해결방안의 개념은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이며, 하나님의 기적은 당신을 재정비, 변화시킨다.
- j. 해결책의 개념은 기도가 아니다.(내가 보며 행하는 참 기도는 뒷 페이지에 나온다) j와 k의 해결책을 따르는 것은 내가 2016년에 아프리카 토고에 갈 때 주신 것이다. 이 개념은 당신의 손을 이마에 대고 입으로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다: “주 예수님의 기적의 보혈은 내 생각속에 들어올찌어다.” 다섯 번을 선포하되 매번마다 더욱 깊이 선포하며 들어간다. 당신의 마음이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을 받은 것을 주목하라.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그분의 생각에 맞추고, “주 예수님, 당신의 생각안으로 들어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더욱 깊이 들어가면, 당신은 자신의 생각속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 k.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하라. 당신의 손을 가슴에 얹고,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은 나의 가슴으로 들어올찌어다”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을 다섯 번 선포하고, 매번마다 더욱 깊이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를 받고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답하신다’고 말하며 그의 마음을 우리 마음안에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두신다고 말씀한다. 당신이 이것을 매일 아침과 밤마다 하면, 당신의 삶은 즉각적으로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미지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것이다. 더 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욱 깊게 받을 것이다.

- I. 우리가 토고에 있을 때, 우리가 갔던 각 교회마다 사람들에게 이 개념을 말해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했을 때, 사람들은 그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약 5 분에서 10 분동안 계속 한 후에, 나는 각 개인 위에 천국이 열리는 것을 보기 시작했고 그들은 교회 전체 여기저기서 자기들이 앉았던 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가 보기에는 오순절 역사가 시작된 것이었다. 이것은 각 개인을 위하여 땅에 임한 하늘 나라이다. 주지해야 할 것은 각 개인이 갈망해야 하며 하나님의 미지적인 천국이 열리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주님께로부터 그들위에 임하는 어떠한 나타남이라도 받아들일게 되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나타남들 (은사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되는 것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자신들을 위해 불확실하지만 온전한 미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들임을 보았다.
- m. 저자의 계시와 경험: 나는 지난 22 년동안 매일 나에게 이러한 미지의 나타남들이 내려움을 경험했고 이것을 나는 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라고 부른다. 그안에서 행하는 삶의 결과는 언제나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만일 당신이 기적들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면, 당신의 삶속에
성령께서 흥하시도록 하고 당신은 쇠하여야만 한다.

1.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깨닫기 위하여 성경 읽기

- a. 출애굽기 20:19 을 읽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기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죽이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신 십계명을 받았다.
- b. **저자의 계시:**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광야로 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하셨고, 둘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오셨다. 그들은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대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람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왜 당신과 나라고 말씀 안하시겠는가.
- c. **저자의 계시:** 내가 있던 곳에서 살려하지 않고 나 자신을 포기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다.

2. 주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쓰신 목적을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서 읽고 이해하라

- a.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이해하라. 언제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 b.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해서 구절들을 받고 기적들을 받으라.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 c. 성령께서 구절들을 당신에게 암시하시며, 말씀하시거나 나타내 주셔야 한다.
- d. 그러면 그 성경구절들이 당신에게 능력이 되며 깨달음을 줄 것이다.
- e. 그 구절들은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하여 땅에 임한 하늘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이다.
- f. 성경 구절들은 비유이다. 마태복음 13:10 을 읽으라. 땅에 임한 하늘 나라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까지 그 구절안으로 깊이 들어가 계시를 받으라.
- g.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그 구절들안으로 들어갈 때, 그 구절들이 빛을 비추며 기적들이 실체화된다.
- h. 어떤 구절의 깨달음은 내가 더욱 비추임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 i. 어떤 구절의 깨달음은 내가 땅에 임한 하늘 나라 안에서 더욱 승리하며 살게 함이다.’
- j. 당신이 지금 있는 곳보다 더 많이 땅에 있는 천국을 필요로 하고 갈망한다면, 당신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경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인가? 성경의 문자에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그것의 계시를 마음과 생각에 감동시켜 주시는 저자이시다. 그 둘다 당신의 삶속에 자리가 있지만, 성경이 원래 의도된대로 올바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와 계시자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 k. 그것은 당신과 성령, 주 예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영적이며 현실성있는 관계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모두 다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속에 내려놓을 때, 땅에 임한 하늘 나라를 받기에 합당하게 된다. 성경이 모든 땅에 임한 천국의 활동들과 성령께서 그의 성경을 통하여 당신에게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는 관계를 확인시켜 줄 것이다.
- l. 당신의 머리로는 땅에 임한 하늘 나라의 현실성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성령에 의한 계시와 능력의 부여를 통해서만 되어진다. 그럴때에 당신의 사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 m. 저자의 계시: 성경은 영적으로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읽을 때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또한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에 대한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며 약속과 기적들이 내가 죽은 후 뿐 아니라 현재 나의 삶속에서 나타나며 적용되어 진다.
- n. 저자의 계시: 나는 내 삶속에서 약속들을 받고 있기때문에 위의 사실들을 안다. 내가 만족이 안되고 내 삶속에 성령의 뜻과 길들을 더욱 원할 때는, 나는 더욱 깊이 깊이 들어간다.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더욱 더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속으로 들어가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은 실체화된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4, 5, 6 단계에서 효과적인 기도의 결과들 경험하기

주 예수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대로만 말한다”고 요한복음 8:28 에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한복음 11:42 에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고 당신의 거룩한 마음이 기적들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는 것을 이해하라.

1. 어떻게 기도(대화)가 응답되고 기적들이 실체화되는 가를 경험하고 이해한 나의 간증:

기도한다는 단어는 비유이다. 마태복음 13:10; 그 단어는 ‘중보’이고, 오직 성령께서만 중보를 주도하실 수 있으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 a. 나는 사라졌고 또 성령의 손길과 성령의 마음에 나 자신이 녹아 사라지게 한다. 그리고 내가 통제를 잃게 될까하는 모든 두려움을 던져 버린다.
- b.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처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 c. ‘내가 얻지 못함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기때문임’을 이해해야만 한다. 나는 나의 원함과 나의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들에 대한 더 큰 그림의 하나님의 윤곽을 알아야만 한다.
- d. 내가 하나님의 나라안에 있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 대답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어떤 순간에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면 나는 천국 바깥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땅에 임한 주님의 나라안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늘 나라밖에 있기에 나는 회개하고 다시 들어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
- e. 나는 회개하고 모든 또 그 어떤 것에도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간구하므로, 어느 때라도 다시 하늘 나라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 f. 저자의 기도방식: 나는 내가 배운 옛날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성령께서 그분의 관점을 나에게 보여주시도록 하고 성령께서 보시는대로 보도록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하도록 구한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관점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대로 한다. 단지 나의 마음으로부터 또 때로는 나의 입술로도 주님의 기적의 보혈과 기적의 삶과 그분의 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과 주 예수님, 당신의 임재에 “예스”라고 말할 때 나는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있지” 하시는 소리를 듣는다. 그럴 때 내게 평강과 확신이 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시는 음성을 듣는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나의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확신도 내 안에 기적으로 머물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화를 행동화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 g. 내가 육신적으로나 마음에 결핍이 있을 때는 나는 내 마음으로 간구한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보좌에 함께 하는 후사가 된다.
- h. 때로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 무엇인가 구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앞서서 그것을 하시도록 조종하려 할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고백한다: ‘주 예수님, 제가 당신을 조종하려 하고 있군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그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 정직해지라.
- i. 그리고 나서 나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부르짖는다: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방법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지”라고 말씀하신다.
- j.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실 수 없으시다.
- k. 그러면 성령께서 나와 대화하시며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있지”라고 말씀하신다.
- l. 아니면 주 예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실체화되고 나는 기적을 받게 된다. 그러면 나는 우리가 친밀하다는 것을 안다: 내(성령님)가 네(지인)안에, 네(지인)가 내(성령)안에 있는 관계다. 때로 나는 안다: 마치 하늘에서 그렇듯이 이 땅에서도 내(지인)가 당신(성령)안에, 당신(성령)이 내(지인)안에 하나로 함께 있는 것이다.
- m. 친밀함이 발생하면 나는 이기는 자가 되고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 하늘의 관점으로부터 보는 땅에 임한 하늘 나라다. 그럴때 나의 제한적인 관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게 된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부흥성회안에서의 역동성과 임재안에 머무는 삶에 대한 레마의 방식과 지속적인

부흥안에서 머물기

1. 모든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은 교회내 맨 뒤쪽칸으로 가셔서 무엇을 하실 필요없이 자신들도 마음을 열고, 위를 바라보고, 운행하시는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심으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그럴때에 성령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일하실 것이다. 그저 성령안에서 회개하고 곧장 들어가라. 그런후 지도자들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로 뒷자리에서 지침을 준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아왔다. 또한 다섯명이 한 조가 되어 안내서를 읽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그분의 방식으로 인도하시도록 하라.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만을 주도록 하라.
2.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천국관점의 7 가지 기도제목들:
 - a. 네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임을 이해하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길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 있는 하늘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바꾸어지기를 얼마나 바라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알라.
 - b.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에 의탁드리며, 주 예수의 기적의 살을 의지하나이다’ 라고 소리내어 고백하라.
 - c. 주 예수님, 당신의 기적의 보혈을 마시고, 당신의 기적의 살을 먹습니다.
 - d.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주 예수님의 길만을 원하나이다.
 - e. 성령님, 제가 ‘예스’하오니,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의탁하고 행하겠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 f. 하나님께서 내 앞에 죄나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주 예수님, 제 삶속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우상들을 가져가시고 치워주시옵소서.
 - g.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요구하신다. 그때 내가 마음으로부터 말씀드린다: “주님, 제 안에서와 저를 통해서 또한 제 주변에서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그의 얼굴이 나의 얼굴을 만지시기에 합당하게 된다.
- 3. 나는 성령의 음성인 레마에 자신을 의탁한다** – 땅을 위한 하늘의 관점과 레마가 이 땅을 이끌어 간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 4. 더 깊이 들어가기** – 당신의 손을 이마에 대고 나의 생각속에 주 예수님의 기적의 보혈을 뿌립니다 라고 말하라.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다섯번째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을 받으라
- 5. 당신의 마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 당신의 손을 가슴에 대고 똑같이 말한다: ‘나의 마음에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뿌립니다’. 의식적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들어간다. 그럴때에 당신은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를 받게 될 것이다.
- 6. 더 깊은 예배** – 바로 이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올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성령께서 듣기 원하시는 바를 듣기에 합당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찬송을 부르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위에 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원하시는대로 드린다. 이것은 4 단계에서 시작되어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악기나 마이크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반응하신다. 계속 더욱 깊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라.
- 7. 기적의 해결을 위해 더 깊이, 더 높이** – 변화가 필요할 때, 자아에서 벗어나와 회개하며 내 마음안으로 더 깊이, 하늘의 문이 나를 만나는 그곳으로 더 높이 가야한다. **그리고 말하라: “주 예수님, 제가 당신의 기적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나서 내가 필요한 기적을 위하여 내가 해결단계에 이를 때까지 깊이 들어간다. 거기에는 7 단계가 있다: 넷째 단계부터 완전한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기적이 실제화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먼저 당신은 더 깊이 들어가서 해결책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 그럴때에 당신이 승리하게 되는 그 다음단계로 가게 된다. 나 자신은 이전에 7 단계까지 가서 누리는 경험을 해보았고 지금도 하고 있다.

8. 천국의 관점으로만 가르치기 – 하늘로부터 가르칠 때, 당신은 당신이 가르치는 바로 그 기적을 하늘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레마**이다: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개인적으로 기적을 받기 시작하면서 천국의 존재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9. 네가지 중요한 봉헌 – 하늘의 관점으로 볼 때

- a. 성령님께 나의 죄와 우상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요청하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분께 드린다. 그런다음 주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와 우상들을 거둬가 주시기를 구하고, 나의 곤지를 사용하여 나의 죄들을 헌금 바구니안에 넣는다.
- b. 성령님께 내가 자유케 되어야 할 묶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왔다”의 말씀이 내안에서 활성화되게 해주시길 구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없더라도, 주 예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도록 나의 곤지를 바구니안에 넣는다. 이것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또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성령께서 원하시면 말씀하시는대로 나를 거기에 맞추어 움직이는 것이다.
- c. 성령께서 오늘, 내일 또 장래에 나에게 공급하실 것을 위하여 헌금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도록 구한다. 나는 단순히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주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있으면 드리도록 나에게 말씀하시라고 구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드리라고 말씀하시면, 그 분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그 액수를 위하여 나의 세번째 손가락을 넣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것들은 내버리면 결핍이 되므로 쥐버리지 않는다.
- d. 나에게 드리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다면, 나는 그저 드린다. 내가 말씀하시는 그 액수가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없으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모두 다 드리기 원하는 나의 갈망을 나타내는 표시로 나의 네번째 손가락을 다른 모든 손가락과 함께 헌금바구니에 넣으면서, 나의 전부를 취하여 달라고 그분께 청한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레마로부터 나타나는 실제와 지속적인 결과들

1. 주 너희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영혼과 온 사고와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필수조건이다.
그런 다음: 당신이 어디에서 가르치든지, 거기에 당신이 있게 된다. 하늘로부터 사는 것이든지 아니면 땅에서 존재하든지 둘 중 하나다.
2. 나의 마음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격적이 되셨고, 하나님의 알려지지 않는 것들지만 실제 현실인 관점으로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하여 나의 마음이 민감하게 되고 열려지게 되었다.
3. 땅에 하늘 나라가 여기에 오늘 임했고, 거기서 들어가는 오직 하나의 진짜 문은 땅에 임한 천국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이며, 당신이 그 안에 있을 때에는 더 이상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영적이며 살아 생동하는 것이다. 나는 이 의식을 가져야만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성령과 진리를 위해 부르짖고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한다.
4. 나는 하늘의 기적의 문을 인식한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기적의 보혈인데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이라 칭해지며, 이천년전에 이 땅을 걸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불려진다.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길을 통과해서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앞에 있을 수 있다: 무신론자들이나 회교도들이나 어떤 다른 종교인들과 크리스찬들도 다 마찬가지다. 오직 거룩하시고, 흠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보혈만이 이것을 성취하기에 합당하다.
5. 나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장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보혈안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6. 그리고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이 나의 과거의 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님께 듣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모든 죄들과 모든 우상들을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안에 맡기도록 제공해 놓으셨다. 그러면 모든 과거의 죄들과 우상의 것들까지 다 나에게서 치워졌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사라져 버렸다.
7.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께 그분이 당신의 삶안에 행하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구할 때, 성령께서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있지”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당신의 삶이 변하는 것을 목도하며 기적적인 변화 안에서 성령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앎하게 된다. 그러면 물리적인 기적들이 일어난다.
8. 날마다 당신이 회개하면 할수록, 과거에 하던 생각들을 포기하고, 오늘 떠오르는 부정된 생각들을 중단하며 상상속으로 들어가지 않을수록 당신의 삶이 더욱 달콤해지며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
9. 당신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때가, 이제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안에 걷기 시작하는 것이며 거기서 영원까지 가는 것이다.
10. 당신이 당신의 마음으로 하여금 무엇이나 모든 것에 대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 때 성령께서 당신에게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를 알도록 말씀하실 것이다. 성경 요한 복음 10 장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11. 당신은 당신앞에서 펼쳐지는 치유와 건짐, 보호, 공급, 변화등 이와같은 기적들을 목도하게 될 것이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로 이기는 삶을 산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당신의 마음속에 친밀한 것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12. 성경에 ‘생각을 사로잡는다’고 말한다, 바로 그것을 내가 항상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 우리의 사고를 예리하게 해주는 게임이 있는데, 당신의 생각을 날카롭게 하는 동안에

당신은 모든 생명을 가진 성령께 순복하는 것과 민감함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멀어진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내 형상으로 지었다’,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이 땅에 성령의 왕국 안에서 성령님께 순복함으로 이루어진다(마태복음 12:32 을 보라). 그러나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상황을 조종하려고 할 것이다. 바로

여기가 인간의 모든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다. 여기서 신학이 결길로 비껴나가고, 이성적

논리가 시작되며, 자신을 순복함으로 얻는 성령하나님께 대한 민감함을 놓치게 되는 곳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다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곧 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몇가지 열쇠들이다.

1.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요구하신다. (베드로전서 4:11)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음받은 자연적인 결과이며 우리만 홀로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2.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10)

3.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

저자의 묵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사시면서, 동산에서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고 선언하신 그 저주를 성취하셨다. 그리고 주 예수로서 육을 입으신 하나님은 생명을 낳게하시려고 오셨고 주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이제 영원무궁토록 모든 영광을 받게 되신 것이다.

4. 나는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왔다. (누가복음 4:18)

저자의 묵시: 주 예수님의 기적의 보혈은 주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30 에 말씀하신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미 자격 요건이 주어진 것이므로, 우리는 주께서 세워놓으신대로 그저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하늘나라안에서 행하는 삶’은 기적의 결과이며, 인간에 의한 행위나 생각이 아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거나(하나님의 결과),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것이거나이다.(인간의 결과) 당신은 안에 (하나님의 결과) 있든지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아니면 안에 없든지 (인간의 결과)이다. 주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 67 페이지 항목 23 을 읽어보라. ‘이것이 현실적인 길이며’ 지구의 분자들이 바뀌는 곳이다. 당신은 그 결과들과 기적의 현실을 주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렇게 살면서 가질 수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해답이 아닌 당신이 있는 그곳에 그냥 머무를(인간의 결과) 수도 있다.

5. 보혜사가 오기 위해서는 내가 떠나야만 한다. (요한복음 16:7)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안에 모든 법칙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자신도 그 법칙을 따르시기로 하시고 법을 만드셨다. “보혜사가 오시려면 나는 **반드시 떠나야만 한다**”. 자 이제, 보혜사는 모든 권능을 가지셨으며 지난 2000 년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다. 성령님은 우리안에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해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힘있게 해주시고,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며,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6.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보혜사와 성령님은 동일 인물이다. 마태복음 12:32 에 주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저자의 묵시: 성령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셨고 오늘날에나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각 개인들을 판단하시고 받으시는 모든 민감성을 갖고 계시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지 또 그분의 나라에 그분에 의하여 용납되는지 항상 판단하신다. 여기에서 지금 되어지기에, 우리는 미래를 기다릴 수 없다. 무엇이 거슬리는 것이든 아니든 그것은 그 주어진 시간에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시는 성령님의 판단에 달려있다. 그 사람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 예수님의 기적의 보혈과 성령님을 받아들였느냐 거부했느냐의 문제이다. 우리는 대부분 아무 것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과 훼방하는 것의 차이를 판단할 수 없다. 오직 성령님만이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7.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요한복음 14:12)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저자의 이해: 베드로는 주 예수님에 의하여 배에서 나오라고 명하여졌다. 그랬을때 그가 물위를 걸었고 물이 탄탄하게 변했다. 또 다시 오순절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등의 일을 하라고 명하셨다 (마태복음 10:8). 이제 오순절 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읽어보라. 그러나 제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사천명, 오천명을 먹이신 것과 마태복음 13 장에서 보는 ‘마치 천국은...’의 비유들과 같은 수준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계신 동안 걸으셨던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육단계 수준? 그리고 밤에는 주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칠단계 아니 그 넘어 수준으로 나아가셨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더 깊이, 더 높이 육단계 전체와 칠단계 수준까지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주께서, “너희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요한복음 14:12)고 말씀하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가운데 사는 이것은 우리가 매일 연습하는 삶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그리스도 제자도의 핵심들

1.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으라.** 참 제자는 주 예수님의 기적의 보혈을 마시고 받는다. 모든 것이 기적의 보혈안에 있다! 그제야 깨달음을 받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 이것을 시험해보라: 조용한 곳에 앉으라. 눈을 감고 주 예수님의 기적의 보혈을 마시며 주 예수님의 기적의 살을 먹도록 해보라.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6 장 53-58 에, 이 비밀한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더욱 더 그것을 시도해보도록 하라. 당신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고 변화를 계속해서 느낄 것이다.
2. **주 예수님의 기적의 보혈을 모든 일가운데서 선포하고, 갈망하며 사랑하라.** 그러면 주 예수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알지 못했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며 계속 일어날 것이다.
3. **당신은 그것을 하늘의 강력한 힘으로 취하라:** 이것은 주 예수께서 사신 모든 것과 어떤 것이라도 다 포함하며 그 분의 귀중한 기적의 보혈안에서 우리에게 유효하도록 해놓으셨다. 당신은 그저 주 예수님의 뜻안에서 발을 내딛고(물위로 걸어나가면 그 물이 단단한 반석이 된다) 성령께서 장악하시는 것을 보면 된다.
4. **주 예수님의 뜻과 주 예수의 길 뿐이다.** 성령님의 뜻과 길을 통하여 정복하며 모든 일에 주 예수께서 기적의 보혈을 주고 사신 모든 일에 승리를 취할 때,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대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주 예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과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소원하라.
5. **성령께서 당신의 스승이시며 당신을 모든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할 것이다.
6.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리라”**(거기에 우리 자신의 소리도 포함된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성령님의 아주 세미한 음성을 받으라.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의 음성을 알며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친밀함과 민감함과 성령님의 음성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당신을 열린 문들로 인도할 것이다.

7.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님은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외에 당신이 소유한 그리고 소유할 오직 한분 인격이시기 때문이다(기적의 보혈이 당신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당신을 위해 살아계시다).
8.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기적은 당신을 그분의 임재안으로 인도할 것이며 당신은 그곳에서 짐들이 벗겨지고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당신은 눈이 밝아지며 성령님의 민감함 안에서 중보하며, 주 예수님의 길들과 뜻을 대표하는 대사로서의 능력을 부여받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능을 받게 된다.
9.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요구하신다.** 내가 성령님께로부터 듣고 단순히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하고 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 민감함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적이 펼쳐진다.
10.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에 의해 **그리스도안에 살기를 갈망하며 자아에 대하여 죽는다.** 이제 당신을 자유케 해방시키시기 위해 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기적의 보혈을 받고 계속 받으라.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당신의 자신의 생명은 이제 없는 것이다. 당신은 이 땅에서 알았던 바대로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요 자매이냐?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이니라”.
11. **성령께서는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해 나를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 친밀함을 받으라.
12. **당신은 방언을 말함을 받을 것이다** –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당신이 순복하며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영을 따라 말한다. 당신이 꼭 통변을 받아야만 되는 것은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시거나 혹은 하늘의 관점으로부터 뭔가 이 세상가운데 존재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고 인간이 주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3. **예수께서 “내 집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1:30 – 그러므로 가볍다기보다 뭔가 무겁거나, 뭔가 쉽지 않고 어렵다면 그것은 주 예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안에서 하늘의 충만함과 당신이 연결되기 때문에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갈망하는 것은 가볍고 달콤하며 짐들이 가벼워지고 멍에들은 쉬어진다.
14. **승리하며 모든 일에 이기는 자가 되라.**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이 땅을 다시 취하였고 성령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며 이 땅에 임한 그분의 하늘 나라안으로 당신을 인도하신다.
15.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안에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회개하기를 멈추지 말라.**
16. **하나님께서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자와 통회하는 심령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정말 절박해지고 깨어져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주체념은 생각들을 더이상 갖지 않으면, 주 예수께서 정말 속히 우리를 대신하여 나타나주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자신을 드러내주신다.
17.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을 받으라 – 주 예수의 평강은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온다.** 당신의 마음에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있고 당신의 생각이 평안하게 된다. 그러면 평강의 능력이 주는 힘이 생긴다. 평강이 중보의 시작인 능력으로 변한다. 싸우지 말고, 그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늘의 지배권을 받으라.
18. **당신이 기도할 때 –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해 기도하고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들을 말하라.** 이것이 “중보기도”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이 땅의 하늘 나라를 위하여 기적들을 통해 다스림을 다시 취하는 것이다.
19. **당신이 사람의 일들을 보거나 그들의 소리나 견해를 듣지 않고자 할 때, 또한 자기 자신의 목소리나 견해를 보고 듣기를 거부할 때:** 단순히 멈추라, 그리하면 당신은 전보다 더욱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순수하고 합당하게 될 것이다.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 회개하고 “평강의 능력”을 받으라, 그리하면 당신은 다시 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으로 되돌아 오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며 ‘더 깊은 씻김’을 받게 되고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통해 변화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20.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위하여 만드신 사람의 마음에 응답하신다.** 주 예수는 당신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마음의 집이 되는 몸이 살아있도록 유지시키기 위하여 기적들을 제공하신다. 그러면 성령님은 성령께서 집삼고 사시는 그 집(당신 자신)을 돌보는 노예로 세상을 사용하신다. 그저 그 기적들을 받아들이라.
21.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마음에 ‘아니다’라고 하실 수 없으시다.** 당신이 성령의 뜻과 길들을 절박하게 원할 때, 성령님과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준다.
22. **공급 – 하나님은 언제나 공급하신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들을 위하여, 그것은 **“하늘의 것들”**이다.
23. 과거와 현재와 당신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해방되기를 마음에서 갈망하라.**
24. **산과 골짜기의 개념**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내가 합당하게 되면 나는 기적들가운데 산으로 올라가며 하늘 나라안에서의 삶이 내 앞에서 실체가 되고 기적들이 계속 펼쳐지게 된다. 또 나에게 때때로 아주 멀어진 것같이 느껴지고 어려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나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한다. 그리하면 내가 깨어지기 쉽고 민감하게 되는데 그 때가 골짜기의 시기임을 안다. 그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존재를 뚫고 내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면, 어떻게 더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지가 명백해지며 나는 내 앞에 있는 다음 단계의 더 높은 산으로 어떻게 올라갈지가 명백해진다. 그것은 기쁨이다.
25. 그러면 나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를 받고 또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받는다. **“그것은 하늘의 것이다”**
2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연장이 될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도들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게해 줄 수 있다. 당신이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 안에서 순수함과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보게 될 때 당신 안에서 순결함과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죄가 없게 하라” 또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릴때 당신안에 흐르는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당신안에 계시고 당신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당신은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며 당신은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관점으로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오늘날 이 땅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취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기적들이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당신을 위해 제공되는 완전한 기적은 성령께서 당신에게 요청하시는 모든 것을 위하여 오며 또한 성령께서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오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은 심지어 영혼들의 구원까지도 성령님께서 당신과 맺는 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영혼들은 성령님의 사역이지, 당신의 것이 아니다.

27. **성령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주도면밀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적격성과 갈망과 듣고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우리는 그 결과들을 보게 된다.

28. **아무도 다른 사람이 사람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이해하라.** 성령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이다. 오직 성령께서만 이 안내서를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밝혀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요한복음 14:26 과 요한일서 2:27) 설교대로 당신의 머리로 반응하는 삶으로 다시 이동한 것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제 1 장: 그리스도 제자도의 다른 단계들

당신이 7, 6, 5 단계를 읽을 때 이 안내서가 당신에게 낯설지만 그래도 이것이 당신의 삶에 원하는 것이고 그안으로 들어가기 원하기를 갈망한다면, 1 과 2 단계를 읽고, 3 단계에서 시작하여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하라. 4 단계에서는 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단계들은 당신이 주 예수님의 임재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의 결과다.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적어도 우리가 걸거나 있을 수 있는 이런 다른 영역들이 있다:

‘천국안에 있는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

땅

내가 한 번 경험했던 지옥 바깥에서의 결정하는 방

나는 천국과 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의 모든 칠단계들을 다 경험하도록 허락받았었다. 그것이 내가 이 천국의 개념에 대하여 아는 이유이다.

하늘과 땅에서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다른 단계들

칠단계 – 당신이 일부가 된다 – 전체가 다 하나님과 영광의 구름, 주 예수와 성령님에 관한 것이며 당신이 하늘 나라안에 있기에 더 이상 땅은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끔은 당신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도 있게 된다.

육단계 – 당신이 취해져서 들어간다 – 나는 즉각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주께서 당신에게 성령으로부터 말하도록 능력을 주시거나 혹은 당신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들이 일어나도록 말씀하신다. 당신이 성령께 순복하여 그분이 의미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바를 말할 때에 언제나 그것은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그렇게 되어진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다. 문자 그대로 이 땅에 하늘이 임한 것이다.

오단계 – 당신은 이 땅에 임한 하늘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행하도록 이미 받았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안다.

사단계 – 당신은 하늘의 삶을 갈망한다,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타인을 따라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에는 당신 자신의 음성도 포함이 된다. 당신이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안에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기적들을 받는다. 당신은 주 예수께 자신을 맞추어 가지만 그러나 없는 것을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는 능력은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응답하시고 기적들은 실체화된다.

삼단계 – 당신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선포하지만, 아직도 자신이 자신의 삶을 조종하고 종교의식과 인간의 이론에 묶여 산다. 당신은 세상에서 나오고 싶어하며 영적인 사람을 세워가려고 시도한다.

이단계 – 옳고 그름을 자각하지만,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진실된 삶이다.

일단계 – 당신은 이방인이며 외인이고, 그저 단순히 존재하거나 혹은 어떤 식대로 삶을 살아간다.

참고: 당신은 때에 따라 다른 단계들을 경험할 것이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단계들을 다르게 경험하게 된다. 잘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데 자신을 제한하거나 조금만 들어가고 마는 단계에 머무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에녹이 가졌던 관계처럼 당신을 변화시키실 높이와 깊이를 갖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제 2 장: 7 단계, 6 단계와 5 단계

7 단계: 그리스도의 제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인도함받아 이미 들어가보고 그 일부가 된 영적 단계이다 – 그것은 다 하나님과 영광의 구름과 주 예수와 성령에 관한 것이며 당신은 그저 거기에 있으면서 천국을 인식하고 완전히 그 안에 잠기게 된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안에 있는 천국의 완전한 주권속에 있는 것이며 땅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저자의 결과들: 나는 그곳에 두번 갔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주권적이며,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다. 이 땅에 알려지지 않은 땅에 임한 하늘 나라가 있는데 (6, 5, 4 단계), 그것이 당신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대개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에 있는 단계들에 대하여 알지도 못한 채 3 단계에 있으며 문제들과 합리화에 싸여 산다.

6 단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

이것은 당신이 인도함 받아 들어가는 영적단계이다 – 주 예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은 더욱 더 능력을 부여받는 단계다. 주 예수께서 나를 두번 그리로 데려 가셨을 때, 나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거나 말하든지 자동적으로 즉각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의식적으로 알아차렸다. 이 단계는 전혀 인간의 본성이 개입되는 단계가 아니며 온전히 다 하나님의 본질뿐이다.

저자의 결과들: 나는 그곳에 두번 가보았는데, 한번은 내가 생각하였거나 말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1. 6 단계가 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의 최고 높은 단계이다.
2. 땅에 임한 천국은 머물기 위하여 여기에 있다. 세레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알린 선두주자이다.
3.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11:14-15 에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세레요한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께서는 이것의 의미를 나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으나,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순결한 존재만이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해드리며 선포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이다.
4. 주 예수께서 요한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자이기때문에 그를 ‘세레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난 적이 없었느니라’ 말씀하셨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5. 삼년동안 아무도 주 예수를 만질 수 없었고 또 만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나라에 들어온 여인이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녀는 그의 왕국안에서 고침을 받았고 주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말씀하셨다.
6. 로마 군대에 있던 관원은 그 자신이 누군가의 지배하에 있었기때문에 통치제도를 이해했다. 그는 자기 지배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주 예수께 시사하면서 말했다: ‘당신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서 다스리오니 당신이 말씀하시는대로 실체화될 것입니다’.
7. 주 예수께서 오셔서 **주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산꼭대기에서 선포하셨다: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대로 이 땅에 하늘 나라를 이끌어 들이셨다. 주 예수께서 선포하셨고, 그 땅이 주 예수를 위하여 그 당시 주 예수의 나라안으로 들어와 발등상 되도록 하셨다.
8. 삼년동안 아무도 주 예수를 만질 수 있던 자가 없었다. 삼년 후에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위에 말씀하셨던 저주를 온전히 속량하시는 희생제물’로 드러진 주 예수의 몸을 위하여 따로 구별해 놓았던 기름을 붓기까지는. 겔세마네동산에서 ‘나는 내 생명을 값없이 바치노라. 이제 나의 창조물인 세상은 구약에서 내가 선포한대로 행해져야만 한다. 로마의 군병들은 주 예수를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시킨 종교지도자들의 하수인이었다. 그것은 종교지도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죄의 형태였다.
9. 성경은 땅을 위하여 제한된 말로 기록되었고 레마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하늘 나라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 땅과 땅위에서 다스린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주 예수를 선포하도록 태어났듯이 이 세상에 하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레마는 성경을 통하여 올 수 있다.
10. 주 예수께서 이 땅에 하늘 나라를 성취시키셨고 삼년동안 이 땅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임한 그분의 하늘 나라는 성령께서 누구든지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안과 밖에서 모든 친밀한 권리들을 갖고 행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지속되며, 또한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바대로 이 땅에 남은 자들을 변화시키시려는 성령의 소원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주 예수께서 다스리시는동안 내내 지속될 것이다.
11. 이것이 주 예수께서 **“너희가 백배나 받으며,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귀 있는 자와 좋은 땅인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백배, 육십배, 삼십배로 열매 맺을지어다”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12. 그것은 이 땅의 관점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역대하 7:14 말씀에: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땅의 길들과 땅의 관점들). 이것은 이 땅에서 주 예수님과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는 선두주자의 구절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5 단계: 성령의 주도권 안에서 거하기

이것은 당신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받는 영적 단계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안다. 이 단계가 참 그리스도인이 땅에 임한 천국에 이미 사는 곳이며 목표는: 땅에 임한 하늘 나라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이다.

결과: 이곳은 성령께서 나를 높히시고 나로하여금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나아가게 하기 위해 나의 존재를 준비시키시는 곳이다. 나의 아내는 우리가 합쳐지기전에 이 단계에서 살았으며, 이제 우리는 둘이 함께 있는 동안에도 5 단계에 있도록 노력하는데, 그렇게 된다.

저자로부터: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여정이다:

-나는 매일 한가지에 초점을 둔다: 성령의 임재속에 있는 것이다.

-내가 해야할 책임들을 하고 자유케 되어 나의 시간을 세상 것들이 아닌 성령께 드릴 수 있게 한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성령님의 결과들을 받기 위하여 성령의 소원에 민감하기로 의도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위탁드린다.

-그 날 무엇을 할지에 대하여 성령님의 지시를 기다린다.

-나는 하루종일 성령님의 임재가 이 전보다도 더 강력해지도록 성령의 임재를 기다린다.

-다시 매일 밤 취침전에, 성령의 소원하시는 결과들을 받기위한 의식적인 결심과 헌신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

-내가 잠자려고 할 때, 성령님께 나의 아내와 나와 함께 주무시고 밤새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원하고 요청드린다. 내가 잠이 깨면 성령님과 대화하며 다시 잠이 들 때까지 내 생각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한다.

-나는 전심으로 항상 더욱 깊이 더욱 높이 성령의 임재속에 들어가고자 매일 낮과 매일 밤 항상 몰두한다.

이 마음의 태도가 바뀐 것이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1. 이 땅이 조성되기도 전에 여기에 있던 주 예수의 해결책안에 머무는 것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2. 성령께서 나의 결정들을 하시게 함으로써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며, 그분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므로 이 땅에 하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다.
3. 당신이 5 단계에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반드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4. 당신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안다.
5. 내 마음 안에서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대로 일들을 생각하기를 갈망하며 그분께서 바라보시는대로 나도 보도록 나를 바꿔주시기를 허락하는 것이다.
6. 나는 모든 지각을 뛰어 넘는 평강을 가졌다.
7. 나에게는 결코 어떤 결정을 할지의 선택권이 없다; 나는 방향제시가 올 때까지 성령의 손안에서 기다린다.
8. 성령님의 회의에서 내려지고, 성령의 조언의 결과로부터 내리는 나의 결정은 항상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바라던 모습으로 나를 빚어준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행한 이 후에만 그것을 볼 수 있다.
9. 나는 내가 올바른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안다.
10. 내가 주 예수님의 마음안에 있는 그분의 뜻과 길들을 내 능력이 되는한 요청할 때, 대개의 경우 그것이 실체화된다.
11.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주 예수님의 마음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나를 주 예수의 인격적인 나라안으로 들어가도록 변화시키며,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다.
12. 성령께서 나를 코너로 몰으시고 나에게 그분이 내 마음안에 넣어주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라고 하실 때, 즉 그분이 내 마음과 입술로부터 듣기를 원하시는 것을 요청하라고 하실 때, 나는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부른다. 그럴때에 성령님의 뜻과 방법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바로 나에게 말하도록 하신 것들이 조성되며 실체화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13. 나는 하나님의 마음만을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앞, 뒤, 중간까지 다 알도록 요청드리고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그 누구도 나보다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작심한다. 이전에도 결코 누구라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누군가 내 옆에는 있을 수 있지만 내 앞서지는 못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취했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다. 주께서 나에게 “너는 다윗보다 더 큰 마음을 가졌구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께서 “너는 다윗은 못가졌던 그 보혈을 가졌기 때문이다”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제 3 장: 4 단계를 위한 당신의 적격성 확인하기, 성령께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땅에 임한 하늘 나라 안에서 살기’

마음에 자각 더하기 계시는 변화이다, 그리하면 당신의 눈은 뜨이고 기적들이 실체화되기 시작한다.

당신은 천국의 삶을 갈망한다, “나의 양은 내 음성을 알고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음성까지를 포함한다. 당신은 이 땅에 있으며, 이 땅에 임한 천국 안에서 사는 삶속으로 변화되어지며 기적들을 받는다. 당신은 자신을 주 예수께 맞추어 정렬하지만 아직은 존재속에 선포하는 능력은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응답하시고 기적들이 실체화된다.

이 단원에서는 당신을 성령께서 관여하고 계시는 당신의 마음에 소개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당신의 마음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의 지식으로 당신의 사고의 지식을 변화시켜 그분의 관점을 가지게 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신약시대의 제자들은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마음으로 이해하라. 당신과 나는 어떤가? 나는 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과 내 주변 상황들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와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주 예수의 마음을 경험하라!

1.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제자는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제자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박는다는 것을 마음을 열고 깊이 받아들일 때다. 당신의 손은 당신의 일들이며 당신의 발은 당신이 가는 방향이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 당신의 머리와 이마에 가시들이 박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즉 주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패배시키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데 사용하셨던 그 동일한 십자가에 자신을 못박는 것이다. 날마다 당신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 a.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은 사람들을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해방시킨다. 당신이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에 대한 눈이 뜨이고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이 자신위에 역사하길 소원할 때 당신은 자유케 된다.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이 땅에 임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당신의 마음으로 이해하라. 그리하면 당신은 주 예수님이 인간이 만든 세상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활동들로부터 사람을 자유케하려 오셨으며 그분이 모든 어두움을 멸하셨다는 것을 당신의 마음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그리고 감추어진 만나인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이 땅에 임한 천국의 임재를 먹으라. 당신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이 당신의 존재를 뚫고 들어가서 그 말씀이 당신에게 또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의도된 바대로 나타나게끔 반드시 정확하게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 b.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른 목적대로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지 마음으로 이해하라,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그 목적에 따라 순복하면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안에서 모든 것이 다 맞추어 질 것이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는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그것을 올바르게 해야겠다'고 말한다. 그것은 대개 육적이고 정신적인 것이다. 반면 여자는 '나는 주 예수님과 친밀함과 대화와 관계를 원해. 나는 완전하고 안정을 느끼길 원해'라고 말한다. 대개는 정서적인 면이나 현실적이다. 주 예수께서 남자를 땀흘려 땅을 갈게하시고 그 땅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로부터 해방하셨다. 또 주 예수께서 여자의 남편이 그녀의 소원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그녀에게 슬픔과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시는 저주로부터 여자를 해방하셨다. 남자와 여자는 둘다 오직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안에서와 성령께 친밀함가운데 드리는 순종으로만 이 저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저자의 계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셨고(여자를 다스리라고 안하심), 여자에게는 생명과 보양능력을 주시면서 남자가 하지 못했거나 할 수 없는 것들을 다스리도록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셨다(통제는 여성에게 배달된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안에 있는 생명인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있다).

- c. 다음, 당신의 방향과 공급과 보호와 치유를 위해 주 예수께 구하라.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도록 구하고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땅에 임한 주님의 하늘 나라안에 머물기를 구하라.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주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당신의 생각이 주 예수의 생각과 연결되기를 간청하라. 당신의 눈은 성령이 보시는대로 볼 것이며, 당신의 귀와 영적인 귀는 성령께서 들으시는 것들을 들을 것이고, 당신의 입은 성령께서 듣기 좋아하시는 것, 주님의 뜻을 말하여 주님의 뜻이 실존이 되게 하며 당신의 발은 당신을 앞서가시는 성령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당신의 손은 주 예수의 일들을 함으로써 당신의 손을 통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 d. 주 예수께서 그분의 기적의 보혈로 완전히 값을 다 지불하셨고 당신이 그분과 하나되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 e. 당신의 마음은 성령께서 비추시는 세례를 받아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하게 된다.
- f. 당신은 우리에게 이전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큰 차원으로 주어진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에 대한 계시적인 지식을 받게 될 것이다.
- g.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열린 하늘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서 삶과 죽음의 승리와 동시에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 h.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네안에, 네가 내안에 있다”를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전에 알지 못하던 위대한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 i. 당신은 정결함을 지키는 일에 승리하는 기적을 즉각적으로 받을 것이며 당신은 눈과 귀에 성령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들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의 몸에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민감해질 것이며, 당신과 성령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민해 질 것이다.
- j. 방언을 말함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하게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며 당신이 순복하고 완전히 맡기면 그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다. 성령께서 당신을 변화시키고 혹은 사람이 주도하지 않는 천국의 관점에서 이 세상가운데 무엇인가 존재하도록 성령이 말하시는 것이기때문에 꼭 통변을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다.
- k. 당신은 주 예수의 '기적의 해결 저울'에 대하여 인식하게 될 것이다. 당신쪽에 있는 저울에 있는 것들을 마음으로 요청하고 듣고 실제적으로 행하면, 당신이 그분쪽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주 예수께서 나머지 저쪽에 있는 저울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신다. 이것을 당신은 기적이라 부른다.
- l. 당신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상상을 무너뜨리기가 쉬어지며 당신은 성령께서 능력주시는대로 결과를 받기에 적격해진다. 당신은 계속 그리스도의 사고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성령님 뒤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 m. 그러면 당신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 이 땅안에 또 이 땅위에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간에 땅에 임한 천국안에 사는 자의 일부가 되어 권세를 취하며 중보하게 된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 n. 이것은 믿음이다. 당신은 항상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안으로 들어가 순복하기를 원하게 되며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싶은 깊은 갈망을 받게 된다. 주예수안에 패배란 없다.
- o. 하나님이 아닌 질병, 결핍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성령께서는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 곳이나 그것들은 주예수의 보혈안에 넣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성령의 방법들아래로 들어가야하며, 땅에 임한 하늘나라안에서 굴복되어지고 사라져버려야 한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을 받을 것이며, 승리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를 경험한다.
- p.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주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주예수와 성령은 태초에 계셨다. 그 분들이 모든 문제들과 또 문제가 되기 이전의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시다. 나의 노력은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안에서와 성령안에 있는 그 해답에 어떻게 내가 합당한 자가 될런지를 찾아내는 일이며, 그 해답을 어떻게 얻고 그 결과를 받을지를 알고,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그 결과들과 해답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다.

2. 주 예수님 나의 삶을 당신의 손에 의탁드리나이다

성령님, 당신의 뜻대로 내안에서 당신이 마음대로 하소서

- a. 당신께서 주예수그리스도를 기뻐하셨듯이 저를 기뻐하소서. 주예수께서 “나는 오직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행하노라”하신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만 한다.
- b. 성령님, 나를 향하신 당신의 소원과 당신을 향한 나의 갈망대로 성령님과의 완전한 친밀함속에서 제가 주예수의 연장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 c.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지 않았다 (‘내가 나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나를 대적하든지’ 우리가 선택한다), 선택은 거짓말이며 언제나 보응이 따른다. 사람들은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에서 행하거나 순복하지 않고, 불순종가운데서 아니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서 그들의 선택을 한다.** 그들은 합당치않거나, 성령의 음성이 주시는 자각 또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합당함과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도록 하는 위치를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받았고,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었다. 그러자 나는 땅에 임한 하늘 나라의 나타남들을 보고 받게 되었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 d. 우리 인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보혈안에 우리의 죄들을 가져가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제공할 것이나 첨부할 것이나 희생할 것이 없다.

3. 당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비취주시는 세례를 받으라.

먼저 당신의 마음으로 이해한 후에 당신의 머리로 이해하라.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성령이 조명하시는 세례를 받으라.

- a. 저자의 묵시: 당신은 땅에 임한 그의 확실한 하늘나라안에서 행하도록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마음을 받을 것이다.
- b. 저자의 묵시: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행위로 그분의 나라안에서만 지속적으로 걷는 한 그것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4. 지속적인 적격성을 경험하기 당신이 세상에 있는동안에, 지속적으로 천국으로부터 합당성을 부여받는다.

- a. 오늘 당신이 적격한가는 오직 주 예수님의 기적의 보혈안에만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이해하라.
- b. 당신이 들어갈 때마다 언제나 주 예수님의 보혈안에서 씻김을 받는 것을 마음으로 이해하라.
- c.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주 예수님의 기적의 보혈을 갈망함으로 인하여 당신은 적격성을 받았다. 당신이 주님과 맺는 친밀한 관계와 구원의 여정가운데로 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 길이라고 정해놓으셨다.
- d. 이것이 천국의 회전문이다: 갈망하고, 변화되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는 문이다. 그것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매순간 매시 하늘로부터 받도록 열려져 있다.
- e. 당신이 이 천국의 지배속에 더 들어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된다.
- f.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속에 더 길게 머물수록, 당신을 향해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
- g. 당신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가운데 있는동안 주 예수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중독적인 관계가 시작된다.
- h. 그러면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과 맺는 관계를 더욱 크게 갈망하는 중독에 더 깊이 빠지게 된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5. 비침을 받도록 위탁함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서 11:6).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 a. 바라는 것 – 우리가 하나님께 갖는 관계가 일방적일 때 그것은 전부 하나님께 관한 것이며, 소망이다.
- b. 히브리서 11:1 –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 c.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나 의미를 전달하실 때, 당신은 알게 되며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는 기다리면서 성령의 방법으로 그것을 실체화시키시는 것을 목도하는 것 뿐이다.
- d. 오직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만이 더 나은 완전한 희생이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역사하게 한다.
- e. 사망의 값은 오직 한 번만 지불될 수 있는데,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이 사망의 값을 단번에 영원히 지불하셨다.
- f. 나는 이제 합당하게 되었다;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이 나를 취하셔서 지금 이 땅에 임한 천국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나를 두셨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모든 것이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다. “네가 내안에 나는 네안에 있느니라”.
- g. 주예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말씀들에 주예수 자기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라고 하신다: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한다” 하시고 다시, “내 아버지께서 내안에 내가 아버지안에 계시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나의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신다.
- h. 성령님에게서 믿음을 받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구든지 성령께 나오는 자는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이미 알고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주예수의 말씀이다: “보혜사, 곧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 i. 주예수는 누구든지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시다.
- j. 성령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며,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경고해 주신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타인을 따르지 아니한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타인이 나에게 아무런 말도 안했는데 내가 어떻게 타인을 따르겠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내가 거론하지 않았는데 어찌 따르겠는가?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k. 두려움 없이 움직이라: 주 예수께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6. 주 예수께서 우리들 손에 들려주신 기적을 위한 도구들

주 예수님,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얻고,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당신의 결과들을 받습니까? 이것들이 그 해답이다:

- a. **받으라:**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항상 그 안에서 살으라.
- b. **회개하라:** 당신의 삶속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무엇인가 떼오를 때마다 회개하라. 회개는 특권이다.
- c. **들으라:** 성령의 음성이나 성령께서 암시하시는 것들.
- d. **순종하라:** 마음으로부터, 행위(들)가 따르도록 하라.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에 있으면서 **받으며**,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라.**

7. 믿음: 적격성, 관계, 실체화와 구원. 당신은 전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무 것도 못받을 수도 있다.

땅에 임한 하늘 나라에서 사는 동안 ‘성령님과의 관계와 적격성과 믿음과 구원과 책임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 a. 주 예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들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은 땅에 임한 하늘 나라를 보고, 듣고, 행하고, 이해하는데 익숙지 못했다. 마태복음 13:10 을 보라.
- b.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은 오직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만이 더 나은 희생제사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아무 것도 드릴 수 있는게 없다. 행위로나 수고나 제사등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피와 살의 완전한 희생에 그 어떤 것도 더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들이며 그가 받으시기 원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제사다.
- c. 믿음으로 에녹은 들림을 받아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 d. 사망은 오직 한번만 값을 치를 수 있는데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이 사망을 위하여 영원히 단번에 값을 치루셨다.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이 나를 땅에 임한 천국으로 데려가셨고 영원토록 있게 할 것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전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 이 증거는 주예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성경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생명외에는 자신은 어떤 생명도 없노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네가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있노라’ 하신다.

- e.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 예수가 계신 것과 주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알아야)만 한다.
 - f.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믿음이 세상을 정죄하였다.
 - g. 단순히 성령께 듣고 순종하면 이 육적인 세상의 비극들로부터 제외되며, 성령께서 우리를 사람의 울무에서 인도해 내신다.
 - h.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성령께 순종함을 통한 의가 우리는 천국의 후사들이 되게 하고 세상을 정죄한다. 나와 나의 온 집안이 나와 똑같은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기에 이 땅에서 하늘 나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나는 경건한 후대들을 양육하게 된다.
8. **하나님은 주권적이며 하나님안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 땅에 있는 하늘 나라는 해결책만이 있을 뿐이며, 물질과 연계된 문제들이나 시간이라는게 없다.

예: 내 손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나는 나의 다른 손을 아픈 손위에 얹고 말했다: “당신은 나의 치료자 이시며, 건지시는 분이시며, 나의 공급자, 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고 당신에게는 시간이란게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란 것이 없는 그분의 지배권안으로 들어갔기때문에, 통증이 사라졌다. 시간이란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바꿀만한 통증도, 결핍도, 변하는 시간도 없는 것이다. 이는 시간속에 있는 물질을 통제하는 것이 시간이란 것이 없는 땅에 임한 천국에는 없다는 것인데,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고 하신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치다.

9. **기적이 펼쳐지는 과정을 보라** 이 땅에서 어떻게 기적들이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이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변화된다. 당신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소원하시는 것과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성령께 전달되고 성령이 받으신다; 그리고 이 것이 땅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 a. 당신은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안에서 이기게 된다 – 태초부터 당신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포용할 때에 당신의 생각과 주변환경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 b.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안에 있는 당신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 성령님 뒤에서 기다리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는대로 반응하면 성령의 현시들이 일어나고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의 행보요 우리는 그안에 머문다.
- c. 어느날 아침 깨어나 당신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안에 있으며, 과거는 다 씻겨졌다는 것과 이 세상의 어려움이 이제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님을 알고 모든 지각을 초월한 평강가운데 걸으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때에 딱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 당신의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을 하며 당신이 걷고 있는 곳이 땅에 임한 천국이다.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저 ‘예’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실체화되고, 평강이 당신의 존재속에 항상 있으며 아무런 해가 당신의 본질속에 없다. 당신이 듣는 것은 하늘에 속한 본질이며 다른 모든 것은 당신에 의해 날아가고 그 어떤 부분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당신은 24 시간 계속 가동된다. 아무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저 하늘과의 관계뿐이다.
- d. 믿음, 나타나는 능력: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고쳤고, 당신을 건졌고, 당신의 믿음이 당신에게 공급했고,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보호했다. 이 모든 믿음의 나타남들은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해 성령님과 관계에서 오며 당신은 성령의 지시를 듣는다. 당신은 그 두가지를 다 받아서 실제로 시행하는 담대함을 갖는다. 그것이 당신의 믿음이다.

10. 당신의 삶에 기적들을 받기 기적안으로 들어가기

- a. 받으라 – 성령의 마음과 다른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 b. 건져내심 – 주예수께서 “내가 어두움을 패배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하셨다 – 그저 계속해서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계속 붙잡고 상상, 귀신들, 천사들이나 혹은 종말론에 틈을 내주지 말라. 다만 당신의 이마와 몸과 생각과 당신을 괴롭히는 그 어떤 다른 것들에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바르라. 매일마다 당신이 자유케되는 것을 볼 것이다. 성령께 듣고 하라고 말씀하시거나 시사하시는 것을 더욱 더 순종하라. 단순히 당신이 아는 작은 발걸음부터 실행하라. **자유케 된 상태를 누리라.**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 c. 치유 – 당신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성령으로 실제 하였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고통에서 떠나고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로 당신을 데리고 더욱 깊이 더 높이, 당신의 통증이 멈출 때까지 더 깊이 또 더 높이, 더욱 더 깊이 더욱 더 높이 들어간다.
- d. 공급 – 주예수께서 “나는 너를 자유케 하려고 왔노라” 말씀하셨다. 당신이 자신을 거기에 맞추며 자신의 능력이 닿는대로 최선을 다해 자유케 되려고 할 때, 당신은 하늘 나라안에 있는 기적의 공급을 받을 수 있게 갖춰진다. 두번째단계: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뜻과 길로 가게해달라고 요청하라. 세번째: 성령께서 당신에게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도록 간구하며 그것을 수용하고 온 존재를 다해 그것을 행하라. 네번째: 이것이 당신에게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에 있는 기적들을 더욱 더 받게 하는 시작이다.
- e. 저자의 묵시: 주예수께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선포이다. 또 다시 주예수께서는 “나는 오직 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하노라”고 선포하셨다. 그렇다면 주예수께서 행하셨고 받으셨던 그대로 나도 멈추고 행하고 받을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보다 더 적게 생각하고, 덜 행하며, 더 조금 받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의식속에서가 아니면 나의 무의식속에서라도 나는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 f. 이것이 소위 내가 기도라고 부르는 길이다 (나는 내가 배운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나 나나 그 방식으로서는 너무 응답을 못받는걸 보아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힘당한지 그리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한다. 나는 성령께서 나를 비취주실 때 회개하며 성령님과 대화함으로 처리함으로 이 일을 한다. 성령님은 이미 내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나는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성령님의 관점과 원하시는 바를 계속 받는다. 그리고나서 성령의 관점을 입으로 말하고 그 일이 일어나며 실체화되는 것을 바라본다. 바로 주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참 기도이며 그것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것이 내가 경험한 바요 당신이 5 단계와 6 단계의 땅에 임한 천국에 있을 때 더욱 분명하고 현실적이 된다.

11. 변화는 하늘 나라의 현실이다. 땅에 있는동안, 하늘로부터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 a. 내가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더욱 간절히 사모할수록, 땅에 임한 하늘 나라를 더욱 보고, 이해하며 받도록 변화된다.
- b. 나는 성령의 음성과 시사하시는 바를 갈망하며 듣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전달되는 바를 행한다.

12. 땅에 임한 천국은 위조되거나 복사되거나 희석될 수 없다

이것을 이해하고 당신의 마음부터 먼저 조명을 받은 후에, 당신의 생각에 비침을 얻도록 하라.

- a. 땅에 임한 하늘나라의 현실이 낮은 차원의 가르침이나 이론으로 위조되거나, 복사되거나, 희석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당신의 마음에, 그다음 당신의 사고에 이해되고 조명되게 하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늘날 평가하시는 분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모든 영적인 것들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땅에 임한 천국의 현실은 긍정적인 사고로부터 오거나, 경제 이론에서도 아니고 선악간의 모든 이론을 사랑하는데서 오는 것도 아니요, 지도력, 교육적, 신학연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3. 적격성을 부여받은 후에 저야할 책임의 단계들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에서 행하며 지속적으로 머물라.

- a.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 취하여내사 빛에게 주신다. 이것은 영감으로 된 기적이지 인간이 주도한 것이 아니다.
- b. 나는 매일 지속적으로 “죽기위해 살기”보다, 계속 “살기위해 죽어야”만 한다.
- c. 나의 길은 너의 길이 아니고, 너의 방식들이 나의 방식들이 아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이 아니고 너희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다.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 d. 나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방식대로 그의 지배를 받기를 사모해야할 필요가 있다.
- e. 내가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사모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더 변화된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 f. 나는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 안에서 내가 들어갈 때마다 항상 씻김을 받는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이해한다.
- g. 나는 내 마음에서부터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갈망함으로 인해 적격성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걸음을 걷는 과정속에 들어가는 길을 그렇게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 h. 저자의 묵시: 성령님께서 결정하시고 취하시고 주신다; 내가 할 수있는 것이라고는 듣기를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갈망하고 성령님의 결과들을 보기를 바라는 것이다.
- i. 저자의 묵시: 당신은 매일마다 ‘살기위해 죽는 것’을 계속해야만 하며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땅에 임한 기적의 하늘 나라로부터 생명을 받는다.
- j.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너희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 저자의 묵시: 무엇이든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은 주예수의 기적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순종을 원하시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다.
- k. 저자의 묵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 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와 천국에서의 성령님의 다스림을 갈망하라. 그리고 당신이 공급받고 승리하며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위하여 당신의 삶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성령께 여쭙라.
- l. 당신이 마음속에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더욱 갈망하면 할수록, 당신은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된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제 4 장: ‘천국’안에서와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에 사는’ 경험의 간증들

여기에 우리의 간증들을 나눔으로써 당신들이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

에 사는 것이 실제이며 성령께서 진리를 당신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다.

나의 경험 간증들과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이해하였는가를 말한다.

1. 나는 너무나 절박해져서 “왜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없습니까?”라고 말했다. 오래전 내가 20 대였을 때 내가 그랬었던, 자신들을 교회라고 부르지만 속고있는 거만하고 아주 잘 계획된 사업체에서 소위 선교사들이라는 분들 몇이 (나는 그들을 M 교회라고 칭한다) 나에게 왔다. 나는 너무나 절박했기때문에 “왜 그것이 진짜가 될 수 없습니까?”라고 말했다. 무엇인가가 내속에 들어왔고 그순간부터 내 삶은 아무 것도 얻는 것 없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했다. 20 년후에 나는 매주마다 성령이 활발히 역사하시는 다섯개의 다른 교회에 갔다. 하루는 교회 모임에 갔다가 집에 왔다. 내가 문고리에 내 손을 얹고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내가 그 하늘에 있었고 나 자신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나는 새까만 뱀이 내 머리위에 꼬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았고 바로 그것이 뱀이라는걸 알아볼 수 없게 까만 플라스틱 모자로 변했는데, 누가봐도 그것은 멀쩡한 야구모자였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 아래로 손이 나와서 모자같이 보이는 뱀을 내 머리에서 찢어내는 것을 보았다. 그다음 나는 내 몸안으로 다시 들어와 “그건 거짓말이야”라고 세번을 소리치자 내 머리는 완전히 자유케 되었고, 까맣게 희색이 되었는데 회색지대는 없었다. 나는 완전히 자유했다. 내 삶에 생명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간증에서 보겠지만 더욱 풍성하게 생명이 역사했다.

나의 설명: 속이 빈 사람은 결핍이 있는 다른 속 빈 사람으로 자신을 채울 수 없다. 결핍을 가진 속이 빈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때부터 원래 당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남은 것을 당신으로부터 취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다 해방될 수 있으며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기적의 보혈이 더 역사할수록, 오직 그리스도의 뜻과 방식들안에서 우리를 위한 기적적인 공급을 더욱 경험하게 된다.

2. 내가 처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교회에 갔을 때 나는 영적으로 침례를 받았다

어떤 한 여인이 강대상에서 말했다: “누구든지 방언을 말하기 원하면 성령이 오심을 받으세요”. 나는 뒷 줄에 앉아 있었는데 성령께서 “나가거라 아니면 못받는다”고 말씀하셨다. 그가 나에게 내 왼쪽으로 까만걸 보여주시며 “네가 거기서 가고 있고 너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순간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생각했지만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것은 아무 것도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창피를 무릅쓰고 앞으로 나갔다. 세 여자분들이 나의 머리에 손을 얹었고 나는 눈을 감았는데 나의 가슴에서 연기가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연기가 다시 들어올려고 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께 부딪쳐 튕겨나가 사라졌다. 그러자 여인들은 다음 사람에게로 갔는데 나는 그림을 보았다. 나는 내가 본 것에 대하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여인들이 방금 내가 본 것들을 말로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다음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다. 그 날 이후로부터 나는 자유해졌고 오늘날까지도 자유하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3. 나는 성경을 내 마음으로 받았다. 나는 주일 교회 모임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성령께서 “내가 네 마음속에 성경을 넣어 놓았다” 고 말씀하셨다. 그 날로부터 계속 성령께서 나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구절들을 보이시고 그 말씀에 대한 계시를 주신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에 대하여 말할 때 나는 성령께서 일전에 나에게 그 구절들을 계시해 주셨음을 안다.

4. 하나님의 시간: 월요일 새벽 두시에 나는 잠에서 깨었다. 나는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하면서 ‘어둠이 내가 잠자는 걸 원치 않는군’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잠이 들었다. 그 다음 이틀동안 똑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한 밤중에 깨어나 성경을 읽으며 어두움이 내가 잠자는 것을 원치 않는 것에 대응한 것이다. 그리고 목요일에 다시 새벽 2 시에 깬데, 이번에는 성령께서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여기 있지 않다. 이것이 나의 시간이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성령님을 포용했고 나는 다시 잠에 빠졌다.

나의 설명: 누군가 땅에 임한 하늘 나라에 부름받아 들어갔으면, 거기에는 오직 성령께서 그 사람과 대응하시며 시간을 통솔하신다. 나는 처음 삼일에는 너무 무지했던 것이다.

5. 나는 내가 급류에 휩쓸려 강 밑바닥으로 미끄러지는 꿈을 꾸었다. 나는 헤엄치면서 물흐름을 따라 가는 사람을 보았는데 나도 그 뒤를 따라 헤엄치기 시작하다가 꿈을 깬다. 이틀후에 내가 “주님, 그 꿈이 뭐에 대한 것이었나요?” 하고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니 너는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셨다.

나의 묵시: 그것은 아주 정확했고 나의 이해가 분명했다. 나는 언제나 주예수의 뒤를 따를 것이며 항상 주 예수님께 아주 아주 가까이 붙어있을 것이다.

6. 나는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았고, 무엇인가 이것보다 더 있을텐데 하였다: 나는 삶이 피곤한 상태에서 주일 저녁에 교회에 갔다. 강대상 앞에서 계시던 분이 기도를 원하는 사람은 나오라고 했다. 나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아야지만 되. 그것 없이는 못살겠다’ 생각하고 앞으로 나갔다. 그 분은 그저 “주님 더요”라고 말했을 뿐인데, 뭔가 내 무릎뒤 오금을 치는 것 같았고 나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웃기 시작했고 영적으로 완전히 취했다. 나는 기거나 걸을 수도 없었다. 하나님의 영이셨고, 그렇게 두시간동안 계속됐다. 그리고나서 **나는 자유해져서 더 이상 세상 근심이 없어졌다. 나는 세상과 나로부터 건져내진 것이다.** 나의 설명: 내가 집에 돌아갈 때는 자유자였다. 나의 모든 과거는 다 내 어깨에서 벗겨졌고 나는 나 자신이 좋았다.

7. 성령께 부름받음: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나와 갑자기 내려다 보니 내가 바닥에서 약 18 인치가량 공중에 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의 가슴위에 무겁게 임했다. 마치 1000 파운드가량 되는 것같이 느껴졌다. 내 가슴이 안으로 눌러 들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러다가 내 갈비뼈가 부러지리라는 걸 알았다. 나는 울기 시작했다. 나는 죽은 자임을 알았고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일 수 밖에 없음을 알고 말씀드렸다: “왜요? 하나님”. 그러자 그분께서 “나는 너를 목사로 불렀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니요 주님, 저는 아무 것도 모르자나요” 하니, 그분이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나에게 “일어나 토론토로 가거라”. (그 때 거기서는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나의 설명: 누군가 기적들이 실제라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부르심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들의 삶가운데 이것을 알기위해 기적들을 이미 경험했어야만 한다. 성령께서 누군가를 영적인 역사가운데로 부르실 때, 성령님께서로부터 그것이 주어져야 하며, 사람으로부터 올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들을 경험하도록 부름받았다.

8. 결혼하다: 주께서 나에게 위의 것을 말씀하시고 또 토론토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날 아침에 나는 나 자신이 “나는 결혼할 준비가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실 나는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나는 그녀가 예쁘고 작고 지적이고 자녀를 낳을만큼 젊기를 바라고, 나만큼 아니면 나보다 더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저는 그녀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토론토에서 부흥회에 갔고 내가 그 건물 한쪽 옆에 앉았을 때, 홀란드에서 온 자매 하나가 나에게 말을 건넸다. 오늘날 나의 아내가 된 마그릿트는 건물 뒷층 맞은 편쪽에 있었고 자기 친구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녀에게 “너의 친구가 네 남편감하고 얘기하고 있다” 고 말씀하셨다. 얼마후에 그녀가 우리에게로 왔고 15 초안에 그녀가 다섯마디도 하기 전에 그녀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9. 나는 집회가 있는 한 교회에 갔는데, 주 강사가 호주에서 오신 분이였다. 아침 예배때 강사님이 앞쪽으로 오시더니 돌아보시다가 자리에 앉았다. 그날 밤 다른 분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했다. 성령께서 아침 모임때 그 첫 강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서, 그는 순종했고 점심 때 호주로 날라 갔다. 이 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면에 멘토가 되었다. 만일 그가 16 시간을 집회에서 강의하려고 날아왔다가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16 시간을 비행기타고 집에 갈 수 있다면,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만큼 나도 자신을 포기할 수 있었다.

나의 이해: 우리는 언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듣고 정해진 때에 단순히 순종해야 하는지를 마음으로 알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마음이다.

10. 내가 처음으로 천국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은, 나는 워싱턴주의 매리스빌에 있는 하나님의 성회 교회의 맨 뒷줄에 있었을 때다. 그 교회에서 청소년들 부흥회가 있었고, 아이들이 아무 광고도 안했는데 캐나다와 아이다호, 오레곤, 캘리포니아주로부터 매일 밤 오고 있었다. 어느날 저녁 우리는 거룩, 거룩, 거룩의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나는 주님께 “나는 천사들이 당신을 찬양하는 것처럼 당신을 찬양하게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나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영광의 구름에서 위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영광의 구름같아 보였다. 그곳은 명칭이 없었지만 그러나 나는 인간이 영원을 통해 알아차릴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명확한 정의를 가진 곳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나는 투명한 사람들이 아주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그들의 팔과 손을 높이 번쩍 들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이지여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나는 갑자기 생각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시도했는데 나는 투명함과 순결함으로 인해 마치 죽을 것 같이 느껴졌다. 나는 그렇지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제발 나를 도로 데려가 주세요” 하고 간청했다. 그러자 나는 다시 하나님의 성회 교회 뒷자리로 돌아와 앉아 있었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나의 설명: 나는 주님의 임재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것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었다. 주께서는 주님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 나의 마음에 응답하셨다. 그 영광의 구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고 나의 앞에 영광의 구름의 형태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었다. 나는 천국의 단순성을 전부 의식했다. 오늘 나는 내가 들어갈 것과 행할 것을 미리 맛보도록 제공받은 것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안에는 제한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식안에 존재함’이 있을 뿐이다. 지금 내가 아는 것은 죽는 부분은 마음의 의식적인 변화이며 그럴 때에 지금과 또 내 평생 사는 동안 생각도 땅에 임한 천국안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1. 내가 천국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두번째 경우: 나는 나의 두번째 침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하나님, 저는 당신께 말하기가 피곤합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말씀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큰 침실로 가서 욕조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러자 나는 내 앞에 오십피트앞쪽에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하얀 분이 앉아 계셨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내가 그 분께 가까이 걸어가서 뒤를 돌아서 그분께서 바라보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분이 그의 팔로 나를 감싸 앉으셨다. 그리고 나는 그가 아시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면 모두 다 알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모든 앎이 다 있었기에 아무것도 알 것이 없었다. 그러자 아주 서서히 움직이는 동작으로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또 다른 보좌와 다른 분이 계심을 보았다. 그분은 주 예수님이셨다. 그리고 나는 욕조로 다시 돌아왔다. **나의 설명:** 나의 마음이 그것을 강권적으로 취했다. 그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셨다. 그의 팔이 나를 그분 자신의 단순성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으로 능력을 주셨고,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신 그분의 의식의 단순성을 나에게 이해하게 하셨다.

12. 성령께서 나에게 미국의 지난 네 대통령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클린턴의 당선후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백악관에 광대를 두었다”.

나의 이해: 당선자의 성품이 그를 뽑은 사람들의 성품을 대표한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렇다.

2000 년 대통령 - 부쉬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발표되기 이주전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백악관을 장악했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부쉬에게도 말했다”. **나의 이해:** 911 때 비행기가 백악관을 치려고 시도했을 때 그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주시하라.

2008 년 대통령선거전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일단 들여놓고 나중에 나가도록 하는 것보다, 그를 아예 들이지 않는 쪽이 더 쉽다”. **나의 이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짓말을 원하면 나는 너희에게 거짓말을 줄 것이다”. 나라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포용하기를 원치 않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에 대한 영향이 있다.

2016 년 유월 3 일주간에 나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하여 막 생각하고 있던 차였는데,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나의 사람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13. 기적의 공급에 대한 모든 것, 이것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다.

주 예수께서 나에게 16,000 평방피트되는 공공건물이 비어있는데 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충분히 크지가 않다고 하셨다. 나는 돈이 없었지만 계약을 했고 “90 일내에 다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예정에 없던 한 계약이 유럽으로부터 들어왔고, 나는 그것을 완수하여 90 일내에 건물비를 다 치렀다. 그리고나서 성령께서 큰 K 마트건물을 사서 예배 센터를 만들어서 “Open Heaven Worship Center” 열린 하늘 예배 센터라고 칭하라고 말씀하셨고, 뒷쪽은 창고로 만들라고 하셨다. 주께서 일들을 통해 길을 내셨고 우리는 그 돈을 다 지불했다. 그리고 나는 새차를 구했다. 나는 새차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성령께서 “내년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고 나는 기다렸다. 기적이 일어났고 크라이슬러 300C Hemi 완전 새차를 구입했는데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돈은 단돈 500 불이었다. 나는 집으로 가는 중에 집에 울타리를 쳐서 아무도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몰고다니는 것을 모르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는데 성령께서 “너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가 너에게 어떻게 그 차를 구입했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들을 그들도 나에게 와서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다. 이것은 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마련해 놓으신 것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이다.

성령께서 나와 내 아내를 연합시키시기 전에 나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다섯 교회를 가고 있었다. 그런데 성령께서 95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가 내가 다닐 곳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교회는 거의 매일 집회나 모임이 있었고 나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일년 반동안 운전하고 다녔다. 내 차에 연료미터가 고장이 났고 나는 직업도 돈도 없었지만, 나는 별로 신경을 안썼다. 나는 내가 가진 만큼 오전짜리 십전짜리등으로 기름을 넣으며 다녔다. 나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하여 생각을 안했었는데 나의 아내가 몇 년전에 그것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결코 연료가 떨어진 적이 없었다. **나의 이해:** 당신이 적격하면, 당신은 성령께 들으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행하는 삶을 수용한다. 당신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계를 포용함에 따라 기적들이 제공됨으로 당신은 계속 순종하게 되며 말씀하신 바를 마치게 하신다.

14. 나의 어머니가 천국에서 내려다 보시다 – 나의 아내와 내가 우리 자쿠지탕에(마사지탕) 앉아 있을 때였다. 내가 올려다 보니 하늘이 열리고 나의 어머니께서 몸을 숙여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나의 어머니가 영가운데에 “내가 보기에 참 좋구나” 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몸을 펴시니 하늘이 닫혔다. **나의 이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딸과 아들을 연합시키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나의 개인적인 느낌: 나의 어머니는 나와 내 아내가 결혼하기 훨씬 이전에 돌아가셨는데 나의 어머니께서 나의 아내를 보실 수 있던 것이 나에게 큰 특권이였다.

15. 이 땅에 임한 천국에서 살아가기

2015 년 1 월 – 나의 아내와 나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부흥회에 가고 있었다. 우리가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운전하고 가는데 비가 억수로 내렸다. 우리가 지나가는데 한 트럭이 중심을 잃고 오른 쪽 차선에서 왼쪽 차선으로 다섯 차선을 넘어서 우리 차를 제일 먼저 치받게 생겼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었고 멈추었는데 그 차가 우리를 비껴갔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우리는 계속 갔지만 우리 뒤쪽으로 충돌로 차들이 몰려 엉망이었다. 우리가 캐나다에 들어갔을 때 세관에서 나의 아내를 따로 부르더니 짐을 수색했다. 나의 아내가 실수로 스테이크 나이프를 기내가방안에다 넣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주목하지 못했다. 스캔하는 곳을 통과할 때도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고 기내에 탑승할 때까지도 못봤다. 또 우리가 세관을 통과한 후에도 기내가방을 그들이 조사했는데도 못보고 지나쳤다. 우리가 토론토에서 돌아올 때 기체가 흔들렸다. 나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승무원이 “당신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 앉으세요” 라고 말했는데, 두 사람이 더 일어나자 그녀는 “앉으십시오” 말했지만 그들은 화장실로 갔고 네 사람이 더 일어나자 또 다시 “앉으세요” 말했으나 한 여자가 “나는 갑니다”라고 말하며 모두 갔다. 흔들리던 것이 멈췄고 승무원이 탑승자를 앉은 쪽으로 왔다. 나에게서 세자리 떨어진 곳에서 그녀가 발부리에 채여 그녀의 얼굴이 내 신발앞쪽으로 넘어져서 그녀는 내 얼굴을 올려다 봤다. 우리가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일등석이 아닌데도 우리 가방이 제일 먼저 나왔다. 우리가 바깥 커브로 나가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버스가 와서 서면서 “나는 여기서 서면 안되니 빨리 타세요”라고 버스기사가 말하면서 우리를 우리 차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나의 이해:** 당신이 합당하고 땅에 임한 하늘 나라 안에서 살면 당신은 정확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행하거나 그분이 당신에게 이끄시는대로 행할 때, 그 어떤 영적인 것이나 지상에 있는 것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나 이끄시는 것을 당신이 완수하는 것을 저지시킬 수 없다. 시도하는 것이 성령의 결과들아래에 놓이게 된다.

16. 마이클 잭슨

그가 죽었다고 텔레비에서 방영될 때 내가 주님께 여쭙었다: “마이클 잭슨은 어때요” 그러자 성령께서 마이클 잭슨 누구?”, 그래서 나는 거기서 멈췄다. 그 다음날 나는 우리 수영장에 나가 있었는데 바닥에 시멘트 조각이 따로 떨어져 있었다. 나는 수영장을 덮개로 덮어 놓았었기에 몇 피트정도만 열어 옮겨놓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내가 올라오려고 하니 커버밧에 갇혀져 있었다. 이 땅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는데 성령께서 “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그렇게 하며 수영을 해서 올라왔다. 내가 수영장 옆에 앉았을 때 주께서 나에게 마이클 잭슨이 내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두려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마이클에 대하여 여쭙어보니 성령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영원토록 후회하며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것에 대하여 더이상의 계시를 결코 받지 않았다. **나의 이해:** 맨처음에 나는 마이클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으면서(잘됐다) 그의 청중을 위해 영원함(예수님께 오기를)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중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마이클을 공연하는 중에 청중들에게 마음을 주 예수께 드리도록 중보하도록 부르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청중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몰리도록 공연을 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이해나 계시는 무엇입니까?** 목사나 복음 전도자나 연기자들은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지침을 주시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17.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부터 해방되기 – 성령께서 “너는 자유케 되기위해 일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공급한다”고 말씀하셨다. **나의 설명:** 내가 갇아야 할 것들이 늘지 않도록 애쓰고,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으려하고, 내가 해야 할 의무들을 다 하며 그보다 더 책임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나를 그것들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기적들을 일으켜 주신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주 예수께서 2000 년 전에 시작하셨고 “내가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신대로 그의 나라안에서 그의 뜻대로 나에게 기적의 공급을 하실 것이다.

18. 고통이나 불편함들

나는 고통이나 불편함이 있을 때, 그저 내 마음을 열고 ‘아픔니다’하고 부르짖는다. 가능하면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그분의 임재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 예수님, 당신의 기적의 보혈을”이라고 말하고 솔직해지려 한다.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아무 것도 없다면 나는 합당해 지는 것이다. 나는 해결책이 있는 땅에 임한 하늘나라안으로 더 깊이 더 높이 들어간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해결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듣는데 그 때마다 아픔이 항상 모두 사라져버린다. 때로는 그것이 다시 오는데, 그것은 나에게 다시 그렇게 하면서 그전보다 더 깊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기회를 준다. 이것은 실질적인 믿음을 세우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다. **나의 설명:** 나의 마음이 부르짖을 때, 땅에 임한 천국이 나의 영혼으로 물밀듯이 밀려오고 모든 통증은 나를 떠난다. 천국이 한참동안 나와 함께 계속되며,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 결과를 받는다.

19. 2015 년 12 월 6 일 아픔과 불편함이 사라짐

나의 무릎이 아파서, 나는 내 손을 그위에 얹고 그 통증에 대하여 주 예수께 정직해지려고 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열어 주 예수께 “나를 사랑해주셔요”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주님 저는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는지 몰라요”라고 말씀드리니, 성령께서 “**너의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고 넌지시 지시하셨다. 그래서 내가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 당신께서 저로하여금 온 맘다해 당신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당신과 당신의 길, 당신의 뜻을 포용하도록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다. 모든 통증이 다 사라졌고 다시는 아프지 않았다. 나는 내가 다시 땅에 임한 천국에 들어갔음을 알았고 이번에도 그렇게 계속 그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설명:** 내 마음이 외칠 때, 땅에 임한 천국이 나의 영혼에 물밀듯이 밀려오고 모든 아픔이 나를 떠나고 천국이 얼마동안 나와 함께 지속되며, 성령께서 그의 뜻과 길 가운데 그의 나라를 이루신다. 주 예수께서 이천년전에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고 선포하신 그대로 말이다.

20. 레마 학교 (레마 “적용” 학교)

지난 칠월에 성령께서 나에게 “나는 네가 레마 학교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작년동안 나에게 성령께서 지상에서 사는동안 땅에 임한 천국안에 있는 천국의 통찰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오셨다. 주 예수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거저 주시는 깨끗함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적의 지식과 지혜와 기적의 공급이 나의 마음의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외침을 보고 들으시는가운데 친밀함속에서 주어진다. **나의 설명:** 내가 주 예수님과 그의 뜻과 방법들앞에서 옳으면, 나는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도 내 마음으로 듣고 갈망한다. 나는 나 스스로는 제거할 수 없는 아픔과 다른 것들로부터 보호와 공급과 건져냄을 받는 것을 목도한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만다.

21. 2015 년 7 월 수요일 아침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다

“나는 네가 너의 시간을 레마 학교를 완성시키고, 웹사이트 만들고 예배 센터를 완공시키는데 쓰기 원한다” 하셨다. 그래서 내가 혼자말로 주께서 세우시라고 하기위해 직장을 나와야 하겠다고 말하면서 성령께, “제가 직장을 그만두겠습니다만 제가 회사를 바라보지 않고 시간을 회사에 빼앗기지 않도록 당신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제 은행구좌에 정확한 액수를 넣어주시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다. 그주 금요일에 매입 청구가 들어왔고, 다음 월요일 또 화요일에도 다른 매입청구가 또 들어왔다. 주님께 구한 돈이 은행구좌로 들어왔고 모든 고지서들을 다 갚았고 전에도 그랬듯이 아직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지시하시는 바를 순종하기 위하여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있다. **나의 이해:** 나는 성령께서 나에게 알리시는 것을 알며 내가 성령께 말씀드리는 바를 안다. 또 ‘내가 성도들을 구비시킨다’고 기록된 것도 안다. 이 구절에 대한 나의 깨달음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은 죽어야만 하고, 그래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모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맡기므로 성령께서 그분의 목적대로 세계를 당신의 발등상으로 사용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에 사는 것이다.

22. 2014 년 7 월 24 일 새벽 5:30 분에 꿈을 꾸었다

나는 보잉으로부터 30 개의 새로 수정된 그림들을 주문하고 있었다. 나는 파트 3 과 그림 3 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객은 파트 3 의 최신판인 파트 30 을 찾았다. 예기치 않게 보잉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를 그림 3 으로 등급을 깎아내렸고 나에게 3 과 그림 30 을 맞바꿀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상황이었는데, 나는 파트가 필요해서 그것을 위해 보잉에 전화를 걸었다. 보잉에는 최신 파트가 쟁여져 있었고 그것을 바꿔주면서 나에게 배송해 주었다. **나의 설명:** 나는 모든 도움을 받기위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순수하고 쉽다. 오늘날을 위해 되어진 모든 것은 모퉁이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위에 세워진 것이다. 주께서 “문이 열려있으니, 나의 왕국안으로 들어오거라, 땅에 임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다.

23. 너는 네가 가르치는 곳에 있을 것이다.

나는 작년 겨울 워싱턴의 한 호텔에 있었다; 주께서 나에게 3 일동안 영혼들을 향한 부담을 넣어 주셨다. 나흘째 아침 일찍 일어나 타이프하기 시작했다. 성령께서 “너는 네가 가르치는 곳에 있을 것이며, 너는 나의 천국에서 높이 걸으라”.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백성을 천국으로 올리며 통과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더욱 높이 가도록 가르쳐서 그들이 내려가기 시작해도 내려가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나는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 머무는 한 우리는 항상 위에 있을 것을 안다. '기적의 보혈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다 이루었다”. **나의 설명:** 하나님의 주권은 실재이다. 주 예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셨고, 아무도 어떤 사람을 안에 들어거나 바깥에 있도록 할 수 없다. 주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기적의 보혈, 오직 기적의 보혈뿐이다'. 나는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 안에서 나 자신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령은 하늘에서 그러하듯이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늘에서 계속 되어질 것같이 우리를 땅에 임한 주 예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 주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간에 주 예수께서 받으신다.

24. 너는 다윗보다 더 큰 마음을 가졌다

내가 수영을 갔다. 성령께서 나에게 “등을 대고 누워서 해라” 하셔서, 그렇게 했다. 그러자 성령께서 “회개해라” 하셔서 나는 회개하려 했다. 또 다시 성령께서 더 큰 소리로 “회개하라” 하셔서 그렇게 했다. 또 다시 “회개하라”고 더 크게 얘기하셨다. 나는 이러다가 온 밤을 지새겠다고 생각하며 회개하였다. 그리고 난 후 성령께서 “네가 다윗보다 더 큰 마음을 이제 가졌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주님께 “주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고 여쭙었다. 성령께서 “너는 보혈을 가졌으나 다윗은 없었다”고 대답하셨다. **나의 이해:** 구약에서는 율법이 있었고 사망이 죄의 형벌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참된 회개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 안에 있는 용서를 가져온다.

25. 너의 마음이 다윗보다 훨씬 크다.

2015 년 7 월 8 일 나는 다시 나의 수영장에 있다가 나오려는데, 성령께서...나가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서 물속에서 성령의 임재속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다시 나오려하는데 또 성령께서 “나가지 말라”고 하셔서 나는 누워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네가 다윗보다 더 큰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다. **나의 이해:** 나는 이제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하신 그 넘치는 풍성함을 마음으로부터 이해한다. **나의 설명:** 나는 다윗왕이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처럼 주 예수님과 성령님과 모든 관계를 갖고 있다. 다윗왕이 실제적인 면으로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보다 내가 더 가진 것은 그는 하나님앞에서 정말 순결하게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로 인해서 날마다 그분의 눈에 눈동자이기 때문이다.

26. 나는 2015 년 시월에 꿈을 꾸었다

내가 아주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바깥쪽 포치로 나갔는데 한 개한마리가 동물을 뜯어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옆에서는 고양이가 새를 먹고 있었고 또 한 쥐가 다른 쥐안에서 그 내장을 파먹고 있는 걸 보았다. 그리고 한 20 피트 언덕 아래에는 6 인치 높이의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슬레이트 바닥위로 넘쳐 흐르고 있었다. 새들과 동물들이 서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작은 돌들이 있었다. 풀들은 독너머로 자라서 흐르는 물속예까지 있었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이곳 주변에서 주님이 나에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평화로이 누우며’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원래 땅은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레스토랑과 동물들에 대하여 “그들은 머리로 산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보존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다.

a. 하나님의 뜻과 방식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삼켜진 바되기를 원치 않는 존재나 영, 또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성령에 의해 삼켜진 바되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을 보존하기 원하며(교만),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려 하면, 땅에 있는 하늘 나라에서나 천국에서 있기가 불가능하다.

b. 교만의 또다른 특성:

하나님은 땅과 거기 거하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 피조물들의 창조주이시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요구하시지만, 피조물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것인지의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보존하려고 생각할수 있고 그들의 창조주께 순복하지 않으며 그분께 맞추어 완전히 순복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과는 사자와 어린 양이 이미 배부르고 만족하기때문에 평화로이 함께 누울 수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풍성함을 받는 것이다.

c. 진실과 진리:

진실 – 사실이다; 그것은 그 원래의 본질이나 그 자체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없기때문에 생명이 없는 영이며, 그 상태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며 변하지 않는다.

진리 – 살아있다; 그것은 생명이며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고 자유케 한다. 진리는 새롭고 승리하는 본질로 변화시키며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진리는 영원토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

27. 2015 년 10 월 31 일 아침에 꿈을 꾸었다. 집을 터는 갭단이 있었다. 한 남자는 차를 갖고 앞에 있었고, 다른 이들은 집안을 털고 있었다. 집주인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그를 때려 눕혔다. 그들이 나를 쫓아오기 시작해서 내가 달리는데, 거기에 건너 뛰어야만 되는 좁은 골짜기가 있었다. 나는 달리면서 어느 부분이 건너뛰기에 좋을까를 찾는데 건너편에는 내가 골짜기 밑으로 빠지지 않고 뛰어 뭔가 붙잡고 올라갈 만한 곳이 아무데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주시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성령께서 “건너 뛰거라” 하셨다. 나는 점프했고 나의 양손이 건너편 땅바닥을 붙잡았는데 뭔가가 나의 몸을 위로 끌어당겨 거꾸로 한 바퀴 돌려서 다른 쪽 땅위에 올려 놓았다. **나의 설명:** 그것은 남자들에 대한 얘기나 강도질이나 이 땅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지상의 현실을 보고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려고 시도했고 육적인 결과들이 붙잡으려 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찾는 것이었다. 나는 내 관점을 말했고 성령님의 개입을 위하여 성령님 뒤에서 기다리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려 했고 그 결과를 수수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체화 되었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28. 나는 내가 왜 계시들을 받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계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을 안다.
나의 이해: 그것들은 땅에 있는 하늘 나라가 더욱 현실이 되게 한다. 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와 영원한 천국의 현실속에 사는 것이 더욱 손으로 만지듯 실질적이고 분명하게 된다.
29. 자살하는 것 – 나에게서는 아주 지적이고 모든 것에 아주 만능박사인 직원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의 삶을 잘 지탱할 수가 없었다. 그는 서른 살에 자기 목숨을 끊었다.
30. 성령께서 나에게 2015 년 11 월 11 일에 “나의 생명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라고 요청하셨다. 나는 이런 헌신을 드리고 나면 다시 뒤돌아 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머리로도 생각했고 나의 마음으로도 생각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이겼다. 나는 “나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이것은 매우 진지한 것이고 나는 이제 나의 미래가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성령, 주 예수와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것이다. 이제와 또한 영원 영원히, 이것은 모든 이해를 뛰어 넘는 위안이요 평강이다. **나의 묵시와 이해:** 나는 매일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모든 것이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평화롭고 만족스럽다.
31. 2015 년 11 월 17 일에 꿈을 꾸었는데, 내가 어떤 부품이 필요했다, 그래서 가게에 전화를 했더니 가게점원이 말하기를, “오늘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가지 품목만 더 꺼내놓고 문을 닫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화를 끊었다. 조금 지나서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택시 한 대가 오더니 내가 필요했던 모든 부품들을 내려놓았고 나는 내 일을 지속했다. **나의 이해:** 누군가 적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며 그들의 마음이 그분께 부르짖으면, 세상이 그 마음에 맞추어 정렬되며 기적들이 이 땅에서 나타난다. 우리는 하늘 나라의 후사이다. 내가 이것을 아내에게 말했더니 그녀가 “당신이 천국안에 살고 있는 것을 보네요”라고 대답했다.
32. 2015.11.17 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 내 아내와 내가 침대에 있었고 그녀는 잠이 들었다. 나는 내 손이 차가운 것을 알면서도 찬손으로 내 아내를 만지려고 생각했다. 그러자 성령께서 나에게 “너는 그녀를 만지면 안되지” 하셨다. 나의 생각과 속 마음이 모두 성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완전히 바뀌었다. **나의 이해:** 내가 성령께 맞추고 나니,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녀를 사랑하시기 원하시는대로 사랑했고, 그것은 좋은 것이었다.
33. 2015.11.18 에 열린 천국 예배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나서, 우리는 그냥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배 센터에 머무는동안 내내 내 눈이 닿는 곳마다 사방천지에 수천개의 수정들이 반짝이며 빛을 발했다. **나의 이해:** 천국이 오늘 이 예배 센터에서 우리를 만나주었다.
34. 2015.11.30 나는 꿈을 꾸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나는 어린 시절 커서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작은 소년이 경찰 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커서 나이가 됐을 때 경찰국의 질의 문답서를 작성하여 보냈는데 와보라고 답이 왔다. 그가 갔을 때, 경찰국은 그가 양다리에 보족과 목발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했지만, 여태까지 질의문답서에 그와같이 최고점수를 받은 사람이 없었기에 그냥 낙방시킬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를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고용하기 원했고 다른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계속 고취시키기 위하여 그를 고용했어야 했다. 나는 꿈을 깨고나서 주님께 “왜 제게 이 꿈을 주셨습니까?” 여쭙었더니 주님께서 “네가 바로 나와 이 땅에 임한 나의 나라와 성령과 너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답을 주셨다. **나의 확인:** 오늘날 내 마음안에 무엇이 있는가와 땅에 임한 하늘 나라와 천국과 성령과 당신을 자유케 하는 진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 질문: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은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으로 부르짖는다.

35. 2016.1.6. 꿈을 꾸었다. 성령께서는 인간이 이전에 가능하다고 알아왔던 것보다도 더 통솔력이 있으시다. 나는 우주 공간 바깥에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구의 전반적 통솔이 성령에 의해 힘을 부여받고 되어지는 것이 보여졌다. 그리고나서 나는 성령의 민감성과 능력을 부여하는 힘이 더욱 큰 것과 성령께서 더욱 더 통솔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인간이 과거에 가능하다고 알아왔던 것보다도 더 많이, 또 그 전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전체 개관을 보았다. **나의 이해:** 나는 지구 전체안에 성령의 아주 밀착된 전적인 통치를 보았다. 성령의 통솔은 더욱 친밀하면서도 더 긴 안목을 가진 총체적인 것이 었고 인간은 가히 그것을 결코 이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성령의 긴밀한 통솔에 관한 안목을 가지려면 마태복음 12:31-34 을 읽으라. 어떤 정점 어느 때에 성령을 훼방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36.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며 아는 것: 2016.2.22 – 나는 내가 졸업식날 밤에 해변가에 있었던 일과 내가 그날 밤 했던 일을 생각했다. 나는 후회는 하고 있었지만 도무지 그것에 대하여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그것이 나에게 자꾸 생각이 났고 아무런 안도감을 갖지 못했다. 내가 잠을 자려 하는데 다리에 통증이 없어지지 않았다. 나는 잠이 들었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 마치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해변같이 보이는 곳에 내가 있었다. 나는 작은 자전거를 갖고 도시의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걷고 있었다. 내가 하려는 것마다 아주 어려움을 겪었고 해결책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잠깐 잠이 깨었고 이것을 의식하고 내 관찰하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죄다 회개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마다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서 과거가 눈속듯이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나의 과거의 죄를 인식했고, 나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도 인식하면서 이제 나에게서 그것들이 그쳐졌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가 인식하는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그것이 나로부터 이제 던져지며 떠나가고 내 앞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러자 작은 통증들이 나를 떠나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도 꿈속에 있었는데 이제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고 모든 불편함들이 내 삶에서 없어졌다. 나는 끝난 후에 화장실에 갔는데 모든 것이 다 빠져 내려갔고, 내가 16 살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정말 크고 무거운 짐이 내게서 떠나간 것을 느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전에 느끼던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순수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부엌으로 갔는데 주님께서 이전과 달리 나에게 너무 사랑스럽고 달콤하게 말씀하셨고 나는 승리자가 된 기분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 기분은 내가 일전에 느껴본 어느 때보다도 더했고 아직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다. **나의 이해:** 과거의 죄와 유전된 죄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며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의 뿌리이다. 그것은 내가 오늘 내리는 결정을 좌우하며 그것이 나에게 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어제 밤에 일어난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 주제에 대하여 그렇게 건전한 사고를 해보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과거가 나로하여금 오늘 이 땅에 임한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또 성령께서 당신에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기 원하시는지를 알아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루라. 그렇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성령님의 마음안에서 모든 것을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안에 잠기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너 자신을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안으로 완전히 폭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완전히 자유케 되는 현실을 얻게 될 것이며, 새로운 길에서 어떤 것에도, 그 누구때문에도 거기서 이탈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주변이 다 정리되고 당신이 내리는 결정도 땅에 임한 천국의 뜻과 방법대로-그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사는데 맞추어 견게 될 것이다.

37. “나는 땅에 임한 천국에 있고 나갈 수 없다. 거기에는 문들이 없다” 2016.2.24 – 나는 이 안내서를 웹사이트에다 올리고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내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걸 들었다: “나는 땅에 임한 천국에 있는데 거기에는 문들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다”. 나는 내 자신이 이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머물기 위함이고 지금 나는 천국의 관점으로 땅에 임한 천국에서 걸으며 머무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이제 나의 생각은 떠내려갔고 나의 마음은 천국의 구체적인 정보들로 가득하다. 이것이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며 완전히 선하다. 그것은 나로하여금 말하기를 더디게 하고,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시간이란게 없으며, 그저 마음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안으로 발걸음을 띄어 들어갈 책임으로 가득찼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안에서 다 선하다. **나의 이해:** 이 안내서에 나에게 주신 것은 내 삶에서 완전히 실체화 된 것들이다. 다른 말로하면 내 삶에 그것이 있다는 말이다. 모든 이해를 초월한 평강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은 모두 다 현실이다. 나의 할아버지가 한번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것이 땅에 임한 천국과 영원을 통해 있을 천국안에 있는 집이며 나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38. 내가 몸 밖에 있는동안에 나의 영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더 임했다. 2016.2.25 – 나는 부흥 도큐멘터리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 내가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내 몸이 마치 밀실 공포증에 걸린 것처럼 느꼈다. 내 영이 내 몸보다 더 크게 만들어졌고 더구나 내 영은 내 몸을 위하여 만들어진게 아니었으므로, 나는 마치 누에 고치가 나비를 위해 있는 것처럼 내 몸이 나의 영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추정했다. 그리고 나의 영이 내 몸밖으로 나올 때 나의 영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증가되는 것을 느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동안 나의 영이 내 몸안에 있을 때보다 내 영이 나의 몸을 이탈할 때가, 기적들이 더욱 신속하고 더욱 강력하게 응답이 되었다. 나는 너무 자유하고 그것을 안다. 나는 자유하다! 내가 나의 몸에서 이탈할 때는 이 세상 염려들은 다 없어지고, 그저 그것들이 모두 처리되리라는 것을 알기에, 그저 나는 주 예수께서 “나는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만을 행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할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지난 이년 반을 돌아보니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것이 바로 땅에 임한 하늘 나라이다. 이제 나는 그것이 어떻게 이전보다도 더욱 습관적으로 상승하도록 할지를 안다.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기때문에 이미 우리의 영가운데에 능력이 부여되어졌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적격하게 되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듣고, 온전히 그 일들을 행하도록 몰두하면서 하늘에서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이루어진 것같이 이 땅에서도 삶속에 실체화 되어지는 것을 보면 되는 것이다. **나의 이해:** 성경에는 ‘힘으로 취하라’는 말이 있는데, 위에 말한 바가 이 말씀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절대로 나를 위한 것이나 나에게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만 의미하는 바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그럴때에 성경은 “아버지 당신은 언제나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십니다”라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과거에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침 받은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길가운데서 마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안다. 그것이 실체화되고 나타나면 나는 그저 그것을 경험한다.

39. 2010 년 7 월 5 일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성경을 다시 쓰기를 원한다”. 그것은 나의 전 존재와 생각에 너무 낯설어서 그냥 접어 두었다. 그러자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 대하여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받아들이어 순종하는 말씀 구절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대로 그들이 그분을 포용할 동안에는, 언제나 그들을 건져주셨고, 보호하셨으며 공급하셨다. 2016 년 3 월 3 일에 성령께서는 나에게 또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께 듣기를 갈망하며 순종하기 원하고 그분과 함께 있고싶어하며 그의 뜻과 도를 행하고자 하는 그의 백성들에 대한 성경의 현상들에 대하여 보여주셨다. **나의 이해:** 이제 나는 성령께서 나에게 성경을 다시 쓰라고 하셨을 때 무엇을 말씀하신건지를 안다. 그것은 성경에 그분의 마음이 그의 백성들과 맺었던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었다. 하나님과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 기적이다. 사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사이를 다 묘사할 수 있는 책은 없다. 그러나 나는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할 것이며 위의 것을 대표하는 안내서의 결과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40. 당신의 몸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2016. 3. 12: 이 매뉴얼 작업을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감기가 내 머리로 왔다. 그것이 아주 심한 독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더니 내 아내가 자기 몸에 한기를 느꼈다고 말했다. 나는 내 얼굴에 손을 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땅에 임한 천국안으로 깊이 들어갔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네가 누군지 아노라.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가기를 명한다”. 그것은 떠났고 내 아내도 그것이 자기 몸을 떠났다고 말했다. **나의 이해:** 이 땅에 임한 천국은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때문에 기적의 해결책들로 만들어져 있다. 내가 기적의 보혈의 해결책을 통해 땅에 임한 천국의 문안으로 들어가면, 주 예수의 해결책이 아닌 것들은 나와 상관할 수 없고, 모든 어두움은 내가 들어갈 수 있기 전에 다 떨어져 나가야만 한다. 그러면 나는 진실로 자유하게 된다.

41. “그녀를 나의 처녀 딸로 보라”, 한 일이년전에 내 아내가 부엌에 있었는데 주께서 나에게 “그녀를 나의 처녀 딸로 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 삼일동안 내내 그녀를 바라보고 또 보았는데 매일마다 하루씩 지나가면서 점점 더 좋아졌다. 삼일째되자 주께서 나에게 “네가 나의 순결한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제 과거는 어찌구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너를 보듯이 너를 보아라”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다. 나의 모든 과거가 떠났다. 다 없어졌고 나는 자유하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결과들: 나는 자유자이고 이제 자신이 과거의 좋은 것, 나쁜 것에 매여 살지 않도록 하며, 오직 주 예수님만이 홀로 나의 반석이다.

42. “나에게는 모든 공급할 것이 있고 내안에 부족함이 없다”, 2016. 3.14: 나는 내가 회사를 소유한 꿈을 꾸었다. 나는 무엇인가를 위해 항상 사람을 채용해야 했고, 가지고 있지 않은 부품들이 필요했고, 일을 하기위한 시간이 늘 충분치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문제들을 결코 넘어서지를 못했다. 내가 깨어 얼마동안 있다가 주님께 “왜 그렇지요”하고 여쭙었다. 주께서 “나는 모든 것을 공급할만큼 다 가지고 있고 내게는 부족함이 없기때문에 너희들이 다 나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대답하셨다. **나의 계시적 이해:**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평안과 안전함이 내 머리가 아닌 마음안에 왔다. 이제 나는 성령님과 내가 아주 친밀함가운데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 예수께서 그분이 나를 돌보시기 원하시는 방식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 이루셨음”을 안다.

43.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 – 2016.3.15: 주 예수께서 나에게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를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마음에만** 반응하신다. 당신이 문제를 그분께 아뢰며 그분의 손에 그것을 맡기고나서 당신이 기도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물러나 걸으라. 만일 당신의 생각이나 마음에 다른 동기가 있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결과에서 무효화된 것이다. 심지어 제일 처음 제자중의 하나였던 유다도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되찾으시리라는 다른 동기를 갖었었는데, 그의 다른 동기는 주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내앞에 두지 말라’고 하셨다: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은 성령의 임재앞에서 신들이며, 당신이 이것을 기도 가운데 가져오면, 주앞에 ‘다른 신들’을 드리는 것이고 당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나의 깨달음:** 그렇기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10 년전에 ‘기도하지 말라’ 하신 이유였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셨고, 오직 그의 마음만이 의식되어져야 하며 온전히 거론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응답이 실체화된다. **나의 해설:** 왜 내가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삶을 바꾸어달라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길 원한다면, 견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만** 실체화된다.

44. 모하비에서의 부흥의 비전 – 2013. 3.22: 삼년전에 우리는 우리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나는 내 바로 위에서 하늘들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또 ‘열린 하늘 예배 센터 거처’를 보았다. 센터 맨 꼭대기로 회오리 바람이 내려왔다. 그리고 그 회오리 바람이 한번 휘감아 돌더니 쇼핑센터를 위로 몰고 올라갔고, 또 한번 돌더니 이번엔 모하비 마을 전체를 끌고 올라갔는데, 또 한번 돌더니 모하비 주변의 여섯개 도시를 끌어 올렸고 그 다음에 하늘들이 다시 닫혔다.

나의 이해: 부흥이 있을 터인데 예배 센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6 개 도시들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45. 몇 년전에 나는 마태복음 어디쯤에 종교적인 사람들이 성전에서 주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는지의 얘기가 있는지 생각하다가 주 예수님께 물었다: “왜 당신은 그들을 바로 현장에서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를 판단하게끔 했다”. 그가 말씀하신대로: “너희가 나와 함께 있든지 아니면 나를 대적하든지”이다. **나의 계시:** 주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셨을 때 나는 눈깜빡할 사이에 변했고 오늘날까지 계속 변하고 있다. 어떤 이유이던간에, 사람이 주 예수께서 자신을 보이시는데도 주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 순간에 그가 그의 창조주를 거절한 것이고 생명이 결여되며 왜곡이 자리잡는다.
46. 2016.4.7 - 내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주께서 나에게 안내서를 한 번더 훑어보면서 주님을 높이고 그분을 이 안내서와 찬양책에서 높일 수 있는만큼 최고로 높이라는 마음을 주셨다.
47. 2016. 5월 - 우리가 아프리카 토고로 가고 있었는데 주께서 나에게 안내서가 온 세계에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
48. 우리는 아프리카 토고에 갔다 - 주께서 나에게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오순절날 밤에 모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했고 아무도 기도하거나 안수해 주지 않는데, 나는 문자 그대로 오순절이 교회안에 있던 여자들에게 한번에 한 사람씩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변화받았으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천국이 내려오도록 하면서 밤새 찬양을 불렀며 예배하고 또 예배했다. 새벽 2시 30 경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이 잠잘 시간에 성령께서 그의 밝고 영광스러운 임재로 임하셨다.
49. 2016. 5월 - 나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제단에 있었을 때 그는 이미 마음으로 그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너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을때 나는 그것이 나에게 완전한 길을 내어주는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에 관한 것이며, 그 아무것도 거기에 와서 장난질을 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주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듯이.
50. 2016. 5.28. 루마니아 - 우리는 토요일 도착하여 일요일에 교회로 가기 시작했다. 우리 차가 고장이 나서 누군가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주었다. 그는 막 30,000 권의 성경을 그전날 받았다. 우리가 그 삼만권의 성경앞에 섰는데, 주께서 나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성경을 믿으니 각 성경책마다에 레마안내서를 꺼서 주어 그들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에서 받고 견도록 인도함 받게 하라”고 하셨다. 그의 가족안에 한 사람이 곧 바로 안내서를 루마니아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렇게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내가 이 안내서를 읽고 번역하는 동안에 처음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나를 덮었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에게서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안내서의 어떤 부분을 번역한 친구가 이렇게 썼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카의 한 방친구 리사예요. 이 책이 저에게 중요합니다. 저 역시 지금 이 책에 쓰여진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보혈을 통한 기적을 개인적으로 체험했어요. 모니카가 첫 19 페이지를 당신께 보내고 난뒤에, 그녀가 밖에 나가고 저는 계속 번역을 해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나갔는데 저는 간증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번역하기 전에 기도했고, 저에게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기적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그 다음 부분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9 페이지를 번역하고 난뒤 그것을 저장하고, 식사후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컴퓨터에 서류파일을 찾아도 거기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했기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써서 그 파일을 복구시키려 했고 심지어 울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그것을 찾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제 마음가운데 “나를 신뢰하거라”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내가 결과를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간증이 시작되는 20 페이지부터 다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간증들을 다시 재현하듯 했을 때 반복해서 너무 기가차서 울기까지 했어요. 어느 순간엔가 저는 성령님의 말들을 쓰는 내 자신이 합당치 않게 여겨져서 멈추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번역을 시작했는데 내 영혼안에 큰 평강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생각하며, 중단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시간이 부족한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당신이 저를 구해 주실 것을 아고 오직 당신만이 저를 구원하실 줄을 압니다. 이 책에서 이해하는 바대로 우리가 진지하다면, 당신은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줄을 압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나는 “저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저는 어떻게 그 일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기적이 일어났고 서류파일이 돌아 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지요. 이제 당신의 간증들에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그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역시 구원하셨고 저를 땅에 임한 천국에 두셨는지를 기억했습니다”.

51. 2016 년 6.8. 아침에 나는 꿈을 꾸었다. 나는 기차역 창가에 있었는데 그 창문뒤로 세 여인들이 있었다. 그들이 다 동시에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나는 거기가 천국의 기차역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 모두 나에게 ‘우리는 당신에 대해 기뻐하니까 계속 그대로 가십시오’라는 마음이 전해져 왔다. 그들이 창에 모든 가리개를 내리고 난 후에 나는 하나님의 친밀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구약을 해야 할 시간임을 알아차렸다.

52. 2016 년 유월 12 일 일주일 전에 왔던 관절염이 다시 왔는데, 나의 오른 쪽 발목과 왼쪽 무릎과 내 어깨의 근육들이 다시 조여왔다. 나는 내 몸에 통증이 있는 곳마다 지난 이년간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았었는데, 이번에는 통증이 사라지지않았다. 그래서 “주님 이걸 가져가 주세요”라고 요청했는데 성령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셨다. 나는 그렇게 전에 해보았고 깊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에 하던 식이 사라졌고 주님께서 나에게 더욱 깊고 높은 주님과와의 관계를 받기 원하시며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저를 건지시지 않으실거면 의사에게 갈까요?” 여쭙었는데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그렇게 했고 그가 나에게 의사의 주소를 알려줬고 나는 약을 받아왔다. 오늘 내가 교회에 있다가 걷기 시작했는데, 영적 파장이 내 앞에 계속 밀려 왔다. 나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친밀함과 승리가 이전에 내가 알던 것보다 더 크게 왔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53. 2016 년 6 월 19 일 우리는 화란에 있었다. 나는 교회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프로젝트를 밀고 나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릴때 나는 내가 걸어야만 하는 길이 곧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고 다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과 다른 길을 만들어내서도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가서 그들에게 안내서를 제시해야 함을 알았고 그렇게 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문을 나가려하는데 두개의 파도가 나에게로 다시 밀려왔고 나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에 이전보다 더욱 깊이 더 높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54. 2016 년 유월 23 일 오후 4:45 – 나는 오늘 영국의 E. U. 탈퇴 (브렉싯)에 대하여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릎꿇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알고 성령께 내 입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나라안에서 유럽을 연합시키소서”. 그러자 성령께서 “내가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누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저자의 계시: 나의 존재는 ‘아무 것도 아니게 없어지고 하나님이 전부이시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관계를 묘사할 때는 겸손은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완전하다.

55. 루마니아 레마 안내서의 번역자로부터 온 기적들의 간증: 요즈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 나는 시험을 위해 기도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지 않았던 제목들을 말해주셨고 내가 교실에 있었을 때 나는 어떤 종이에 빛이 비추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른 사람이 그 종이를 가져가겠지 생각했는데 그들은 가져가지 않았다. 내가 그것을 가져왔는데 보니 주께서 나에게 말씀해주신 제목이었다. 그 후, 며칠 전 나는 공급에 대한 것과 이 세상에서 어떤 빛도 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번역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3 개월동안 빛을 갇지 않고 눕추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래 맞아. 그런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쉬울 수가 있지?”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에 대하여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하셔서 나의 아버지께서 월급을 더 받으셨는데 그 빛을 갇기에 정확한 액수를 주셨다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께 이 책에 대하여 또 내가 생각했던 것에 대하여 말씀드렸더니 너무 놀라셨다. 주 예수님의 기적의 보혈안에 권세가 있다.

56. 2016 년 칠월 13 일 꿈을 꾸었다. 작은 가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 그들 혹은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은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주 예수에 대하여만 말하였고 성령님의 임재가 임했다. 나는 깨어나서 안내서를 읽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 나는 그전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잤고 내가 깨었을 때, 삶의 모든 압박감이 나에게서 벗겨져 나갔고 나는 성령께서 내 앞서 가셔서 오늘위한 나의 길을 내셨다는 알았다. 모든 문제들이 내앞에서 다 사라졌고 나도 없었다.

57. 2016 년 8 월 1 일 제 육단계가 나에게 임했다; 주 너희 하나님을 너희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 천국이 열렸고 금색 필름이 나의 주변으로 내려와서 내 발밑으로 갔다. 그러자 주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나는 완전히 모든 일에 승리하는 자인 것을 알았고 오늘날까지도 그렇다. 주 예수여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만이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58. 2016. 9. 23 꿈을 꾸었다. 나는 우주 공간에 우주 정거장에 있었다. 한 여자가 지레를 당겼고 다른 여자의 아기는 우주속으로 내보내졌다. 애기가 없는 그 여자가 나에게 “저 아기는 저에게 나나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더 의미가 있기때문에, 저 아기를 데려오면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요”. 라고 말했고 나는 “첫째, 당신은 사망보다 아이를 더 크게 사랑하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계신다는 걸 압니다. 둘째, 당신에게 필요했던 사랑의 기준은 자기자신을 뛰어 넘어 더 큰 것임을 의미하며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해야만 된다는 것과 성령의 민감함을 알기 위해서는 전 우주 공간안의 모든 인치와 각 미립자까지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주 예수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길을 내주셨고 그냥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저자의 계시: 나는 하나님의 실재를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 몸안에 있는 모든 미립자보다도 더 값을 치루도록 들어가게 하셨으며, 자아보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라도 더 사랑하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 그러나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머물도록 하셨으며 나는 몇일에 한번씩 천국의 내부를 실제로 만진다. 누구나 천국안에서 걷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문을 항상 열어놓고 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라.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고 현실이다. 나는 꿈에서 깨었고 어제 밤 그냥 그 안으로 걸어들어 갔다.

59. 2016. 9.23 꿈에 대한 저자의 이해와 계시: 주께서 꿈을 주실 때에는 (나는 이 꿈을 오늘 막 받았다), 주께서 여시고 영적으로 과거에 알았던 것이나 가졌던 것보다 더 하늘의 속성들로 능력을 입혀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성들을 오직 천국이 있는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스크린을 통과하여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분의 임재안으로 더 깊이 더 높이 들어갈 때 까지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이상 우리 개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게 될 때에야 영적 능력과 영적 인식이 있게 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알고 행하여 성취할 수 있게 된다.

60. 2016.11. 25 오늘 아침 우리는 견과류가 들어간 빵을 막 만들었다. 내가 그것을 잘라서 아내에게도 한쪽을 주었다. 너트의 얇게 썰린 부분이 테이블로 떨어져서 나는 그것을 주워 내 아내의 접시에 놓았다. 그런데 나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주님께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간직했더라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겠다 싶었다. 그리고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아주 민감하시므로 그것을 훼방한다고 보실 수도 있고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아주 나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주 면밀하시며 마치 모세가 반석을 내리친 것을 보셨듯이 그의 눈은 우리에게 열려 계시다 (민수기 20:11).

저자의 이해: 만일 내가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계속 붙잡고 항상 회개하면, 나는 내가 영원한 천국을 볼 것임을 내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소망한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61. 나는 예배 센터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주께서 나에게 각기 다른 방향들로부터 포장이 덮인 마차가 한 대씩 한 대씩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포장마차를 보니 그것을 끄는 말이 없었다. 그런데 말이 하늘에서 날아 내려와서는 마차에 연결이 되더니 그것을 끌고 나갔다.

저자의 계시: 주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2. 한 소녀와 여자, 나의 아내의 간증들:

그리스도안에서 나의 삶을 변화시켰고 또 변화시키고 있는 기초작업

1982 년 삼월 – 내가 나의 삶에 가장 낮고 깊은 어두움의 시간에 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나에게 오셨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도 못했다. 나는 이렇게 빛을 찾기 시작했다. 내가 아파트에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나에게 눈을 감으라고 요구했다: 너의 눈을 감고 무슨 이름을 보는지를 말하라고 했다. 나는 그를 기쁘게 하기위해 무슨 이름을 말했는데 그가 ‘아니다, 아니다, 다시 말해봐!’ 했다. 내가 눈을 감았는데 아주 분명한 단어 ‘임마누엘’이 보였다. 나는 “임마누엘이 보여요”라고 말했고 그는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으로부터 내 마음이 바뀌었다. 마치 빛이 온 것 같았고 나는 “내가 지금 여기서 뭘하고 있는거지? 나는 밖으로 나가야되! 내 삶에 뭔가 선한 것을 해야만되”라고 말했다. 나는 나갔고 내 삶은 나를 방문하셨던 그분이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사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사년후 내가 나의 삶을 예수께 드리고 난 후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 내안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성가를 불렀다. 갑자기 나는 몇년 전에 내 눈을 감았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보였던 것을 기억했고 이제 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깨달았다. 사년 전에 주께서 내 삶속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다. 주께서 절박하게 탐구하고 찾는 심령을 보실 때 그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막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분은 이런 마음을 만지시고 바꾸어 주실 것이다.

1985. 유월 –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나는 아파트가 필요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곧 나오리라는 정보를 들었다. 한 가지 문제는, 그곳이 좋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 말고 많은 다른 사람들도 그곳을 얻기 원하는 것이었고 그 시기에 그 장소에 집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나는 잠을 못이루고 뒤척이다가 내가 그 상황을 조종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시점엔가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 집을 얻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 밖에 없다”. 나는 침대에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아주 짝박하게 기도했다. 그때 당시 나는 하나님을 몰랐고 한번도 기도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곧장 잠이 들었고, 그 집을 얻게 되었다. 나는 주 예수님을 몰랐기때문에 그 때는 내가 구한 것을 받은 것이 기적이었다는 것을 연결시키지 못했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면서 그 분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1985. 시월 –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다. 내 친구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했지만, 나는 듣기를 원치 않았고, 우리는 각기 다른 길로 갔다. 그리고 나서 한 밤중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그녀를 방문했으니 너는 마그릿트에게 돌아가서 나에 대하여 말하거라” 하셨다. 그날 나중에 다시 주께서 들리는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녀에게 돌아가야만 한다. 오늘 하거라”. 나의 친구는 나를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반응했다: “오 주님, 그렇다면 당신께서 길을 만드셔야 겠습니다”. 우리는 그날 대학에 있었는데 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둘다 서로 보고싶어 하지 않아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즉시로 둘다 맨처음 문을 열고 강의실을 떠났다. 우리는 잠시 의례적인 인사 말을 했는데 나는 그에게 저녁식사 초대를 했다. 그날 밤 그가 결국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꺼냈을 때, 나는 그 순간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받아마셨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매우 굶주려서 물었다: “네가 가진 것을 나도 가지려면 내가 뭘해야지?” “아주 간단해” 그가 말했다. “우리가 그냥 무릎 꿇고서 **네가 예수님께 네 마음과 네 인생속에 들어오시고 그분의 보혈로 너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되**”. 나는 그렇게 했고 그이후로 나는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갑자기 나는 예수님이 진짜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 알았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아시고 진리에 굶주려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이다.

1986 십이월 – 귀신들로부터 놓여나다. 나는 교회에서 수요성경공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내 집 현관문 앞에 섰는데 갑자기 내가 폭발할 것처럼 느끼면서 3 층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가 나의 아파트 거실에 무릎을 꿇었다. 나의 손은 하늘을 향해 올려졌고 주께서 오셔서 그의 빛으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나는 각기 삼십센치정도 크기 되는 8-10 마리쯤의 실체가 빠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들은 시커멓고 펄럭거리며 사라져갔다. 나는 자고 그 다음날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빛이 내 마음에 차있는 상태로 아침 일찍 깨어났다. 나는 밖에 나가 나무들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며 햇빛과 바람을 느껴보고 싶었다. 그때 이후로 나는 마치 계속되는 소풍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느꼈고 그것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나의 삶이 자유를 얻었다!

1995 삼월 – 귀신들에게서 해방되다. 나는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시니?”라고 말한 사람앞에 서있었고, 그 순간에 나는 그녀와 나사이에 키가 크신 빛의 사람을 보았다. 내 양무릎이 묶인 것처럼 나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나에게 “그분이 예수님 아니시니”라고 말했던 사람도 내 옆에 무릎을 꿇고서 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종교의 영을 대적하며 기도했다. 나는 마치 말 그대로 내 피부가 나에게서 뜯겨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때로 우리는 아예 인식하지도 못하는 영적인 속박가운데 묶여져 있는데 오직 성령께서만 이것을 보여주실 수 있다.

장작이 불타는 가운데서 꺼집어내지다 – 주께서 내가 주님께 나오고 난 후에 이 성경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눈앞에 흰히 상상해 볼 수 있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훨훨 불타고 있는데서 잡아당겨내진 장작개비다”. 나중에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분께서 내뒤에 있는 문을 닫으시는 것과 문이 닫혔기때문에 이제는 더이상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보여주셨다. 그가 문을 닫으셨다! 노아가 들어가고 난뒤 그분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던 것처럼.

1986 십이월 –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원하느냐 바이올린을 원하느냐?”.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몇시간동안 갈등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다: “주님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그는 나로부터 그 순간에 바이올린을 켜고 싶은 마음을 전부 가져가셨다. 나는 매일 몇시간씩 연주하곤 했었다.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

1993 십이월 – 믿음을 받기 그리고 하나님이 불가능을 행하신다. 나는 집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정부주택은 이전에 신청해 놓은적이 없었기때문에 한다해도 12-15 년은 기다려야 하니 그걸 받을 가망성은 없었다. 개인주택에 세를 내는 것은 나의 봉급보다 훨씬 비싸서 나는 절실했다. 나의 친구가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녀가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믿음이 나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집을 가졌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으나 나는 마음에 집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한 일,이주 지나서 그 친구가 다시 오더니 나에게 홀란드 전체 두 개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도시에서 시범으로 정부주택의 적격 조건이 바뀌어서 30 세의 생일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뽑아서 몇개 안남은 집들을 먼저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마침 나는 이 선정된 두도시중 하나에 직장이 있었기에 조건이 맞았고 내 생일은 3 주도 안남게 가까운 날자였다. 그래서 나는 제 일순위에 있었다. 나는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그 이후에 결코 다시 들은 바가 없다. 우리가 우리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길이 열린다.

주님의 임재 – 주께서 나에게 집을 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나는 나의 침실에서 아침마다 주님과 시간을 계속 갖었다. 나는 몇시간씩 주님의 임재가운데서 전화도 받지 않고, 12 시전에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으며 그의 임재속에서 내 삶에 돌파를 받고 있었다. 그러면 아침마다 주님은 내 삶속에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 만나주셨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너의 집은 너에게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주 격리되어 있었다. 내 삶에 아무 것도 없었고 그저 아는 것이라고는 주님의 임재속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었다. 그래서 내가 아침과 주님과 시간을 갖고 나면, 나는 거실로 가서 계속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나를 가득 더 채우실 때까지 주님을 찾았다. 나는 내 삶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다루고 있었고 또한 마음 속 깊이 처절한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마다 나는 주님께로 나가 무릎을 꿇었고 그분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채우셨다. 그러면 나는 일어나서 할 일들을 했고 또 몇시간 후면 이 외로움과 절망감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나는 무릎 꿇고 주님의 얼굴을 구했고 주님은 또 그의 임재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외로움을 거둬가 주셨다. 그러면 나는 산책을 하거나 주님과 함께 더 있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곤 했다. 주님은 나에게 두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자전거를 타거라”와 “산책을 가거라”.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변화의 시기였다. 치유와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나의 모든 감정들을 대치하기 시작했다. 거기에서 나는 진정으로 주님의 임재속에 있으면서 주님이 나의 삶에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을 배웠고 이것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다.

1993.7.4 너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 – 나의 아빠가 주님께로 돌아가셨을 때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한 번만 제외하고는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었기 때문에 나는 마음에 염려가 있었다. 그러나 그가 하루는 “너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의 집 침실에서 돌아가시고 잠시후 나는 가족에게 말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그들이 모두 이층으로 올라갔다. 내가 혼자 그의 거실에 서있는데 나의 마음속에 경배하고픈 마음이 올라왔다. 그리고 나의 아빠를 보았고 그는 혼돈된 것 같아 보였는데 양옆에 두 존재가 그를 붙잡아 버텨주고 있었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같은 것이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아빠를 거기로 데려간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피조물 – 한 번은 내가 해변에 있었는데 너무 완벽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변을 즐길 수가 없었다. 나는 주님께, “주님 이렇게 완벽한 날이고, 아름다운 해변이고, 날씨도 좋고, 평화스러운데도 나는 즐길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그 즉시 주님께서 갑자기 나의 존재를 만져주셨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 온전히 즐길 수가 있었다. 나는 하늘 높이 나는 새들을 보면서 나의 피부에 닿는 햇볕을 즐기며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나는 그날 무엇인가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배웠다.

주님께 다가가기 – 내가 주님께, “주님 저에게 왜 그렇게 말을 잘 안하세요?”라고 여쭙었을 때 주님이 대답하셨다: “너에게 주는 나의 가장 큰 선물은 너에게서 내 손을 빼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로 오기보다 너로하여금 나에게 오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1994 십이월 – 결혼. 내가 부엌에 서있었는데 주님의 임재가 임했다. 너무나 놀라워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 내게 당신이 있는한 내 평생 한번도 결혼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결혼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나 생각들을 다 제거해 주셨다. 나는 31 살이었고 한번도 결혼한 적이 없었다.

1995. 3 월 13 일 월요일 – 나는 32 살 이었고 토론토에서 일어나는 부흥회에 있었다. 우리는 기도가 막 끝나고 이층에 있었는데,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나는 주님의 임재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홀란드에서 간 친구중에 하나가 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나는 아무 생각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멈춰서더니 한 남자와 얘기를 했다. 갑자기 성령께서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소리는 번개가 치듯이 나를 쳤다: **“그녀는 너의 남편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전에 결코 서로 만나본 적이 없었다. 지인은 조그만 회색 수염이 있었는데 나는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것은 나에게 거리가 먼 생각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초면인사를 하게됐고, 그 순간부터 뭔가 착착 진행이 되었다. 내가 삼개월전에 나의 결혼에 대해 완전히 주님께 맡긴 후에, 그분은 그가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일을 자유로이 하실 수 있으셨다.

나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 나의 배우자: 주께서 우리를 함께 연결시키신지 몇 달후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지인을 다시 돌려받기 원한다”. 나는 이제 막 나의 존재를 지인에게 열어놓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충격이었고 나는 안된다고 했다. 성령님의 슬픔이 내위에 드리웠고 나는 내가 깨빱을 쳤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거의 일년동안 주님께 지인을 포기할테니 다시 기회를 달라고 계속 간구했다. 일년후에 그 기회가 다시 왔다; 나는 주님과의 시간을 갖었고 아주 그분께 가까이 있다는 친밀함을 느꼈다.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다: **“이제 지인, 그를 나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예 주님” 하고 응답했고 지인이 영적으로 주님께 연기가 되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것을 더 이상 만질 수 없었고, 그것은 없어졌다. 마치 주께서 그것을 나의 존재로부터 떼어낸 것 같았고 나는 울기 시작했다. 3 일동안 나는 계속 울었고 5 일정도가 지나자 나는 너무 자유롭게 되어 지인이 나에게 다시는 전화를 안한다해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나는 심지어 그가 안한다면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바로 그날 그가 전화를 걸어서 5 일전에 내 전화 번호를 잃어버렸다가 바로 그날 다시 찾았노라고 말했다.

나의 배우자와 함께 하는 규정 – 주께서는 나의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하여 두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첫번째는 **“그를 가게 하라”**였다. 지인은 도무지 내 눈높이대로 이렇게 책임을 져야지 하는 나의 생각과 기대에 맞추지를 못했다. 주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후에 나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지인에 대해 언짢아 할 때마다 그의 책임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내가 그를 가게 하며 진정으로 그를 놓을 때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나서 내 생각에 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보였다. 그 다음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남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거라”**였다.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배운 것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지인의 동기가 항상 나의 것과 달랐지만 그래도 그의 관점은 아주 선했기에 그것은 나의 사고를 넓혀 주었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내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 때로 내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여쭙어본다: “주님 제가 이거 먹어도 괜찮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때로 내 입에 있던 것을 뱉을 때도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싶던 마음이 싹 사라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어보고, 그분께 맞춘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철저히 개입하신다.

음식 – 나는 리커리스(달고 단단한 젤로같은 것을 파배기처럼 엮어놓은 것)를 특별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주께서 나에게 ‘식탐’이라는 단어를 쓰셨다. 몇년동안 나는 이것을 끊느라 고생을 했는데 어느날 주께서 “그것은 영원을 위해서 지불하는 값으로는 너무 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게 승리가 있었다. 그 이후 리커리스를 만지지도 않았다.

나는 “노우”라고 말할 수 없다 –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셨다: 나는 그분의 마음과 그의 성품을 보았고 그가 말씀하셨다: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단다”. 마치 그분이 “나는 내 백성을 거절할 수가 없단다”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거룩한 땅에 서 있었고 사람이 알도록 허용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을 막 보았던 것 같이 느꼈다.

내 발로 서기 – 몇년전에 주께서 나에게 내가 너무 기진해서 마치 땅바닥에 풀로 붙여놓듯이 납작하게 바닥에 누워있는 그림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나는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는데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너의 두발로 서게 하겠다”. 나는 주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까지는 한 발자국도 떼지 않고 인생의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책임을 맡기신 이래로 나는 주님안에서 건강하게 기능을 발휘하며 ‘곶곶이 서는’ 법을 배웠다.

2015 년, 주예수의 보혈 –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던 중에 나에게 그분의 보혈이 파도처럼 온 땅위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다: “내가 온 땅위에 역사하는 나의 보혈의 능력을 아는 지식을 새로운 파도같이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피안에 담긴 능력의 아주 미소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런데 내가 본 파도가 넘쳐오는 모습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 훨씬 이상이었고, 그것은 전체를 다 덮었다. 그것은 부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그 안에서 걷는 더 깊은 지식에 관한 것이다.

파도 – 성령의 움직이심은 마치 파도와 같다. 파도가 해변가로 넘실거리며 밀려왔다가 바닷가로 빠져 나간다. 그것이 주님께서 영원히 고안해 놓으신 것이다. 파도가 해변가로 밀려오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시는 동력과 같다. 그리고 그 파도가 밀려 나갈 때 우리는 더 깊이 주님과 함께 (주께서 어디계신가 화들짝 놀라 당황하지 않고) 움직이게 되며 다음 파도가 또 밀려올 때까지 그분과 더 깊은 관계속에 들어가게 된다.

2012 년 십이월 15 일 – 이 세상에 주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심. 나는 꿈을 꾸었다: 내 꿈속에서 한 소녀가 나에게 주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충만함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나도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동의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아이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내가 당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계시군요”. 그 말이 나를 찔렀고 전 존재를 흔들었다. 나는 그것을 털어 버리려 했지만 이미 그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 내가 깨어났을 때,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저는 정말로 그것이 무엇이든지간에 어떤 댓가를 지불한다해도 당신께서 저를 향해 가지신 모든 것을 원합니다”. 그러자 일이 그날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나는 주께서 우리가 홀랜드로 가는 여행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그 다음날 떠나는 비행기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여행을 취소했다. 그러자 다음 사주동안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집에 있으면서 어떤 일에도 완전히 열려져 있었다. 그 다음날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우리 나라안에 의약용도로 마리화나를 파는 약국을 적어도 공공 장소에서 1800 피트가 떨어져 있도록 법적으로 투표하여 정해진 보호법안을 바꾸려는 법안의 승인을 위해 그 주간에 공청회가 열릴 것이라는 언급을 하셨다. 나는 그것에 대한 편지를 우편물로 받았었지만 그것을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 주 초에도 지인이 집에 와서 그것에 대하여 말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교회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언가 마음속에 신호가 있었고 나는 우리가 거기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그곳으로 운전하고 갈 때 주님의 임재가 갑자기 우리에게 임했다. 마치 내가 뒤에서 그분을 보는 것 같았는데, 그분은 목적과 방향을 갖고 그의 길을 가시고 계셨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공청회가 끝났고 그 법안을 바꾸는 것을 승인시켰다. 내가 차 곁에 서서, 그 건물을 바라보는데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 차안에 너희와 함께 하던 그 임재가 이제 이 건물 부서에 임하여 있다”.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정상적으로는 보통 준비하는데 한달이 걸렸지만 우리가 기획부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을 때는 항소심의가 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었다. 한 친구가 그녀가 알던 기획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우리는 스피커폰으로 해놓아서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당신의 친구들에게 이 변경법안 승인을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포기하라고 말하십시오” 했다. 그리고 목요일날 우리가 사는 그 카운티(한국의 읍과 같은 구역) 사무국장인 우리를 만나 얘기하러 왔었다. 그가 “그들은 모든 것을 법적인 절차를 따라 했고 그것은 의약용도를 위한 것일 뿐이요”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몇시간동안 낙망의 어두운 구름이 우리위에 덮인 것을 느꼈다. 그러나 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고 우리는 싸우기위해 이전보다 더 강하게 느꼈다. 주께서 우리에게 탄원서를 받으라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우리는 그 다음 삼일동안 서명을 받아냈다. 그곳에 마리화나 파는 약국이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1% 미만이었다. 주께서 공청회가 있기 하루 전날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논박하는 편지를 쓰라는 감동을 주셨고 우리는 그 결정을 승인시킨 다섯 지도자들에게 모두 편지와 서명자명단을 각각 보냈다. 그 다음날 만장일치로 이 변경법안이 기각됐고 승인 결정은 반복되었다. 주님을 위한 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너무나 놀라운 승리 아닌가!

보호 – 우리는 약 20 마일 떨어진 한 마을에서 집으로 운전하고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빙판으로 인해 고속도로가 막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현명한 대처를 한다 생각하며 산길을 통과하려고 돌아섰다. 가다가 우리는 산간도로로 가려면 우회전을 해야하는 티(T)자도로에서 보니 산간도로도 철로 된 막이로 막아놓았는데 보니 중간이 약 10 피트 정도되게 틈이 있었다. 나의 남편이 그 막힌 길 틈새로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운전대도 브레이크도 작동을 하지 않았다. 우리 차가 빙판위에서 곧장 미끄러지더니, 나즈막한 덩불들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성령님의 임재가 차안으로 들어오셔서 장악하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너무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차가 오른쪽으로 빙그르 돌아서 막아놓은 양쪽 막이 틈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우리는 경이로움 가운데 계속 경배를 드리며 아주 천천히 아름다운 산길의 경치를 통과해서 집까지 왔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또 한번은 우리가 삼차선 고속도로를 가는데 차량이 별로 없었다. 우리는 오른쪽 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 앞서 가던 트럭이 아주 심하게 늦게 가는 바람에 우리 차가 금방 가까워졌다. 운전하고 있던 내 남편이 차선을 바꾸려 옮겨가고 있는데 내가 내 어깨 너머를 보니 한 차량이 동시에 우리를 추월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 차는 삼차선에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바로 옆 차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조심!”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내 남편은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으며 오른쪽 길가로 방향을 틀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른 순간에 일어나서 우리는 4 번을 굴렀다. 모든 창문이 박살이 났고 지붕은 다 안으로 일그러져 들어왔고 차는 폐차처리가 되었다. 우리가 굴르는데, 우리 세사람 다 (화란에서 온 우리 친구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우리가 마치 누에고치속안에 있듯이 주님의 임재안에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 차가 구르기를 멈추자 우리 세사람이 차밖으로 나왔다. 앰بول런스가 오더니 구조대원들이 차를 보고 우리를 보면서, 나는 다리가 조금 찢어서 피가 약간 나와서 앉아 있었고 지인과 로는 걸어나다니면서 차 밖에 널려진 우리 물건들을 줍고 있는걸 보았다. 그러더니 그가, “이게 다요?”라고 묻길래 내가 그 즉시 “예”라고 말하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생명을 구조하는 기쁨이 있었다”**. 우리 세사람 모두 말짱했다.

보호 – 어느 날 밤 나는 외딴 길에서 해진 후에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마리 개가 나를 둘러쌌다. 그들은 짖어대며 내 다리를 살짝씩 물어 뜯으려 했다. 내가 그 개들예겐 고기덩어리라는 걸 알았다. 나의 존재 내부에서부터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주 예수님” 그러자 개들이 즉시로 멈추고 돌아서 도망갔다.

사람으로부터의 보호 – 어느 날 아침 내가 깨었는데 주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라도 내가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너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나는 왜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냥 그대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나중에 누군가가 나의 온 세상과 나를 무너뜨리는 어떤 말을 했는데,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준비시키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개입되어 있었음을 알았고 주께서 나를 건지시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셨다.

존중 – 한 번은 내가 하루동안 금식을 하고 있었다. 나는 준비되었고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보냈다. 그 날이 다 끝날 때까지 주께서 나에게 아직 아무 말씀도 안하셨고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셔서 내가 “주님, 제가 온종일 당신과 함께 보내는데 당신은 나에게 아예 안오시네요”. 바로 그 순간 내 눈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크게 사용되고 있는 한 사람의 사진에 고정됐다. 그 사진은 테이블에 놓인 한 권의 책 겉표지였는데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사람에게 존경심을 품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존경할 수 있겠느냐”**.

교만 – 하루는 주께서 나에게, **“너의 모든 문제는 거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당시 문제가 많았다. 그이후로 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교만이 있는지를 점검했고 거의 대부분은 교만한 태도가 그 뿌리였다.

질투 – 나는 한 일주일동안 질투하는 감정으로 시달리다가 부르짖으며 말씀드렸다: “주님, 저는 이런 감정을 원치 않습니다, 제발 저에게서 이것들을 가져가 주옵소서”.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질투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 그 뿌리는 네가 갖고 있던 너의 것을 줘버렸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이제 네가 갖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네가 보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주님은 나에게 속한 것을 내버리지 않는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고, 너무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기분이 좋았다. 나는 더이상 나 자신을 쥐버리고 기분 나빠하지 않게 되었고 또 주께서 주라고 하시면 기쁨과 승리가운데서 한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나다 – 또 한번은 내 삶속에 여러가지 면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느껴서 (주께서 나를 건지시려고 만드신 상황들)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말씀드렸다: “주님 저에게 바이올린을 (나의 마음에 아주 정든) 주시지 않으시려면 적어도 남편이라도 주세요”. 나는 즉시 성령님의 사랑의 임재가 나를 감싸시는 것을 느꼈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것이 네가 원하는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은 나다**”. 고통이 없어졌다. 주님은 우리 삶에 그분과 우리 사이에 끼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다 걷어내신다.

자유 – 한번은 일요일 아침 내가 교회에 앉아 있었을 때였는데 설교가 시작되었다. 나는 선포되어진 설교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을 뿐더러 마치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꼈다. 나는 나가고 싶었지만 걸어나올만큼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일어나서 걸어나가든지 아니면 여기 머물던지 완전히 자유하다**”. 그리고 나는 이 공간과 자유가 나에게 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냥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 걸어나왔다. 큰 문제가 아니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준비까지 시키신다.

승리 – 나는 누워있었는데 배가 많이 아팠다. 잠시 잠이 들었었지만 깨어났을 때는 통증이 아주 심했다. 갑자기 주님이 바로 내위에 그의 임재로 임하신 것을 느꼈고 그는 “**내안에는 패배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잠이 들었고 나중에 다시 깨었을 때 아직도 통증이 있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물을 마시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물을 많이 마시고 또 잠이 들었다. 내가 다시 깼을 때는 통증이 사라졌다. **예수의 보혈안에 그리고 그분의 임재안에는 패배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 – 나는 주님의 임재가 굉장히 강하고 충만한 교회안에 있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길가다가 들어와서 예배드리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도 있었다. 그렇게 단순히. 부흥이 거기에 있었다. 하루는 내가 경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의 영광을 라울에게도 또 자니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라울은 목사님이셨고 자니는 찬양 인도자였다. 나에게는 그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표시가 전혀 없었는데, 일주일 후에 뭔가 교회안에 폭로가 되었고 교회 전체가 갈라졌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작년 – 나는 다른 교회에 있었는데 그분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고 있었고, 아주 놀라웠다. 다시 주님께서 그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육체라도 나의 임재안에 있는 영광을 가로채지 못할찌어다**” 하셨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찌어다’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강조는 그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조는 그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있었다. 바로 그 시간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높이며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앞에 내어놓는 시간인 것이다.

2016 년 4 월 6 일 – 주께서 나에게 또 보여주셨다: 그분의 임재가 나타날 때, 인간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노력하는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이 육의 차원과과는 완전히 다른 그분의 임재의 영광스러운 차원 안에서 모든 육체의 것들은 사라진다. 영광이 인간에게로 돌아갈 때는 성령께서 거기 계시지 않다고 정의를 내려 얘기할 수 있다.

2004.3.9. – 나는 가끔 내가 하던대로 이 토요일에 전도하러 가기로 계획을 했었다. 그런데 이날 아침에는 아주 희미하게 주께서 “오늘은 가지 말거라” 하시는 것을 들었다. 나는 무심코 합리화시키면서 “복음전하는 것이 잘못일리는 없지”하고, 나갔다. 내가 한 블럭을 걸었을 때, 그들의 마당에 있는 두, 세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대화가 진전이 없었다. 한 사람은 몰몬이었고, 다른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었다. 나는 별로 기분이 안좋아서 그냥 집으로 곧장 돌아왔다. 월요일 아침에, 차가 들락거리는 입구에 자동으로 시간맞추어 물을 뿜어주는 스프링클러에서 나온 물이 얼어서 내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나는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나는 차로 간신히 들어가긴 했지만 발이 완전히 뒤틀어져서 바깥쪽으로 건들거리는 것을 보면서 뭔가 심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나는 차에 시동을 걸고 지인이 있다고 생각한 가게까지만 가야겠다고 결정을 했다. 우리는 우리 가게에서 400 피트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다. 그런데 길 끝에서 지인이 차를 몰고 들어오다가 내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나에게 손을 흔들어주고는 지나쳤다. 그리고 내가 차를 돌려 갔을 때 아직도 지인이 바깥에 있어서 우리는 함께 의사에게 갔다. 진료소에서 내가 “**주님 왜 내게 이 일이 일어났나요?**”하고 여쭙어보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주님의 나라안에 있을 때는 사고가 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완전히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분이 대답하셨다: “**너 내가 토요일에 네가 전도하러 가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그래도 간 것을 기억하니? 너의 불순종이 어두움이 들어와서 너를 치도록 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다리가 6 군데 부러졌지만 주께서 아주 유능한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수술하지 않고도 두달후에 나는 다 나았고 달릴 수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억지로 침대에서 쉬어야만 되는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너무 즐겼다. 주님은 모든 것을 선을 위하여 사용하신다.

2016.4.9. – 나는 내가 사막의 비포장 흙길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는 꿈을 꾸었다. 두 차가 나를 속도를 내며 추월해 갔는데, 첫번째 차량은 길옆으로 달리면서 그것이 정로라고 생각했다. 두번째 차는 첫번째 차를 따라잡아서 그에게 그가 정로가 아닌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려 했지만, 열정적으로 달리다가 바위에 부딪쳤다. 나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하다가, 그래도 “내가 그들이 어떤지 보는게 좋겠다” 생각했다. 내가 멈추어 보니 차는 거의 완전히 모래속에 묻혀 있었다. 이 때쯤 내 꿈속에서 차는 쪼그라들어 있었다. 나는 내 손을 뻗어 열려진 창문으로 문을 열려고 했고 운전자를 보니 상태가 심각했다. 나는 그의 축쳐진 몸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의 생명없는 몸을 앓고 있었는데, 그의 몸에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땅에 눕혀놓고 옆좌석에 있던 사람을 끌어냈다. 그리고 잠을 잤는데 주님의 임재속에서 기분이 아주 좋았다. 내가 이 꿈을 통해 얻어낸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갖는 관계가 첫째 우선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시는 일에 사용하시기 원하실 때 우리를 지도해 주시리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누군가를 위해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쫓아갈 필요가 없다. 그것은 실패한다!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시도하는 일에는 생명이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생명과 결과를 낳게 된다.

주님의 차례 – 한번은 내가 우리가 좋은 모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임에 있었다. 찬양후에 설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단앞에 나와 기도하도록 부름이 있었는데 주께서 나에게: “**이제 내 차례다**”라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그의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백성들을 제단에서 만나 주셨다. 나에게 정말 놀라운 일은 주께서 우리의 일이 끝날 때까지 늘 기다리신다는 것이다.

순교자들 - 주께서 나의 눈을 열어 계시해 주셨다; 순교자가 말뚝에 박혀 불타 할 때 주께서 그것에 대하여 “말뚝에서 화형 당하는 것은 이미 마음 안에서 내적으로 일어난 일의 외적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순교자는 이미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 완전히 바쳤고 성령에 의하여 온전히 소멸된 자들이다. 이것이 순교자에 대한 진정한 표현인 것이다.

공급 - 어느 날 우리는 재정적으로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였는데 우리 집 소파에 앉아서 내가 말했다: “지인, 돈이 다 떨어져서 직원들에게 봉급을 줄 수 가 없으니 문을 닫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둘이 서서, 손을 잡고 “주님, 우리가 일건이 있어야 되겠고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그때가 7 시경이었는데 우리는 가게까지 걸어갔다. 우리가 문으로 들어간 순간에 전화가 울렸고 이전에 한번도 우리와 거래가 없던 외국인이었는데 우리에게 전화로 어떤 부품을 찾았다. 우리에게 그 부품이 있었고 그는 그 다음날 돈을 부쳐왔다.

공급 - 또 다른 때 우리가 약 일년 반동안 극도로 일건도 없고 재정도 바닥이 났었을 때였는데 주님께서 “너의 똥단배에 바람이 없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께서 의미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가 우리를 위해 정확하게 공급해 오셨고 가게가 지속되게 하신 분도 그분이었는데 약 4 개월후에 그가 다시 말씀하셨다: “시기가 끝났다”. 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 이래로 우리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었다. 그것은 나에게 어떻게 주께서 우리 재정을 정확하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준다.

너의 온 힘을 다해 나를 찾으라 - 내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온 힘을 다해 나를 찾으라”

외로움 - 내가 외롭고 나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주님의 달콤하신 영이 나에게 오시어 나를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우셨고 나에게 성경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 “나는 마음이 상한 자와 통회하는 심령과 함께 한다”. 요즈음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그것은 나에게 주님께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되고 내 눈을 육적인 것에서 떼어 원래 내 눈이 소속된 주님께로 되돌린다. 그럴 때 기쁨이 내 마음에 찬다.

열등감 - 한번은 내가 너무 열등감을 느껴서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 감정을 감춰놓았던 적이 있었다.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셨고 나를 만지셨다. 나는 그분의 임재와 나에게 기쁨을 부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온 몸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그분이 나로부터 이 모든 감정들을 빼내주셨고 나를 온전히 승리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 한 가지 내가 배운 사실은: 우리가 더 없어질수록, 예수께서 더 많이 오신다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말씀중의 하나가 시편 18 편인데 다윗이 그분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으신다는 구절이다.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연기가 그의 콧구멍에서 나오며, 그가 바람 날개를 타고 날으시며 하늘들에서 천둥을 발하셨고 그를 많은 물들가운데서 건져 내셨다. 내가 여러번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하시다. 그가 그이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의 길에 아무 것도 설 수 없다. 우리의 깨어지 심령은 하나님께 자석같은 역할을 하며, 그는 들으실 수 있으시며 그것을 거절치 않으실 것이다.

예배 - 나는 침대에 누워 경배하기 시작했다. 예배가 점점 심화되면서 나는 온 힘을 다해 예배하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열린 것같이 나는 너무 놀라우시고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뵈었는데 나는 그분을 경배할 힘이 다 빠졌다. 그때 내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이 육적인 몸에만 제한받지 않고 예배드릴 천국에 있을 날을 눈이 빠지게 기대합니다”.

1994 사람 – 이 간증이 내게는 아주 특별하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기 때문이다: 하루는 내 자신이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하루 온 종일 아무도 보거나 듣지 않고 그저 혼자있었다. 나는 우울했고 심지어 절망감까지 느끼면서 나는 온종일 주님을 구하고 있었다. 그 다음날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나는 아무도 보거나 듣지 않고 나 혼자 있었다. 아직도 나는 우울했고 종일 주님을 찾았다. 또 그 다음날도 외부의 누구와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나 혼자였으나 그날은 조금 기분이 나아졌다. 갑자기 성령께서 내 안에 차오르시면서 그분의 임재로 나를 채우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봐라 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자나”**. 나는 기뻐고, 온전했으며 내 삶에 소망이 다시 찾아왔다. 나는 알았다: 예수께서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보다 누구보다 더 충분하시며 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2015 십일월 – 내가 보통은 예배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한 날 나는 “오늘은 아니야. 나는 그저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원치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겠다”**. 그것은 나에게 주께서 그분을 나의 온 힘을 다해 쉬지 않고 경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굉장한 확인이었고 또한 그것을 ‘일’이라고 부르신 것에 깜짝 놀랐다. 마치 로마서 12:1 에서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예배니라’ 하신 것처럼.

2015 – 더 깊이 나아가기. 내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발걸음을 내어놓기 원하시는데 내 생각이 장벽을 침으로(여러번 이런 일이 있었다) 불순종하여 그분을 정말 근심시켜 드렸다고 느꼈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그것을 돌파하게 할 것이다”**. 그분은 나의 생각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다; 그가 나에게 그를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며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나의 갈망이 나의 순종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나의 생각의 장벽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안에는 언제나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순종과 믿음의 행보의 결과는 이것이다: 주께서 나의 속박을 깨뜨리신다.

가시 면류관 – 예수께서 나에게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때 그의 머리에 쓰셨던 가시 면류관을 보여 주셨다. 그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 흘리셨다. 그분이 이것을 보이셨을 때 나는 그냥 그 가시들이 나 자신의 생각속으로 찌르고 들어와 그 신선한 피가 내 생각을 통과하기를 원했다. 예수의 피.

와서 먹으라 – 어느 날 나는 가게 바깥 뜰에 앉았다. 아주 평화롭고 조용한데 주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자 그가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채워진 잔치 상같은 것을 보이시면서 한 100 보 떨어진 곳에서 말씀하셨다: **“여기 와서 먹으렴”**. 나는 그분이 나를 먹여 주시려고 이쪽으로 오시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일어나서 잔치상이 있는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를 향한 주님의 절차는 내가 그의 나라로 다가가려면, 내가 들어가서 취하여야 하는 이치와 같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고 다 이루어 놓으셨다.

2016. 11. 21 – 주께서 나의 눈을 여사 모든 사람의 영혼이 시간이 걸려 성숙한다는 것을 보게 하셨다. 마치 몸이 성숙하면서 노화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성숙하고, 승리를 배우고, 변화를 받으며 주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영이 되어간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텔레비전으로부터의 해방- 내가 소파에 앉아서 즐겨보는 쇼를 보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던지시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텔레비 보는게 더 좋으냐 아님 내 얼굴을 구하는게 더 낫냐?”고 물어보시는걸 느꼈다. 처음에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이 계속됐다. 결국 나는 일어나서 텔레비를 끄고, 소파로 돌아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았다. 그 순간에 주께서 나를 텔레비전에서 해방시키셨고 이제 30년 전일이지만 다시는 티비를 보지 않았다. 이제는 티비가 켜져 있는 곳에 들어가면, 그것이 싫어서 그냥 거기서 나와 버린다.

치유 - 얼마전에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감지되는 작은 문제들에 대하여 염려가 되기 시작했다. 나는 이 문제로 주께 구했는데 “내가 너의 몸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셨다. 나는 그 이후로 100% 건강에 대한 평강을 갖게 됐다. 성령께서 내 몸을 통괄하신다는 것 뿐 아니라, 이미 이것에 대하여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삶속에 직접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현실을 살아내기 시작한다.

우상으로부터의 자유 - 주 예수께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쓰게하는 우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셨다: 주께서 마치 한 나무인 것 같아 보이지만, 두 갈래 줄기가 함께 자라서 하나로 엮여져 있는 두개의 쌍둥이 식물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주님이 그 두 나무를 따로 떼어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는 바이올린이고 다른 하나는 너인데 나는 그것을 완전히 분리시킬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승리 - 우리는 가계에 어려움이 아주 많았는데 하루는 내가 집으로 걸어가는 중에 성령께서 갑자기 나의 존재속에 기쁨을 통째로 부어주셨다. 나는 ‘주님, 제가 지금 신경쇠약에 걸릴지경인걸 모르시나요? 왜 제게 기쁨을 주시는거예요’. 나는 거의 기쁨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주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사시는 것과 그가 우리를 그가 사시는 그 차원속으로 이끌어주셔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기쁨을 갖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승리 - 그와 거의 같은 시기에 나는 소파에 앉아있었는데, 너무 피곤함을 느꼈고 가게로 돌아가기 전에 잠깐 누워있고 싶었다. 내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주 예수께서 바로 그 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누워 주무시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그가 배안에서 주무셨던 것처럼, 나는 그분이 뭔가 둘둘 말린 밧줄더미위에 누으신걸 보았다. 제자들이 폭풍이 두려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려 했었는데, 나에게 “내가 자고 있는동안 너도 나와 함께 자려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폭풍이 일고 있는동안, 제자들처럼 폭풍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기절초풍하는 대신, 그와 함께 자면서 평강을 누리라고 초청하시는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고, 폭쉬었고 마침 돌아가려는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기위해 우리 집에 차를 댄 그 사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의 해결책이었고 모든 일이 다 잘 처리됐다. 그는 우리가 일년에 보통 한 두번 보는 사람이었다.

2015. 시월 - 내가 이 원본을 편집하다가 문장들을 몇군데 다시 고쳐쓰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가 일하고 있던 책상 맞은편에 서계신 것을 느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매뉴얼은 내 것이니 고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라”. 나는 즉시 뒤로 물러났고 원본 그대로 보유하려고 최소한의 수정만 했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2016. 11.25 – 내가 이 책 작업에 많은 시간을 들여 거의 마무리져 가면서, 나에게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과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에 지속적으로 다가가며 내가 그의 귀중한 보혈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용서함 받았음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 습관화 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예수님안에는 패배가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떤 패배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는다. 맞다, 나는 나에게 힘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각자마다 다 그들 자신의 개인 간증들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이롭도록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 나는 나의 간증들을 적는게 상당히 감동적임을 발견한다. 만일 당신이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 당신 자신의 것들을 써보도록 하라. 당신은 영감과 격려를 받게 될 것이며, ‘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그 분이 정말로 나를 보시고 아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 매뉴얼을 읽다가 간증거리가 생겼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은 웹사이트에 올려질 것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제 5 장: 3 단계,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에 들어가는 준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면서, 아직도 당신이 자신의 삶을 끌여가고 있다면 당신은 종교의 영과 인간의 선한 방법들과 성경의 해석과 인간적인 이론들에 묶여 있는 것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나와 당신의 영적 사람을 세우고자 해야 한다.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이며 당신으로하여금 4 단계로 들어가도록 적격하게 하여 삶의 주도권을 주 예수께 드리도록 만들어 준다.

당신이 7, 6, 5 와 4 단계들을 갈망하는데, 그 단계들로 들어갈 수가 없다면, 이 단계가 당신을 준비시켜 줄 것이다.

당신이 이 장에서 말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멈추고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안에서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다시 당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잠시동안 그곳에서 거하라. 땅에 있는 천국의 기적은 실제이며 그것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듣고, 보고 이해할 때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과 머리가 통합된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삶의 기적이다.

1. 하나님이 하나님되신다는 것을 관계를 통하여 아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의 마음으로 받아야만 하며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을 받아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하여 40 년간을 광야에 있었고, 그가 부르심을 받고 가서 하나님의 히브리 자손들에게 대변인이 되기 이전에 먼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를 배워야 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과업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의 생각에 힘들다는 것을 통하여 그를 준비시키셨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히브리 자손들의 외침)

저자의 계시: 모세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과 ‘그의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비하고 나갔고 애굽을 대처할 수 있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사는 지를 지도하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했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공급자되시며, 보호자와 건지시는 자이심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질문: 당신은 어느 쪽에 서있는가? 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안에 걷는 삶을 살기로 헌신하였다. 그것은 참 좋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당신이 한 곳에(애굽) 발을 붙이고 있으면서 다른 곳(약속의 땅)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신이 내일과 또 장래를 위하여 변화받으려고 현실이라고 알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거에 대하여 죽어야만 한다.

당신이 신학적인 이해나 교육적인 사고를 가지고 “땅에 임한 천국에서 살기”를 머리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냥 종교에 대한 논리적 사고와 세상적인 논리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이 안내서의 겉내용만 이해하고 받게 될 뿐일 것이다. 종교적인 논리는 당신을 문바깥까지만 가게 한다. 그러나 오늘과 영원토록 당신을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으로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말이다. 머리(사고) 교육은 당신은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당신을 문 바깥까지만 데려갈 뿐이며, 오늘과 또 아마도 영원히 바깥에만 있도록 한다. 당신이 진실로 어디에 있는지 자신을 들여다보며 정직해 지라!

교육 제도들은 밑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지만, 그리스도는 과거로부터 시작하셔서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 그분은 과거와 현재를 그의 기적의 보혈을 통해 제로로 없애신다. 그리고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이 당신을 성령님과 관계를 갖을 수 있게 만드신다.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이제 당신은 주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수용할 수 있고, 성령께 들을 수 있게 되며 순종하고자 하는 새 마음을 갖고 주 예수께서 “내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하신 것처럼 된다. 그럴 때 당신은 먼저 당신안에서 다스리면서 그 다음 당신 바깥에서 이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2. 인간이 만든 생각들로 세워진 신념 체계들: 포기하라!

당신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마음안에 빛이 비추도록 하고 나서 그 다음 당신의 사고안에 비침을 받도록 하여 자신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육적, 영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인 상상력까지를 의미한다. 성경은 현재보다 과거가 더 위대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한다. 거기에는 신념 체계까지도 포함된다. 주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도다”고 말씀하셨다.
-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당신의 신념 체계는 당신의 눈, 귀, 사고, 세상적 지식과 상상력을 통해 형성된다. 아니면 믿음을 부어주시는 성령으로부터의 계시로 형성되는데, 그것은 기적으로 알아지는 것이지 신념 체계가 아니다. 기적적인 앎은 현실이다.
- 그래서 모든 이방 신념들, 세상적인 믿음들이나 어떤 종류의 귀신들(귀신들은 주 예수의 보혈안에서 사라진다)이나 심지어 천사들이라도 그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 상상이다. 귀신들이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 떠난다는 것을 이해하라. 그저 당신의 머리속에 들어가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파하라. 그리하면 당신의 사고는 과거와 상상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 d. 천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성령님과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있음을 이해하라. 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는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성령이 그들의 안내자, 구속자, 보호자, 치료자, 공급자 이시다.
- e. 오직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만이 이 시간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과 있을 수 있다. 당신의 당신을 향한 성령의 뜻과 방법들을 받을 때에야, 당신은 오늘 인격이신 성령 안에서 주 예수 안에 장악된다. 그 의미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면 또 오실 때에, 당신이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을 받았고 또 순종하고자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의 나라 안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당신이 성령께서 당신이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얻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다. 당신은 이미 충만하다. 그러므로 왜 당신이 미래를 찾아 구하겠는가. 당신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부족할 때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당신이 순종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오늘 땅에 임한 주 예수의 천국의 결과들을 받는 것이 부족할 때에 장래를 바라보게 된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이 땅의 것에 둘 때의 결과이다. 당신의 생각을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성령께 두라.
- f.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위하여 발견해야 할 것이다. 모든 비침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 g.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휴거에 대해서나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종말론에 대하여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이해하라. 중요한 것은 주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견도록 하신 충만함 가운데서 걸으며 십자가 위에서 그의 기적의 보혈을 주시고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으신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나의 깨달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의 기적의 피에 온전히 순복하며 “예스”하는 순간 눈 깜빡할 찰나에 나의 영이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 이제 나는 매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믿음의 기초들로 시작하기와 몇가지 믿음의 원칙들을 이해하기

우리가 지향하는 바: 믿음 안에서 경험하기, 받기, 견고 머물기

- a. 히브리서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 b.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나에게는 천국 안의 영생은 없다.
- c. 내가 영생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오늘날 내가 마땅히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견지 못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대적하든지”.
- d.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주권적이며 주 예수는 모든 것에 해결책이시고, 내에게 만일 매일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문제들과 시험들과 유혹들이 있고, 매일 해결책이 없이 그저 오늘 하루를 간신히 넘기는 식으로 산다면, 나는 그것을 놓쳤다고 말하겠다. 나는 정직해질 필요가 있고 내가 그것을 갖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 e. 내가 올려다 보거나 바라보는 사람도 다 내가 있는 똑같은 곳에 있다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정직해 져야 한다**. 그것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성령으로부터 확고한 방향을 제시받아 앞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f. 로마서 10:17,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인격적인 (성령)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기적이다.
- g. 그리고 그 다음 기적은, 당신의 존재속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변화로 붙잡아 히브리서 11:1 말씀처럼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 h. 내가 성령의 계시를 받고 이 안내서를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해하고 난 후에는 아래 질문들을 모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믿음에 대한 마음의 이해는 무엇인가? _____

나의 믿음에 대한 사고의 이해는 무엇인가? _____

나는 믿음을 어떻게 얻는가? _____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걷는가? _____

언제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며 믿음이 내안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서 계속 실체화되는가? _____

믿음의 증거와 실체화는 무엇인가? _____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언제 아는가? _____

4. 당신은 주 예수그리스도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자아에게 종말을 고하기

- a. 이해하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에게 자아의 종말을 고해야 할 것이며, 십자가에서 그의 기적의 피, 부활과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시고 가능케 하신 주 예수님과 그의 관계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 b. 당신은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원한다고 결정했고 이제 당신의 인생에 육적인 과정을 중단하고 자유해 지겠다고 결단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할 것이며 이제 당신의 새로운 삶속에 다음 단계를 위하여 성령께 듣게 될 것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c. 당신은 당신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해보았지만 역사하지 않았다. 끝까지 다 왔는데 아무 것도 효력이 없었다. 이제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아가 죽어야만 하는 단계에 있다. 당신은 당신의 사고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던 모든 것과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포기한다. 보라, 당신은 막 죽었다.

d.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열고 주 예수께서 당신의 삶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주와 구주가 되시도록 요청하라: ‘주님, 나를 당신의 기적의 피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다 이루었다”의 시작이다.

5.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쥐버리지 말라

이사야서 39:1-6: ‘왕이 바빌론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니라’

- a. 성령님의 승인없이 누군가에게 당신의 간증을 주지 말라.
- b. 당신이 성령께서 하도록 감동하시지 않는데도 간증이나 기적을 나누고 당신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당신이 쥐버린 것은 당신안에서 생명을 잃고 녹아버릴 수도 있으며 당신에게서 떠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녹여버린 것은, 일전에 당신이 가졌었던 것이 결핍되게 만든다.
- c. 주 예수님과 성령께서 말씀하시듯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기적들을, 진리를 알고 싶어 하거나 굶주려 하지도 않는 적합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지 말라.
- d. 성령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진주를 주라고 말씀하실 때 하면, 그것은 당신안에서 또 다를 사람안에서도 배가된다.

6. 존재와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육신적인 존재를 지탱하기 위하여 사느라고 너무 절박해지는 것에서 당신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 a. 나의 간증 26 번에 있는 나의 꿈을 읽으십시오. 나는 2015 년 시월 15 일 꿈을 꾸었는데 아주 최고급 식당에서...
- b. 사람이 참 진리에 대하여 절실해지고 민감해지면: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할 것이며, 그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참 진리를 그들의 마음속에 원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해 열어 주실 것이다.

7. 참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고 또한 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에 대한 심판도 있다.

육과 어두움이 멀어져진 것은 현실이다. 육과 어두움은 절대로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에서 존재할 수 없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 a. 주 예수께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해결책, 인간의 해결책(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원수야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나라에는 인간의 방법이 없다. 오직 하늘 나라안으로 변화되는 것만이 통찰력과 지식, 주예수의 나라의 능력을 갖게 한다.

- b. 주 예수께서 산 꼭대기에 계실 때 “기록되었으되” 라고 선포하셨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기록되었으되”로 원수를 포함한 온 세상에 선포하실 기회를 만드셨고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되”를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땅에 임한 하늘 나라가 이제 세상 나라를 장악하셨음을 외치셨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이시면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의해 시험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된다. 더우기 주 예수의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다른 나라들은 굴복해야 하며 예수의 땅에 임한 하늘의 왕국안에서 그들은 아무런 권세가 없다.

- c. 무덤가에서 마귀들에게 사로잡혔던 남자안에 어두움이 진술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라고 하였다. 그리고 애걸하기를, ‘우리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마태복음 8:29-31, 마가복음 4:7-13). 그리고 마가복음 1:23-26 에서는 어두움이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이런 식으로 혐의가 되었고 결론은: 어두움이 주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패배당했고 모든 능력을 발가벗김을 당했다’.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실 때에 그의 음성은 오늘날의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성령의 음성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제 6 장: 2 단계, 당신은 하나님을 지금 가진 것보다 더욱 갈망한다: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삶을 맡기는 전제 조건

당신은 옳고 그름에 대한 자각이 있고 당신을 정당화시키는 법에 의하여 살려고 노력한다.

1. 적격성을 부여받는 단계들

드디어, 당신의 삶의 첫날이 시작된다.

-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구하라, 하나님께서 ‘내앞에 죄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이 주 예수의 보혈로 덮였을 때는 하나님이 그의 보혈을 통해 당신을 보실 것이다.
-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함 받기를 간구하며 매일 지속적으로 회개하라.
- 성령께서 당신에게 대화해 주시고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라.
-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해 영적인 세례를 주시기를 구하라.

2. 땅에 임한 하늘 나라에 당신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인가?

- 교만 – 모든 일에 하나님,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 성령의 뜻과 방법들이 필요없다면
- 교육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당신에게 더 나은 삶의 제공하며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영생이란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것.
- 성경안에 인간의 방법들로, 즉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당신을 천국가게 한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
- 지금 세상을 즐기고 영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찾아보리라 생각하는 것.
-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고, 무엇이든간에 나의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안다고 생각하기.
- 나는 좋은 사람이고, 선한 일을 하고, 교회가고, 올바른 일들을 행하고, 성경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그것에 의해 살고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고 변화를 받지 못한다. 당신은 그저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을 알 뿐 대부분은 그냥 스쳐지나고, 당신이 교회 갔었다라는 것과 착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기분이 좋고 정당화 시킨다. 때로 당신은 성경도 읽는다. 마태복음 13:1-4, 19-21 을 읽으라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 h.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도록 허락하지 않고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로 씻음을 통하여 성령과 진리 가운데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하시도록 하지 않으며, 단단한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것들이 절대라고 믿는다. (마태복음 13:5, 20-21).
- i. 내가 모든 옳은 일을 행하려고 애쓰며 열심히 일하고, 나의 고지서들을 내고 내 머리는 계속 붕 뜨게 한다 (마태복음 13:7, 22).
- j. 나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굽주려 본 적이 없다.
- k. 아니면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타협하거나 그냥 냉담한 상태로 있다.
- l. 만약 당신이 예수의 기적의 보혈 외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더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주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당신의 눈이 뜨이게 됐고 당신의 삶에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받기 원한다면 이제 마음에서부터 선포하라: “주 예수님, 당신의 기적의 보혈로 나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제 7 장: 1 단계, 당신은 당신 삶에 현재 가진 것 보다 무엇인가 더 갈망한다: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거나 혹은 믿지 않는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덤든지 차든지 하라, 네가 것처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겠노라’

당신이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인가 더 원한다고 느끼면,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그를 그의 방법으로 알게 하시기를 허락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신다.

1. 당신이 미지근하다면 삼단계를 참조하여 보라.
2. 당신이 무관심하다면, 당신은 자신의 손에 있고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당신이다. 당신은 그냥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인생에는 당신에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후세계가 있다.
3. 당신이 차갑다면, 당신의 코앞에 직접 나타나지 않으면 당신은 쳐다보지도 믿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당신을 위한 해결책도 가지고 계시다.
4. 당신이 읽어왔던 이것을 갈망하고, 이것이 참되고 기적을 낳게 하는 것을 보고,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시며 당신의 귀를 여시는 것을 이해하면, 이제 당신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열어드리라.
5. 당신이 해야 할 것은 그저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할 수 있는 한 당신의 마음을 열어 이렇게 말씀드리라: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당신의 기적의 보혈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부르시는)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당신께로부터 오는 새 생명으로 시작하게 하시며 내 모든 평생동안 나를 바른 길가로 돌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 후 당신의 손을 이마에 얹고 말하라: “주 예수님, 당신의 기적의 보혈로 제 생각을 덮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생각에 평강이 온다고 느낄 때까지 두어번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당신의 기적의 보혈을 제 마음에 뿌립니다”라고 마음과 사고와 삶에 변화를 느낄 때까지 반복할 수 있다.
6. 날마다 당신이 어제와 오늘 행했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이 순간부터 성령님께 순복하는 것에 대하여 더 잘 하도록 하라.
7. 당신은 성령께서 누구에게 말하라고 하시기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것보다 더 말하지 말라.
8. 당신의 마음을 계속 열어놓고 이 안내서를 다시 읽으며 당신에게 주어질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질문에 답하도록 하라.
9. 이 안내서의 학습 교재에 당신의 일기를 지속적으로 적도록 하라.
10. 당신 자신의 삶을 보면서 주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혹은 당신과 함께 하셨거나 거기 계셨던 순간이 있었는지 기억하도록 해보라.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11. 당신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거나 심지어는 그가 존재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그가 존재는 하셔도 나나 당신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기에, 당신의 삶을 자기자신의 생각대로 최선을 다해 살려 하면서 혼자 서있다.
12. 이 모든 것속에서 당신이 존재해야할 이유를 찾고 싶어하며, 진실로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찾으라 네가 찾을 것이요”. 그분은 당신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다!
13. 주 예수 또는 성령께서 자신을 당신에게 계시하실 때 그것은 당신에게 완전히 그의 공화로 인한 기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누구를 무엇을 어디서 구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제 8 장: 하나님 없이 존재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과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위조하려 하는 인간의 투쟁

이 세상 제도에 대한 저자의 깨달음:

1. 하나님의 방법들이 세상적인 조작을 뛰어넘을 때

영국 탈퇴(브렉시트) 76 페이지 54 번.

다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62 페이지 12 번

당신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셨던 것처럼, 당신의 모든 삶에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받아들이므로 인하여 자신을 합당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 항상 승리하며 살게 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성령님에 의하여 들으며 순복하고, 움직이고 받는 것을 지속하게 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찌어다”.

2.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삶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창조되고 재생될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실 수 있다.

- a. 인간은 생명을 만들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시도할 때 결과들은: 소위 그들이 완벽한 방법들이라고 부르는 가짜들이 나오고 그 가짜들을 가지고 인간이 모든 영광을 받는다.
- b. 그것은 생명이 없는(사망)을 초래하며, 소위 인본주의적인 자유라고 부르지만 거짓이다.
- c. 하나님의 방법들이 그들이 살았다고 착각하는 인간에 의하여 위조되어지나,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길들을 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타락한 본성속에서 그저 존속하는 것일 뿐이다.
- d.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시도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위조하려는 노력을 자행할 것이다.

3.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영광을 받기를 요구한다”고 말씀하시기에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만 하는데도,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자신들이 영광을 받는다.

- a. 재정: 사람들은 자신들을 충족시키려고 경제를 조작하므로,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안식일만 빼고는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어 살거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을 받을 필요가 없게 한다. 오늘 날 우리에게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는 회개가 있고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받게 하는 것이 있다. 나는 성령의 음성으로부터 받고 행한다.
- b.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만들어내는 개별적인 제도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과 통제를 하게 된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 c. 사람들과 그들의 발명들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 d. 그들의 제도안에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어지면, 시스템의 연계 밖에서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나, 그들의 제도를 벗어난 동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조종된 로봇의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치부한다.
- e. 인간이 사람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을 행하는 양심을 가지고 창조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라

4. 과거에 인간이 스스로 하려고 시도하다가 나타난 결과들:

바벨과 하늘까지 닿아보려는 인간의 시도	유대 지도자들이 주후 70 년에 붙들고 있었던 종교 제도
노아의 때에 있던 홍수	소위 제국이라 불린 로마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1929 년의 증권 시장
모세와 애굽의 군대	세계 제 2 차 대전

5. 인간에 의해서 영광을 받는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무너져야 하거나,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관점안에 놓여져야 하는 것을 이해하라.

민주당	공급제도	의료제도	항공제도	금융제도
유럽공동체	환경제도	보안제도	중동	중동 영광
경제제도				

레마의 지식과 지혜를 위한 교육은 모든 이들을 위해 열려져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성령과 진리를 향해 열어놓으면 당신의 귀와 눈이 따르게 됩니다.

www.openheavenworshipcenter.com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제 9 장: 내가 찾은 실체화된 내 개인의 신앙 여정

1. **먼저** – 나의 손을 나의 머리에 얹고 먼저는 내 마음으로 그 다음 나의 입으로 고백한다: ‘주 예수님, 당신의 기적의 보혈을 제 마음에 두소서’. 그리고 나의 손을 가슴에 얹고: ‘주 예수님의 기적의 보혈을 저의 마음안에 두소서’. 그리고 또 더 깊이 나아가 구한다: ‘주 예수님, 당신의 생각을 제 생각안에, 당신의 마음을 제 마음안에 두소서’.
2.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평강** –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임재에 순복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 안에서 나의 전부를 느긋하게 만들어준다. 그럴때 나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의 기적을 받게 된다.
3.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 이 상태에서는 내 생각은 정지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적인 마음과 얼굴을 맞대면 한다는 것을 안다. 여기에는 곤함이 없고 나는 자신과 이 세상으로부터 비어진 상태다. 그러면 나는 땅에 임한 하늘 나라 안에 있는 평강의 충만함을 받는다,
4.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가야만 한다: 그리고**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한다. – 성령, 진리와 사랑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데 주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 하셨듯이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땅에 임한 하늘 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당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사랑, 가짜 사랑이다.
5. **성령님과 자신에게 정직하라** – 몇년 전에, 내가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니, 좋지 않았는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언제 나를 좋아한 적이 있었지?” 내가 일학년일 때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했는데 주께서 나에게 2학년일 때 사로잡힌 바 된 것을 보여주셨다. 나는 그 영에게 말했다: “나는 네가 떠나가기를 명령한다”. 그랬더니 그것이 떠났다.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 내게 들어왔고 나의 삶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6. **땅에 임한 천국은 평강. 다른 모든 것들은 가짜다** – 2016 년 9 월 28 일. 주께서 나에게 할리 데이비스 오토바이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오토바이에 특정 개인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 누구를 위하여 할리 데이비스 제작함이라는 판을 부쳐서 특수 제작할 수 있단다”. 나는 그게 멋지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주께서 “내 평강의 위조품이라고 하시며,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이 가짜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만을 사모한다.

저자의 이해: 나는 이제 세상적인 평강을 얻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하늘의 평강은 땅의 평강과는 180 도 다르다. 하늘의 평강을 받는 것은 기적을 요하지만,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안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7.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너희의 선생이시고, 너희는 다 형제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구약에서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 그러나 마태복음 23 장 8 에서, 주 예수께서 “누구도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주께서 “내가 너희의 스승이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에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또 요한복음 14:26 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말씀하셨다. 그분이 당신을 모든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할 것이다. 이제 나에게는 나를 깨닫게 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는 성령이 계시다. 그러므로 지금과 후에도 나는 성령님앞에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 성령께서 감동하신 방법들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든 아이디어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깨달음을 반대하여 오는 그 어떤 것들 또 성령의 깨달음을 놓치게 하는 것들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8.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나를 위한 믿음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관계이다.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과 맺는 관계이다.
9. 나는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안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른 동기(그것은 단순히 두려움이다)를 점검한다.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다른 동기들을 품고 있다. 내가 이런 다른 동기를 의식하고 그것에 연관된 두려움을 인지함으로 이것을 뛰어 넘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인간이 살도록 조명해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안에서 있게 된다. 그렇게되면 나는 천국의 안목을 가지고 실현화되는 하나님의 관점안에서 살게 된다. 성경에서 “네가 필요할 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 말들을 주리라” 하시듯이.
10. 하나님은 주권적이며, 그것은 하나님안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예: 내 손이 아프기 시작했고 나는 “주 예수님, 당신의 기적의 보혈”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나의 다른 손을 아픈 손에 얹고 말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나의 공급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며 당신안에는 시간이라는게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분의 지배권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주권을 변화시킬 시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 ‘내가 네안에, 네가 내안에’처럼, 물질을 통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곳 이곳이 땅에 있는 천국이 된다.
11.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가는가 - 나는 내 손을 이마에 대고 이렇게 말한다: “주 예수님 당신의 기적의 보혈을 저의 생각속에 둡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의식적으로 4 단계와 5 단계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평강을 받는다.

나는 내 마음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 나는 내 손을 나의 가슴에 얹고 동일하게 말한다: “주 예수님, 당신의 기적의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보혈을 제 마음안에 둡니다”. 의식적으로 내 마음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며 4 단계와 5 단계안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나는 모든 일에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를 받는다.

더 깊이 예배하기 – 이곳이 하늘이 열리고 내가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다.

기적의 해결책을 위해 더 깊이 더 높이 가기 – 치유와 같은 변화가 필요할 때는,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자아로부터 나와서, 회개하고 더 깊이 더 높이 하늘을 만나는 문인 내 마음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저는 주 예수님의 기적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 기적을 위한 해결책이 있는 단계로 나아갈 때까지 현재 내가 있는 단계보다 더욱 깊이 들어간다.

육단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는 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낮게 했던 사람들 앞에서 사신 것을 말한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보여진다. 나 역시 항상 그안에서 살려고 노력한다:

- a. “온 마음과 생각과 몸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 b. “나는 오직 나의 아버지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을 한다”.
- c. “나는 당신께서 제가 당신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행하실 것을 압니다”.
- d. “내가 당신안에 당신은 제 안에”, 당신은 아버지와 성령님과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지칭한다.

참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는 영원한 천국안에서 사는 삶의 시작점일 뿐이다.

- 12. 땅에 임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기적의 문은: 내가 더욱 깊이 깊이 더 높이 높이 들어갈 때 어느 때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주께서 나의 마음이 있으라고 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다. 이 하늘의 실재는 더 깊은 마음의 문제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그러나 내가 그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이동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 들어가게 보여주시고 하늘의 현실에 머물게 하시는 기적은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이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나, 하나님은 기적을 선포하신다.
- 13. **방언 말하기가 나를 통하여 올 때** – 성령께서 나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순복하고 온전히 다 마칠 때까지 따라 한다.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거나 혹은 성령이 하늘의 관점으로 이 세상가운데 무엇인가 존재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꼭 통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주도해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다.
- 14.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에 대한 지식은 지구상에 있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 15. 성경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말씀한다, 나는 항상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생명을 가지신 성령께 민감함속에 머물며 순복하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너의 마음으로부터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것같이. 그것은 내가 땅에 임한 성령의 왕국안에서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성령님께 굴복하는 것이다. 내가 나의 마음으로 가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나 마음가운데 지시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바를 수용하고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에 복종케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계시와 방향성과 변화가 내안에 일어난다. 이것이 내가 레마라고 부르는 한 국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은 나의 영적인 이해로는 하나님과 주 예수님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나 간혹 육성으로 들려지기도 한다. 레마는 그것이 닿는 것마다 변혁시킨다.

16. 나는 모든 문제들을 제거시킨다 – 내가 바닥을 치는데까지 내려가 아무런 해결책이나 방향성도 없는 곳에 이르러서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찌어다’를 경험하는 곳으로 들어가 받는다. 그때에 내 마음안에서 모든 문제가 승리안에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받고, 전환이 일어나며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을 느낀다. 나는 진짜로 알게 된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그곳에 머물게 된다.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내가 주 예수께 순복함으로 나머지 것들이 다 해결된다. 이것이 좋은 것이며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에서 사는 것이다.
17. 2017 년 1 월 19 일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레마 안내서와 찬양 집은 함께 간다. 그래서 나는 땅에 임한 하늘 나라와 당신의 온 맘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란히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18. 몇 년 전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하비는 나의 수도다”. 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발견하려고 머물고 있는 중이다.
19. 2017 년 1 월 9 일에 나는 한 밤중에 완전히 잠이 깨어 회사와 은행에 있는 돈, 우리 소유의 집과 끝나쳐야 할 프로젝트들에 대한 생각들로 머리에 차서, 앞방으로 나가 이 안내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6, 5, 4 단계를 읽을 때 내 마음으로 이해가 되면서, 한 순간에 내가 땅에 임한 하늘 나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땅쪽에서는 지불될 청구서들과 문제들, 프로젝트들과 미지의 문제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방금 들어간 땅에 임한 하늘나라 쪽에서는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직도 거기에서 머물고 있다.
20.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른 신들이나 죄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내 마음과 생각으로 성령의 길은 내 길이 아니며 내 방법들은 성령의 방법들이 아님을 이해한다. 내가 철저히 주님의 길을 절실히 구하지 않을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임의대로 스스로 하도록 만들거나, 혹은 내가 뭔가를 원하면 내게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온 마음과 몸과 혼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며 내 마음안에 다른 동기가 있다면, (마치 내가 게으르면서 주께서 나를 위해 공급하실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죄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나라안에 그의 길들을 만드시며, 그것은 전혀 우리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약 항상 넉넉히 이기는 자가 아니라면,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며, 아니면 내 삶안에 죄가 있는데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다른 이를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다. 만일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 자신의 꿈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세상적인 꿈을 위해 투자하거나 값을 치루게 될 것이다.

21. 2017 년 1 월 11 일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남자와 여자가 나로 인하여 완전해지도록 창조하였다”.

“침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며, 네가 나와 또 너의 배우자와 항상 함께 하는 온전한 장소다. 이것은 친밀함과 온전함과 성취하는 시간이다. 이것을 떠난 모든 다른 것들은 땅에 임한 하늘나라를 모방한 가짜이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침실안과 밖에 둔 오락물들이다.

22.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나를 지칭하여 말씀하셨다.

저자의 깨달음: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이라고 지칭하실 때, 대부분은 ‘나’ 즉 ‘자아’이다. 그렇기때문에 성경은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먼저 내 마음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각에서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러자 나에게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해주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나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날 땅에 임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안에 살게 된다.

23. 나는 모하비로 이사가기 전에 매주 성령께서 찾아 오시는 다섯개의 다른 교회들을 한 주간에 다 다녔다. 내가 모하비로 이사갔을 때 성령께 “제가 어디 교회를 갈까요?”라고 여쭙었더니, 성령께서 “내가 너를 직접 가르칠테니, 아무데도 가지 말라”고 하셨다. 성령님은 나에게 그분의 관계를 열어주셨고 나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찌어다’를 받았다. 오늘날 그것이 나의 피난처이고 내 삶에 기적들이 펼쳐진다. 성경에, 오늘 땅에 임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예: 그것은 마치 당신이 ‘A’학점을 받으려고 할 때와 같다. 당신이 초점을 맞춰서 확실히 안다할 때까지 집중하여, 시험을 보고 ‘A’학점을 탄다. 그런데 하나님께 관련하여서는, 당신은 자신을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에’ 맡기고 그것을 추구한다. 당신은 ‘A’를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배가시키셔서 ‘A’를 더 받도록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게 다른 점이다.

24. 이것이 진짜 그 길이다 – 2017 년 1 월 22 일에 꿈을 꾸었다. 한 여인이 계단을 걸어 올라갔는데 그 끝에 계단 참이 있었다. 벽 뒤쪽에서 소리가 났고 그 여인은 벽을 바로 통과하여 다른 것들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주 예수께서 그녀에게 “자 이제는 가야할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녀는 그 벽을 통과하여 다시 걸어서 돌아왔다. 그녀는 그렇게 층계로 돌아왔는데 나는 그녀가 계단을 걸어 내려가리라고 예측했다. 나는 영으로 위에서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과 벽들을 통과하여 걸어가는 것을 다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진짜 실재임을 알았다. 내가 꿈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이것이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되는거야’라고 말해주셨다. 그리고 알려주시기를, 두 세계에 아주 세미한 경계가 있음을 또 어떤 것에도 양면이 있음을 알려주셨다. 하나는 ‘땅에 임한 하늘 나라의 영이고 다른 것은 아니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예: 나는 일어나면 늘 실내화를 신는다. 그것들을 보지는 않았는데, 다른 신발들이 내 침대곁에 놓여 있었고 나는 그것들을 신었다. 거실에 나가니 내가 찾던 실내화가 거기에 있어서, 나는 먼저 신었던 것을 벗어놓고 그것을 신었다.

저자의 깨달음: ‘당신은 안에 있든지 아니면 안에 없든지 둘중 하나다’. ‘안에나 혹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는 ‘네가 생각만 했어도 그것은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의 선택에 따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라는 점을 이해하라.

25. **2017/2/11. 10 시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의 왕국안에서 살기 때문에 가난이 없다”.**

저자의 계시-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에 살 때에는 가난없이 살 수 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을 것이나”라고 요한복음 12:8 에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이 땅에 임한 하늘의 왕국안에서 살 때에 이 가난의 저주를 중단시키신다.

26. **땅에 임한 천국이 여기에 오늘 있으므로, 당신은 가난할 필요가 없다.** 주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는 성령님과 ‘듣고 순종하는’ 관계가 없는 자(교회가 포함될 수 있다)다.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가능한 수단들은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적과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로 돌아가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대로 행하지 않는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내가 땅에 임한 천국의 현실을 받아들이면 나의 사고로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27. 나는 마태복음 13 장의 씨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주께서 처음 세 종류의 씨들의 저주에 대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에 슬픔을 가지고 읽는다. 내가 마태복음 13:10-13 과 13 장 나머지부분과 아래에 여섯가지 면에 대하여 초점을 두면, 주 예수님과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면서 저주들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한다.

- a. 내 마음을 열고 세상에서 떠나 성령께서 나와 맺는 관계속에서 어떻게 나의 마음을 계속 열어 놓을 것인가
- b. 나의 눈을 열고 어떻게 성령께서 그분의 보시는 관점으로 나도 사물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 놓을 것인가
- c. 나의 영적으로 듣는 귀를 열어놓고, 어떻게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방향과 변화에 영적인 귀를 열어놓을 것인가
- d.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과 성령께서 나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지시해주시는 바를 다 행하며, 어떻게 이 땅에 사는 평생동안 성령께 지속적으로 순종할 것인가
- e. 내가 위에 있는 것들을 취득할 때 나타나는 결과인 성령과의 더욱 깊은 관계로부터 친밀한 기적들을 받게 되는 것
- f. 오늘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에서 행하는 것을 의식하며 주 예수께서 이천년 전에 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

28. 주 예수께서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다. 제 4 장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간증들은 그리스도안에서 우리 삶을 시작할 때 일어난다. 우리 삶의 나머지동안은 항상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삶을 사시도록 노력하며 순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 예수와 성령은 2,000 년 전에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던 베드로의 하나님이셨듯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배에서 자기 발 밑에 단단한 물위로 걸어 나오도록 영적인 확신을 받았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이 지상의 것들을 다 지배하도록 버터주는 모든 분자들을 다스리는 땅에 임한 천국안에서 행하고 있던 것이다.

29. 하나님은 태초부터 2000 년 전까지 변하지 않으셨다. 구약 성경에는 땅에 임한 천국의 경우들이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수없이 많이 나와 있다. 매번 히브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에게 복종하기를 사모할 때마다, 그들의 공급이 채워졌고, 그들의 원수들은 항상 패배당했으며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으며, 땅에 임한 천국안에, 그분의 임재안에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 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내 자신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한다. 나도 그와 같이 하면, 같은 결과를 받을 것이다. (구약에 나오는 땅에 임한 천국 이야기들을 읽으며 적어보면 당신의 눈이 열릴 것이다.)

30.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땅에 임한 천국의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 있고** 오늘날 당신도 당신의 삶에서 볼 수 있겠지만 나의 삶에서도 흡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성령께 민감하다면 땅에 임한 천국의 기적들을 받을 것이다.

- a. 초대교회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모든 제자들이 공급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죄가 없었고 그 당시엔 거의 실체화되었다. 치유가 일어났다. 사도행전 5 장.

저자의 이해 – 2000 년 전에 땅에 임한 하늘 나라가 현실이었는데 우리가 오늘날 그 가운데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위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더욱 기쁘시게 할지를 안다. 항상 회개하며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안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이며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에서 살고 다니는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

- b. 빌립이 어떻게 내시에게 주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해준 후에 옮기워졌는지를 보라. 사도행전 8:39

- c. 공급 – 바울이 영적으로 가르칠 때 사람들이 성령에 의하여 감동을 받고 변화되었고, 그들은 “땅에 임한 천국”의 기적들가운데 헌금을 바울에게 주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기근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먹이도록 가져다 주었다.

저자의 이해: 교회가 기근가운데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는 그들의 세상적인 생각들 때문이었다

- d. 스테반은 주님께서 그를 천국의 본향 집으로 데려가실 때 열린 천국을 보는 경험을 했다. 행.7:55, 56
저자의 이해: 스테반은 열정을 갖고 설교했다. 그런데 성령님 뒤에서 안한 가능성이 있음은 당신이 성령께 순종한다면 어떻게 돌에 맞을 수가 있겠는가. 당신은 승리하며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당신이 성령께 순종하면 주께서 당신을 그분의 방법으로 집에 부르시지 않는 한, 인간의 발밑에 있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 e. 치유 – 모든 치유들, 건져냄과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땅에 임한 천국안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의 삶속에 일어났다. (신약에 땅에 임한 하늘 나라에 대한 기사들을 더 읽고 기록해 보라. 당신의 눈이 열려질 것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나는 ‘주 예수님처럼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현실’과 ‘땅에 임한 천국을 이해하는 용해력’을 받기 시작한다.

31. 나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절대이신 것을 내 마음에서부터 이해하며 내가 이것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난 후에 나의 생각이 그것을 확증한다. 이것이 내가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삶으로의 출발점이며 문이다. 주 예수께서 그분의 머리를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그 구절에 나의 마음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는 사실에 내 눈이 열렸다. 하나님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쌍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천박한 인간적인 이해이다. 주 예수께서 왕의 궁전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생각하는 것 또한 이해를 잘 못한 것이다.
- a.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분은 그의 영광가운데 탄생하셨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신대로 그의 왕국안에, 건초속에 그분의 피조물들, 동물과 별들과 순진한 목자들이 그분께 사랑의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 누이시므로, 하나님이 이땅에 오심에 한 부분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인정되었으며, 그녀의 태속에서 잉태되도록 한 마리아의 손 외에는 어떤 인간의 손에 의해서도 타치되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무엇이든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비하면 열등하다!
- b. 하나님 자신이셨던, 주 예수께서 열두살이셨을 때,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서 전파하시듯이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 불리웠던 사람들의 사고를 변혁시키고 계셨다. 그것이 그들이 놀랐던 이유이다.
- c. 그리고 주 예수께서 다시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의가 이루어지게 하기위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직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주 예수안에 계신 하나님만 모든 의를 성취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선언의 첫 부분이였다.
- d. 그리고 또 다시 산위에서 광야에서 육체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모든 어둠과 모든 자들이 알아들도록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그 순간에 바로 드러났으며 이루어졌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 e.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은: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께서 물위를 걸으셨고 물이 그의 발아래 있을 때 이것을 선포하셨다. 동시에, 그분은 베드로에게도 주 예수께서 가지신 것처럼 땅위에서 동일한 통제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 f. 또, 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돌로 치고자 했을 때 군중들을 뚫고 초자연적으로 사라지셨다.
- g. 또 다시, 주 예수님이 도마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벽을 뚫고 걸어 들어가셨다.

32. 2/10/2017 성령께서 마태복음 13:22,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대하여 나에게 알려주셨다.

나에게 마음과 생각에 이해를 주셨던 계시는 이렇다: 왜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이 땅의 것에 대한 공급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있는지, 어떻게 창조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 받도록 얻어낼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위에 말한 것은 땅에 임한 천국 밖에 있으면서 완전히 세상에 잡혀 있는 결과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누군가에 앞서 공급받으려 하고 가능하면 더 받으려고 붙잡게 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결핍과 걱정이다. 만약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지 않으실 때, 그 이유는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대로 신뢰하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하는 관계를 성령님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나는 육적인 활동을 통하여 내가 혼자 스스로 다 하는 것을 통해 얻어내야만 한다. 이것이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13:22 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저주이다.

33. 이곳이 땅에 임한 천국이 실제로 작동하는 곳이므로 나는 위의 것들에 대하여 마음에서부터 회개한다:

나는 주 예수의 보혈을 받도록 간구하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을 받으며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안으로 들어간다. 외부적인 상황은 즉시로 바뀌지 않지만, 내 마음 내부에서는 ‘나는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는 자임’을 받는 역사가 작동되는 믿음을 받는다: 이때가 바로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있어야 될 올바른 곳이며, 성령께서 보시는대로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더욱 깊이 받는 곳이다. 그러면 나의 생각 역시 성령님의 길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 13:22 에서 말하는 저주를 끊는 방법이며 마태복음 13:23 를 받는데로 들어가는 길이다.

34. 나는 변화되고 있는 중이며, 기적들을 받고 내가 오늘 기대하는대로 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 안에서 이기는 자이다. 아주 미세한 선이며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민감함 때문에, 나는 주 예수님과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성령님과 하나님 자신과 거의 정신나간 것 같은 현실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 이 사랑의 역사는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현실이 아니라, 영안에서의 현실이다. 그럴때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성령께서 이 사랑의 역사를 물리적 세계와 기적들 안에서 실체가 되게 만드시며, 나는 이 사랑의 역사를 받게 된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35.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목하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을 가지고는 당신은 머리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고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된다. 그것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현실은 오직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성령께로부터 들음에서 나며 성령님의 소원들에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 올 것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창조되고 재생산되며, 건강한 삶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보존될 수 있다.

36. 하나님과 주 예수님과 성령님의 길들

- a.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지배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모든 영광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다.

저자의 계시: 내가 성령님의 알려주시는 바를 듣고 받는 것에 의해 성령의 임재에 몰두하게 될 때, 그리고 내가 그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들을 받고 보게 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속적으로 변화되면서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는 길에 있게 된다.

- b.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시하시고 기적들이 존재하도록 선언하신다.
- c. 내가 모든 과거, 현재와 현재의 모든 생각들과 성령께서 아직 나에게 비춰주시지 않으신 미래의 생각들까지도 다 포함하여 회개할 때, 주 예수께서 나에게 그분과 화목하게 되도록 해주셨다.
- d. 그러면 나는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안에서 변화됨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살기위해 죽는’ 것을 갈망하는 능력을 갖추며 계속 받는다.
- e. 나는 ‘영과 진리’이신 성령님의 지시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 f. 그 결과로 나는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현실안으로 변화되어 간다.

37. 이것은 전혀 인간의 종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며 전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며’ 레마인 성령의 음성에 관한 것이다.

- a.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치유가 필요한 세상을 위한 것이다 (내가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안에서 나의 해결책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갈 때마다 모든 통증이 나를 떠난다).

저자의 깨달음: 인간은 피조물이며 디엔에이, 디옥시리보핵산으로 만들어졌다. 몸안에 이상에 있을 때, 그 비정상성을 만드느라고 디엔에이가 세포들을 조종하여 변이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이 비정상성을 되돌이키는 과정이 발생한다. 디엔에이 기적의 과정은 육신의 차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더 깊은 삼단계 수준의 디엔에이에서 시작된다.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며 그 다음 육체 안에서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기적으로서 실체화 된다. 나는 삼단계에서의 디엔에이 치유를 받았다. 인간들은 기적들을 창출해 낼 수 없고, 그들은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성령님의 방법을 통하여 기적들을 받을 수 있다. 더 깊은 세번 째 단계의 디엔에이에 대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b. 그것은 우리의 필요한 자원을 위해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는 나와 중독에 걸린 무지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우리는 원래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에 중독되도록 지어졌고 땅에 임한 하늘 나라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
- c. 이것은 주 예수와 성령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속에 끊임없이 활동하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 d. 나와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지적인 인간들, 소위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하지만 정직하게 자신들이 텅 비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 e. 어떻게 사람이 한 발은 세상 왕국에 또 한 발은 하늘의 왕국에 두고 살 수가 있겠는가? 그 두 왕국에 동시에 진행되가고 있는데 말이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에는 시간이란게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시간과 모든 해결책을 통괄한다.
- f. 주 예수께서 “네가 나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것이든지 둘 중 하나다” 말씀하신대로 당신은 안에 있던지 아니면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나의 것이라고는 전혀 없이 알려지지 않은 하늘 나라안에서 살기

38. 나는 항상 모든 일에 살기위해 죽어야만 하고 매일 그리스도안에서 살기위하여 날마다 죽어야 한다.
39.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사랑하는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 알림: 모든 것이 기적의 보혈에 관한 것이다. 나의 것이라고는 남은게 전혀 없다.
40.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방향제시들을 다 뒤로하고 나는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안으로 들어가 성령님의 지시들을 들어야 한다.
41. 나는 나 자신을 전부, 나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제공할 것이 없음을 알라. "주여, 저의 전부를 받으시옵소서!"
42. '저는 나의 전체를 당신의 손과 주 예수님의 심장안에 다 의탁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 아직 어떤 것이라도 남은 것이 있다면 언제라도 원하시는대로 지금과 영원토록 계속해서 몽땅 다 취하시옵소서.'
43. "네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나는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주 예수님께 "저는 내안에 당신안에 있는 당신의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44. 나는 그리스도안에서 살기 위하여 죽은 상태로 있어야만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적의 피를 주셨을 때 십자가에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네안에 너는 내 안에 있다'.
45. 나는 내 마음과 존재에서 소원하긴 하지만, 소원은 그렇게 깊지 못하거나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조차도 어떻게 있어야 될 지 모르므로, 나는 어찌됐던 이 갈망을 당신의 발앞에, 당신의 손과 당신의 마음안에 내려 놓습니다.
46. 나는 이제 나의 존재 깊숙한 곳에서부터 땅에 임한 하늘 나라안에 있다는 것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는 존재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깊은 외침을 아신다.
47. 그러면 내가 스스로 품을 수 없고 나 자신이나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
48.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49. 주여 내가 당신을 기다리며 당신께로부터 받습니다. 나는 평강을 얻으며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안다. 나는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다 괜찮다는 것을 알고, 그 형통함이 역사하여 나와 내 주변에 있는 하늘 왕국안에서
좋다는 것을 안다.

50.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51. 주여, 당신의 임재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저 나는 내 마음이 부르짖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좀더 얼마동안 머문다.
52. 나는 내가 그리스도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가장 악한 원수가 내 자신임을 항상 자각한다. 내가
그리스도께 맡기지 않는 그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통제하려 든다. 그것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기적이란 것은 없고, 그저 세상적인 결과만이 따를 뿐이다.
53. 나는 매일 어제보다도 더 자신으로부터 나와 그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만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 그렇게 역사하며 안그러면 나는 변화되기를 중단하고 기적을 받는 것을 멈추거나, 세상에서
정체되어 내 삶에 진정한 기적적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54. 이 모든 것들은 매일 관찰되고 행하여야 하며, 아침과 저녁, 그리고 점점 더욱 더 실천할 필요가 있다.
55.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만을 감사드릴 것이다. 그럴때
나는 “내가 네안에 그리고 너는 내안에”를 받게 된다. 주께서는 내가 그와 함께 안에 있도록 부르셨는데,
내가 바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어찌하겠는가 생각한다.
56. 2017 년 9 월에 성령께서 나에게 ‘너는 죄를 저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죄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 그저
회개하라. 그러면 땅에 임한 하늘 왕국에 다시 있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다. 나는 계속 회개하면서 땅에
임한 하늘나라의 기적안에 머물고 땅에 임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들과 평강을 받아들인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넉넉히 이기는 정복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1.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2. 당신은 살기 위해서 죽어야만 한다: 주 예수께서도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라고 말씀하신대로 하나님은 먼저 상황을 바꾸시지 않는다.
3. 당신은 반드시 세상적이고 개인적인 상황들을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
4.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자신이나 상황들을 사랑하는 것 보다 반드시 더 커야만 한다.
5. 당신이 자신과 당신의 상황들을 하나님과의 쌍방적인 동등한 관계속에서 갖는 믿음안으로 순복시킬 때에, 당신의 믿음이 실체화되어 나타난다.
6. 하나님은 절대이시며 믿음 또한 ‘내가 네안에, 네가 내안에’ 일 때 절대적이다.
7. 어느 한 구절이 당신에게 절대적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당신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은 실체화된다.
8. 예를 들어 어떤 구절이 절대가 될 때: 그 말씀이 ‘내가 저 산을 옮긴다’ 아니면 ‘너의 믿음이 저 산을 옮길 것이다’ 라면, 당신의 믿음안으로 순복 시킬 때, 그 구절이 현실화 된다. 이것이 ‘진리’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론: 당신이 하나님과 그의 길을 향하여 깨어나 조명받은 마음이 없다면, 여기 안내서에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역사가 되는 그 무엇 :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얼굴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마음과 상합된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길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들, 즉 주 예수께서 행하신 바와 같이 하라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해주시는 대로만 하노라” 하시며 성령님으로부터 들으셨다.

내가 발견한 것은 나의 존재안에서 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단계로까지 더욱 깊이 깊이 나아가고 이전보다도 더욱 깊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있는 책임들을 지려고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갖는 관계속에서 나의 세상적인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며 내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주변의 세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진짜, 진짜, 진짜, 진실로 실제이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내가 네안에 그리고 네가 내안에’ 거하는 그의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로부터 모든 영광을 요구하신다.

“먼저 나의 마음과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나의 방법으로 모든 다른 것들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레마 해결책안에서 승리하며 살기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생명:

한 여인이 회개하고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합당하게 될 때, 그녀는 아기에 대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녀의 어려움을 위한 해결의 방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되면 성령의 음성과 한 단계 한 단계 주시는 방향에 따라, 아기를 유산시키지 않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갖고 그분과 함께 개인적인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된다.

영적으로 조명을 받은 청소년이 바른 방향으로 가며 바른 결정을 하기:

한 청소년이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성령의 음성으로 진짜 개인적인 관계를 받으면, 그들의 삶의 방향이 주 예수의 기적의 피와 성령의 음성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변화될 것이며 그들은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열한명의 제자들처럼 그냥 머리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은 실체가 되었다.

마약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누군가 진정으로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만나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이 현실화된다. 그들이 마약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과 연류되기를 원치 않아서 잃어버린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실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올바른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 사람이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안에서 진행하는 동안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의 고차원적인 경험인 것이다.

의약품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전문의들은 해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약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하며, 칼과 반찬고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마음은 깨어지고 그들의 손이 묶여 있다. 오직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만이 고치고, 치유하는 기적의 능력과 건지냄을 제공해준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전문 제자가 되기를 시도해 보라.

기적의 의학적인 완화:

내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이 기적적인 고침과 나옴과 구조를 줄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모든 일에“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부여받았다. 나는 그것을 항상 사용하는데, 통증이 나를 떠난다. 그것은 사실이다. 주 예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말씀하셨다.

의학적 기적의 치유들:

위에서 말했듯이 주 예수의 기적의 피가 기적적인 고침과 기적적인 치료와 기적적인 건짐을 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받으라.

의존하는 모든 것들에서 기적적인 구조를 체험:

주 예수의 기적의 피와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당신이 자유케 된 것을 주지하라! 그곳에 더욱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가 머물면서 당신의 자유한 삶가운데서 방향제시를 받고, 그 삶을 살라.

직장이 없는 동안에도 공급받는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누리는 기적의 평강:

이것은 당신이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통솔하시는 상태이다. 그저 회개하고 그의 길인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하여 당신 자신이 합당하게 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기적의 평강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방향제시에 민감해져서, 그것을 행하면 그 결과들을 보게 된다.

그 평강이 하늘 나라이니, 어찌 결핍이 있을 수 있으랴.

존속하는 가정들을 위한 결혼생활의 안정성:

이 세상에는 당신이 없더라도 이미 너무나 문제들이 많은데, 당신도 여기에 있다. 그러니 그저 당신은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안으로 들어가서 바른 것을 행하라. 그리고 다른 이들과 당신의 가족들을 위하여 성령님께 듣고, 그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정확히 행하며 당신 가족들 모두를 돌보시는 기적들을 바라보라. 당신의 가족이 이런 역사를 보면서 당신을 따를 것이고 당신이 가진 것을 자신들도 갖기를 원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방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받으라.

미래의 가정들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신바 된 결혼:

어떻게 갈망하고, 들으며, 받고, 실행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받도록 창조하신대로 사랑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만약 당신이 영적, 육적으로 당신의 마음과 사고와 육체와 혼과 힘을 들여 그들을 사랑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로 당신의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너의 배우자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당신에게 말씀해주시는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당신의 배우자가 최고중의 최고를 갖게 되기 원할 때, 당신도 최고중의 최고를 받는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의 뜻, 그의 방법, 그의 관점에 따라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것을 안다.

현재를 위한 해결책들: 공급, 방향성, 건지심, 보호, 미래를 위한 변화와 과거로부터의 자유

오직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을 통해서만 당신은 올바르게 받게 된다.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합당하게 되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분의 길들을 구할 때 그의 길이 현실화된다. 나는 그의 평강을 갖고 기다리고, 그 평강가운데서 기다린다. 그러면 나는 그의 평강과 그의 길들을 소유하게 된다. 그것들이 내 삶 안에 있다.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개인적인 문제들을 위한 올바른 해결들이 이미 포함되어짐:

당신이 합당성을 갖고 그분의 길로 들어갈 때, 나의 눈과 마음은 그분의 해결책들에 고정되고 문제들은 사라져 버린다. 당신이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라. 그저 성령님과 맺는 관계와 주 예수의 기적의 보혈이 해결책과 함께 있을 뿐이다. 그럴때 문제들은 나에게 당도하기 전에 다 사그러들고 만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그 전부를 받으라.

“열린 천국 예배 센터” 거주지: 16890 HWY 14, MOJAVE, CA. 93501 (STATER BROS. 바로 옆)

예배시간: 수요일 오전 9 시. 일요일: 오전 10 시 혹은 개인적으로 OPENHEAVENWORSHIPCENTER.COM 으로 들어가 연결하십시오. 변화와 친밀함의 부흥 집회를 위한 연락은 1-661-754-1009 로 하십시오.

“나의 마음과 얼굴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다른 것들은 나의 방법으로 너희에게 주어지리라”